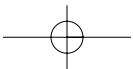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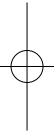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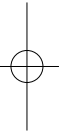


이게
뭘 말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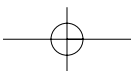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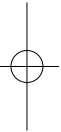
충청도말 이야기





충청도말 이야기

이명재 지음



발간사

예산이라는 지명이 태동하여 1,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세월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젖줄인 무한천의 고고한 물줄기도 1,100년을 업고 지금도 서해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물줄기가 내포 문화를 태동시켰고 지금은 충청도청이 들어와 새터를 잡고 미래 천 년을 향해 충남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후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비약적인 발전은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정보통신강국이자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획일화와 지나친 보편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승시켜야 될 문화를 도태시켜 지역문화의 특수성

과 우리들만의 색깔을 무미건조하게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하나로 묶어 버린 인터넷 세상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는 신조어들과 다국적 언어들 심지어는 국적불명의 언어들로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우리의 말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언이라고 하여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던 지역말은 더욱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얼마 전만 해도 지역의 말이 곧 그 지역의 문화와 성격을 대변해 주었으나 이제는 지역의 말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지역의 말 또한 우리 지역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여 이명재 선생님께서 모아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말 사전』 1,2권을 예산문화원에서 발간하였고, 충청도말에 쉽고 접하기 좋게 풀이하여 지역 문화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충청도말 이야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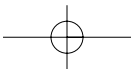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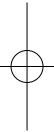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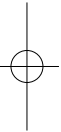
평소 예산문화원에서도 지역학으로서 충남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충청도말도 충남학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지길 바라며 앞으로 예산학 등 지역학연구 자료 및 교육 자료로의 역할에 많은 도

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님과 황선봉 예산 군수님을 비롯한 충남도와 예산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쉽게 지나치기 쉬운 말과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지역문화를 대변하는 좋은 소재 거리가 될 수 있음을 본 사업을 통해 확신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충청문화만의 특수성과 이야기 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2015년 12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서문

나는 충청도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가끔 왜 사투리를 쓰느냐고 묻습니다. 내 대답은 심드렁합니다.

“그야내 말이니까 쓰지.”

누군가가 ‘충청도 사투리가 더 소중한 것이냐, 서울 표준말이 더 소중한 것이냐?’ 고 물어오면 또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충청도말이 더 소중한지.”

표준말과 지역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를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육과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표준말 사용에 익숙해져 가면서 내 말의 소중함을 잊거

나 의식 없이 내 말을 버려가는 것이지, 내 말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크게 얻은 사람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도 부도 얻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두 아이에게 '네게 더 소중한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 두 아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가 소중하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하다고 내 아버지를 버리고 남의 아버지를 소중하다 할 아이는 없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소중한 까닭도 내 말이기 때문입니다.

표준말은 각 지역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거래의 통합에 절대적으로 기여합니다. 따라서 표준말을 배우고 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 말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표준말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필요에 따른 것인데, 표준말이 지역 말에 비해 우월하다거나 표준말만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학교 교육이 그릇된 것일

니다. 충청도 사람이 살아가는 충청도 땅에서는 충청도 말이 당당히 살아 있어야 하고, 경상도 땅에서는 경상도 말이 당당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충청도 사람의 주체가 살고, 경상도 사람의 주체가 삽니다.

세계가 가까워지니 외국어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해서 영어가 우리말보다 소중해질 까닭은 없습니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하니 표준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지역 말보다 서울 표준말이 더 소중해질 까닭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쉬이 버리는 자 주체성을 잃은 자요, 남의 것을 쉬이 쫓는 자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자입니다. 우리말이 굳건한 뒤에야 영어도 당당히 수용할 수 있고, 내 정체성을 바로한 뒤에야 남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표준말의 우월적 지위에 눌러 내 지역 말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꾸만 지역 말들이 사라져 갑니다. 누군가가 잊혀져가는 충청도 말을 건네주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주우며 다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각 지역의 말이 잘 정리되고 어우러져
아주아주 풍성한 표준말, 아주아주 빛나는 우리말을 나는 생각
합니다.

예산문화원에서,

이명재

차례

발간사_5

서문_9

제1부 사람과 몸

예이, 시절아_20

팔띠기와 오피이_23

그 여벌을 뭐더러 태꾸 땡겨?_25

을띠기와 으리빠리_27

개구지다, 개구쟁이_29

용천백이와 문딩이_32

병주거리, 병주가리_35

고랑팔십, 쭈그렁 밤탱이_37

짜리몽땅, 난쟁이똥자루_39

기창 떨어지겠다_41

아구, 아갈배기_43

머가지와 먹살_46

싸대기와 싸_49

귀싸대기, 구통배기_52

‘혀’의 충청말 ‘서’와 ‘세’_55	입설, 입설밭매_62
역구리, 역구레_57	콧중배기와 콧잔당이_64
오곰다릴 쪽 피구얏어라_60	오여손잡이와 바른손잡이_66

제2부 동물과 식물

섬난 짐승 염생이_70	배얌(2)_93
매미와 오래오래_73	깨구락지와 개구락지_96
참새와 허숭애비_75	미꾸리와 미꾸락지_100
까마귀와 까그매_78	진드기와 진디_102
곰쥐와 곰지_80	뜨물과 진딧물_105
새양_82	잔디의 충청말은?_107
새양지와 생쥐_85	질겅이와 질겅이_110
살쟁이와 살가지_87	포깁이와 포기_113
배얌(1)_90	겍대와 겍줄_115

앞사구와 앞새기_118

콩천대와 밀천대_130

새밭고사리와 오박고사리_120

뿌리기와 뿌랭이_132

벼와 베_122

나무와 낭구_135

스늬과 스늬밥_124

뽕로수낭구와 보리수나무_137

명위 풀검데기_126

생강나무에 핀 눈꽃_140

쟁덩이와 쟁짜_128

제3부 생활 도구

바수거리와 바지계_144

특배기와 투가리_160

구락쟁이와 아궁지_147

부지쟁이와 부시쟁이_162

적쇠와 석쇠_150

조랭이와 조래미_164

쓰레박과 쓰레받기_153

차귀와 짝새_166

호밀과 밀댕방석_155

대꼬바리, 담뱃대_168

흔털뱅이_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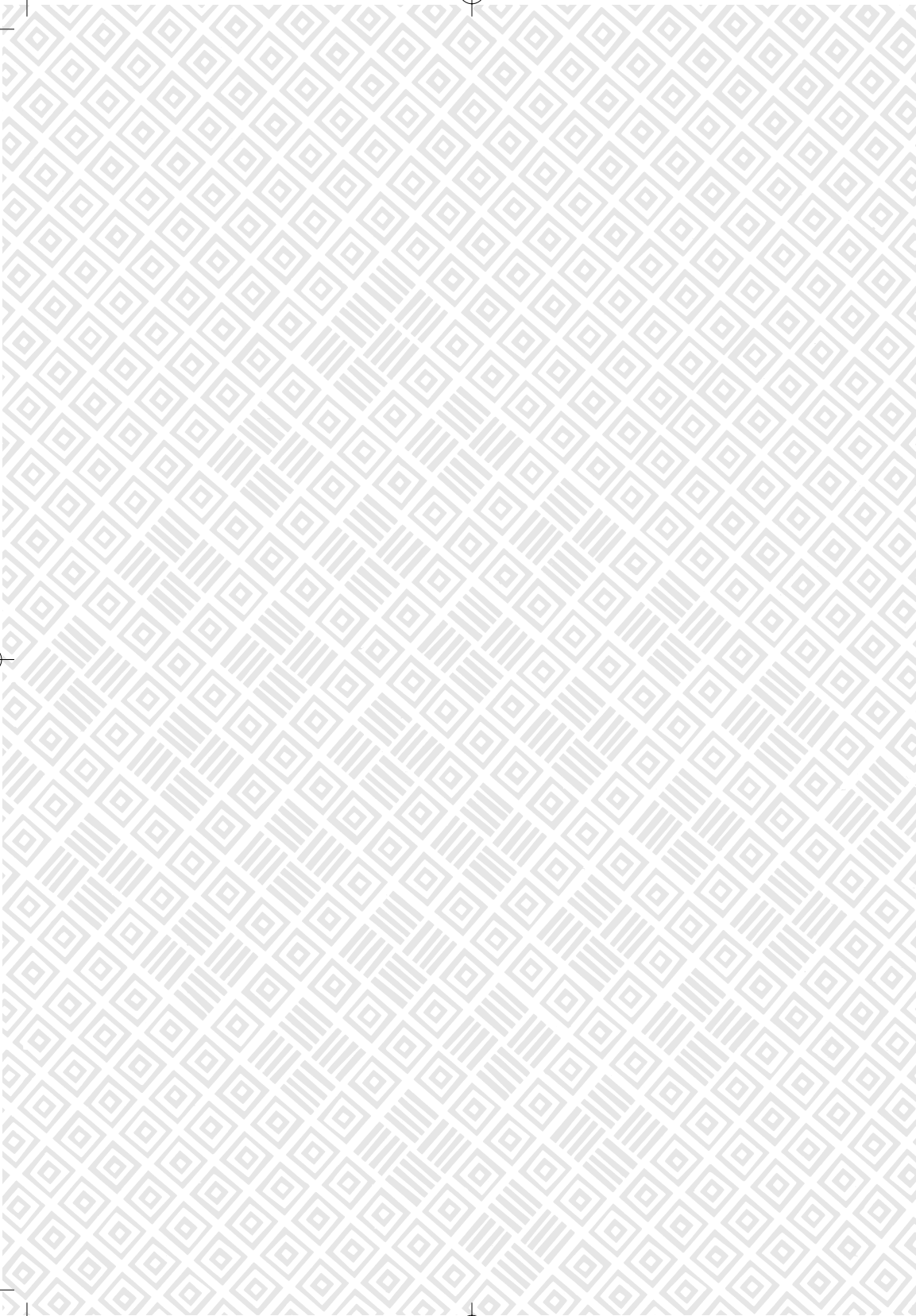
메쟁이_171

개상, 홀태, 그네_173	괴타리씨름과 괴리띠_192
암키와, 암캐와_176	고뽕이와 괴뽕이_195
몽달구신과 삼태미구신_178	따깁, 따깁이와 뚜깁이_197
끈내끼와 끈냉이_180	칭칭다리와 칭칭대_200
그도와 톱_182	살강과 실경_203
그울과 색경_184	섯대와 열대_205
저범과 적갈_186	꾸레미와 실꾸리_207
타래박과 등목/등떡_190	

제4부 사물과 장소

검부락지, 지푸락지_210	뜯강과 갱굴_219
몸디기, 티검불_212	뚝생이는 높고 튼튼히야_222
담배락이 무너지다_215	세지름, 시질목_225
첫눈과 고도름_217	안창과 안짱_228

안침이다 짚이두 승켜놨네_232	구녕, 구녀, 구덕_250
언서리와 영서리_235	말지기, 뒹박지기_253
모캥이와 모텡이_237	습지기, 삭갓지기_255
'산'과 붙어 쓰이는 말_239	정겹고 고운 '뒹지울간'_257
산-말랭이_241	말과 마실_259
산-비알_243	'홍군헌아릅뚝'이
산-등백이와 산-어덕_245	그리운 계절_262
'구멍'을 뜻하는 충청말_247	



제1부
사람과 몸

예이, 시절아

*표준어에는 없는 ‘시절’

요즘 나는 충청도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충청남도예산말 사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나를 보면 붙들고 충청말과 예산말을 들려주거든요. 엇그제만 해도,

“쌌다년 말이 뉘 중 아슈?”

“쓰서리는 찾았유?”

“일번두 충청도말일 텐디 사전이 읊던 듀?”

“낫브다는 기록했남유?”

“그네라구 들어보셨유?”

지나는 곳마다 찾지 못했던 충청말들이 마구 쏟아져요. 돌아보면 내가 주워 담지 못한 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위 충청말들은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나는 오늘도 충청말 하나를 얻어

들었어요. 그게 ‘시절’이에요. 오늘 오후에 세련되고 예쁜 학부모
님이 찾아와서는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예이 시절야’ 하니 대전 친구들이
뭔 말인지 통 못 알아듣더라고요. 선생님, 시절이 예산말 맞지요?”

예, 맞아요. 귀한 예산말이지요. 저도 어릴 적 많이 쓰고 들은 말
인데 잊고 아직 정리해 두지 못한 말이네요.

‘시절’은 ‘지나는 절기나 하루의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거나, ‘행동이나 지혜가 조금 모자란 듯한 사람을 놀려 이를
때 쓰는 말’이에요. 비슷한 뜻의 말로는 ‘얼간이’나 ‘바보’ 따위가
있을 텐데요. 보통 ‘얼간이, 바보’ 하면 상대를 심하게 깔보거나 업
신여기는 느낌을 주는 말인데, ‘시절’은 그렇게 막 깔보는 말은 아
니고요. 대개는 ‘예이 화상야.’ 할 때처럼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다
는 조건을 깔고 놀리는 말이에요.

“저놈은 시절인가 봐. 밥때두 놓치구 워딜 쏘댕기다 인저 들어온다?”

“시절이 달래 시절이겠어? 때 놓치구 댕기닝께 시절이지.”

제겐 인근 지역인 당진이나 서산, 공주, 청양에 친구들이 있는
데 그들은 지금도 ‘시절’이란 말을 자연스레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시절’이란 말은 충남 전역에서 두루 쓰이는 것으로 보
여요. 재밌지 않나요? 놀리되 밋지 않게 놀리는 말, 서로 챙겨주

며 걱정해주는 말 ‘시절’. 언제 손주들이나 아이들에게 한 번 써
먹어 보세요.

“예이 시절아. 밥은 먹구 놀란 말여.”

팔뜨기와 오피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팔뜨이**.’

어느 글에 소개된 옛이야기 구절인데요. 아무래도 ‘팔뜨기’를 잘못 쓴 것 같군요. ‘팔뜨기’는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팔삭둥이를 이르는 말이지요. 물론 표준어는 아니고요, 표준어에서는 ‘칠뜨기’만 인정하고 있어요. ‘칠뜨기’는 말 그대로 일곱 달 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칠뜨기’도 많이 쓰지만 ‘팔뜨기’도 많이 쓰지요. 물론 ‘칠뜨기, 팔뜨기’가 바른 충청말이지요.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 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말이지만, 실제 말할 때는 대개 ‘지혜나 생각이 모자란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 말에는 ‘칠푼이’와 ‘팔푼이’가 있어요.

열 폰이 돼야 짹 찬 알짜배기일 텐데, 열에 둘이나 셋이 모자란 사람이란 말이지요. 이 말은 서울이나 충청도나 똑같이 쓰는 말인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폴이’지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 칠폰이, 팔폰이만도 못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로 예전에 종종 쓰였어요. 그리 좋은 말이 아니지만 오늘 문득 어떤 글을 읽다가 잊었던 충청말 ‘오폴이’가 떠올라 적어둡니다.

‘즈런 **칠띠기**허군 하냥 놀덜 말어. 고여니 자랑 놀다가닌 너두 **팔띠기** 된다닝께.’

‘넌 **팔폰이**, **칠폰이**두 못 되넌 **오폴이**여, 이눔아’

그 여벌을 뭐더러 데꾸 땡겨?

‘여벌’은 ‘입고 남은 옷이나 당장 필요 없는 옷’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이를 ‘함께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얹잡아 이를 때 많이 씁니다.

“그 여벌은 뱀버리지 앵구 뭐더러 데꾸 땡기는겨?”

하는 식인데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상대를 대놓고 직접 욕하는 것을 꺼리지요. 그러다 보니 듣기 싫은 소리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빗대어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까닭에 타지방 사람들로 부터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점잖게 한다.’거나, ‘충청도 사람들은 부드러운 고급 화법을 잘 쓴다.’는 말을 듣지요.

‘여벌’도 그런 빗대기 표현인데요. 일이 서투른 사람에게 ‘일두

못허넌 놈'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여벌'로 빗대어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빗대기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긴 한데요. '여벌'에는 상대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뜻을 담고 있어 점잖은 표현이 되기는 어렵겠네요.

“이 사람아, 여벌두 여벌 나름이지, 똥다가니 쓰두 못헐 그 여벌을 왜 들구 우리 일이 씨줄라구 안달을 허는가?”

“그 사람은 여벌이닝께 신경쓸 것두 읍어.”

상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큰 실례가 되겠고요. 뒤에서 하는 말이라도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빗대어 표현하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더러 놓으려는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하지만 함부로 쓸 말은 아닌 듯싶습니다.

을띠기와 으리빼리

① 머라 그러능겨? 그리기 그러키 **으리빼허**믄 못 쓴다구 헛잖어.

② **을띠기**허구 하냥 땡기는 **으리빼리**배끼 더 되겠능감?

요즘은 나이가 지극하신 어른들도 위의 ①② 문장에서처럼 충청말을 순전하게 쓰는 일은 드물어요. 더구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위 말이 아주 생소할 수도 있지요.

위 문장에 있는 ‘으리빼리허다, 으리빼리, 을띠기’는 어떤 말일까요? 아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하는 경우가 많겠고, 어른들이야 대개 아시겠지만 위 말을 표준말로 바꿔보라 하면 또 쉽지 않아져요. 아이들은 표준말은 잘 알지만 충청말을 잘 모르고, 어른들은 충청말은 잘 알지만 반대로 표준말과의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으리빼리허다’는 생각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어수룩하다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 ‘으리빼리’는 생각과 행동이 어수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요. ‘을띠기’는 정신을 뜻하는 ‘을(얼)’에 생각과 행동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띠기’가 붙어서 된 말이니까 ‘정신이 빠져나간 듯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뜻의 충청말에는 ‘어병허다, 어병이’가 또 있어요.

요즘 연예인 김종민 씨를 ‘어리버리’라고 부른다거나, ‘어리버리하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사투리에요. 표준말은 ‘어리바리하다, 어리바리, 얼뜨기’랍니다. 그럼 위 문장을 표준말로 된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 ① 무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바리하면 못 쓴 다구 했잖아.
- ② 얼뜨기하고 같이 다니면 어리바리밖에 더 되겠느냐?

개구지다, 개구쟁이

*표준어가 되고 싶은 말.

① 개구지다

“저 늪이 월매나 의문시럽구 **개구진지** 으른덜을 노상 골탕 멕인다.”

“저 **개구진** 늪이 또 먼 짓을 헐라능 겨?”

② 개구쟁이/개구징이

“으이구, 저 **개구징이**덜이 또 몰려와서니 윈 집안을 흐집구 있구먼.”

“**개구쟁이**두 저런 **개구쟁이**가 읍다닝께.”

‘개구쟁이’는 ‘장난이 지나치게 심한 아이’를 이르는 말로 표준 말이지요. ‘개구쟁이’를 살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개구+-쟁이’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개구쟁이’를 ‘개구’와 ‘-쟁이’로 나

뉘서 설명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쟁이’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거나,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접사)이에요. ‘거짓말쟁이, 심술쟁이, 겁쟁이, 월급쟁이’ 따위처럼 다른 말 뒤에 붙어 쓰이지요. 그렇다면 ‘개구쟁이’도 당연히 ‘개구’라는 말에 ‘쟁이’가 붙어서 된 말일 텐데, 왜 사전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표준말에 ‘개구’라는 말(명사)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구’라는 말이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근거가 되는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개구쟁이’를 자신 있게 풀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잠시 지역 방언으로 눈을 돌려보면 충청도에는 ‘개구지다’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지금도 아주 많이 쓰이는 말로 ‘행동이 지나치게 장난스럽고 짓궂다.’란 뜻을 지니고 있지요. 비단 충청 지역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 말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구지다’를 표준말로 인정하면 ‘개구쟁이’의 풀이가 자연스레 해결돼요.

‘개구지다(짓궂다)’에 ‘쟁이/-앵이(그런 버릇을 가진 아이)’가 붙은 것이라 하면 간단하잖아요. ‘개구(지)+쟁이/-앵이→개구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개구쟁이’가 ‘개구’라는 명사에 ‘쟁이’가 붙은 것인지, ‘개구지다’란 동사에 ‘앵이’가 붙은 것인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요. ‘개구지다’도 ‘개구’라는 말에 보조동사

‘지다’가 붙은 것일 수 있고요.

아무튼 어원을 밝힘에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남긴 하지만, ‘개구지다’란 말이 여러 지방에서 두루 살아 쓰이는 말인 이상 국립국어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표준말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천백이와 문딩이

‘문딩이는 보리밭이 숨었다가 애덜이 지나가믄 잡어서니 간을 빼먹는다.’

‘이즌인 용천백이덜은 집이서 내쫓이야 했어. 식구덜이 내쫓덜 았으믄 동네 사람덜이 동네 백이루 내몰었지. 애덜이 문둥병이 걸리믄 산밭이 다 움막을 짓고 거서만 살게두 했구. 먹구 살 것이 았년 용천백이덜이 동냥을 오믄 동네 애덜이 쫓어댕기매 돌을 던지구두 그랬지.’

‘용천백이’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일컫던 말이에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고치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문둥병은 천형(天刑)이라 하여 모진 고생을 하다 죽어가야 하는 하늘의 형벌로 여기기도 했지요.

‘용천’은 본래 ‘마구 범석을 떨며 날뛰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에서 ‘용천’은 ‘지랄병(癡疾)이나 문둥병’을 가리키는 뜻으로 확대되었어요. 이 ‘용천’이란 말에 ‘백이’가 붙어서 된 말이 ‘용천백이’니, ‘용천백이’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일제강점기에는 문둥병 환자가 동네마다 있었다고 해요. 문둥병은 주로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는 병인데 당시엔 고칠 약이 없어 병자는 동네와 사람들에게 쫓기고 숨어 다니다가 온몸이 문드러지는 고통 끝에 죽어갔지요. 일제는 문둥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록도에 수용소를 만들고 강제로 환자들을 이주시켰어요.

소록도에 가면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둥이들이 소록도에 가길 거부하고 산이나 움막에 숨어살았지요. 그들은 집에서 쫓기고 마을에서 쫓겨 숲이나 개울의 다리 아래 기거하며 동냥을 하여 살아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쫓김을 당하고, 돌아서도 갈 곳이 없는 고통과 슬픔. 살아선 이름을 잃고 죽어도 무덤이 없는, 그들은 바람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그 슬픈 삶의 뒤로

‘문딩이는 아이 간을 빼먹으매 산다더라. 그리서 보리밭이나 뽕나무 밭에 숨었다가 아이들을 잡아 간다더라. 누구네 아이는 문딩이한테 잡혀

갔다더라. 누구는 문딩이가 아이 간을 빼먹는 것을 보았다더라.’

하는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뿌려졌지요.

그 아픈 슬픔을 가진 이들을 충청도에선 ‘용천백이’라 불렀어요. 더러는 ‘용천뱅이’라 하는 이도 있었고, 보통은 ‘문딩이’라 불렀어요. 물론, 삼남지방이 다 그렇게 불렀지만요.

병주거리, 병주가리

* '병주머니'의 충청말

오늘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충청말을 만났어요. '병주거리'라는 말이에요. 얼른 메모장에 적어 놓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병주거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나오라는 '병주거리'는 나오질 않고 난데없는 '병주머니'가 툭 튀어나오네요. '갓가지 병이 많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렇구나. 병주거리의 표준어가 병주머니였구나. 병주머니는 말 그대로 온갖 병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란 뜻이니 여러 병을 앓는 병약자를 이르는 말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병주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지?'

'병'은 알겠는데 '주거리'를 모르겠어요. '주거리'란 말은 우리 말에 없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봤어요. 생

각해보니 내 어렸을 적만 해도 참 많이 듣고 썼던 말이에요. ‘병주거리, 병주거리’ 뇌까리는데 문득 ‘병주가리’가 떠오르네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병주거리’를 많이 썼지만, 더러는 ‘병주가리’라고도 썼거든요. 그럼 ‘주가리’는 뭘까요? 말의 형태로 보아 ‘죽않-+-이’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아하!

그랬어요. ‘주가리’는 ‘죽(줄곧)+않-+-이’였어요. 그러니까 ‘병주가리’는 병을 몸에 담고 죽 앓는 이(사람)란 뜻이 되지요. 충청지방에서는 양성모음 ㅏ와 음성모음 ㅓ가 자유롭게 교체돼요. 그러니 ‘병주가리’라고 말하든 ‘병주거리’라고 말하든 소통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병죽않이’가 소리 나는 대로 말해진 것으로, ‘병주거리’는 ‘병주가리’가 변한 것이었어요. 뜻은 표준어와 같지만 말은 사뭇 다르네요. 아래에 ‘병주거리/병주가리’의 예문을 써볼게요.

“자네같은 병주거리가 오쁜 일루다가 장이를 다 왔다?”

“너머 팔세 말어. 병주가리는 집이만 처백혀 있으라넌 뱀이라두 있능감?”

고랑팔십, 쭈그렁 밤텅이

우리 지방에는 ‘고랑팔십’이란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젓은 병치레를 하면서도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 말은 ‘고랑’에 ‘팔십 살’이 붙어 된 말인데, 표준어에는 ‘고랑’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고랑’은 늙은 몸으로 병치레를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모양이나, 숨이 차 헐떡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보통은 ‘고랑고랑헌다’라고 말을 겹쳐 쓰지요. 그러니까 ‘고랑팔십’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숨이 고랑고랑하며 넘어갈 듯하면서도 팔십 살을 산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즘도 팔십을 넘기면 수를 한 다고들 하는데 예전에 팔십이라면 지금은 구십을 훌쩍 넘긴 것이 되겠지요.

‘고랑팔십’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충청도 속담으로는 ‘쭈그렁

밤텡이 시 해 간다.’거나 ‘쭈구렁 밤텡이 삼 년 간다.’라는 것이 있지요. 성하지 못한 밤툭은 누가 주워가지 않아요. 그래서 밤나무 밑에 떨어져 해를 넘기게 되는데, 그것이 썩지 않고 삼 년을 버틴다는 얘지요. 가을날 산에서 밤을 줍다 보면 거무죽죽하게 3년 이상을 뒹굴어 다니는 ‘쭈구렁 밤텡이’는 흔히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로부터 몸에 병을 지닌 사람은 늘 몸을 아끼고 살피서 그 병과 함께 오래 살아간다고 하고요. 반대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믿고 몸을 함부로 하여 일찍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랑팔십, 쭈그렁 밤텡이 시 해 간다.’는 말은 ‘병치레 잦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늘 건강을 챙겨야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은 감기가 성하고, 어르신들은 몸에 한기가 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들 몸을 아끼고 건강을 챙겨 오래도록 활기찬 삶을 누리세요.

짜리몽땅, 난쟁이똥자루

“살다살다 그런 못 생긴 **짜리몽땅**은 참 보넌구먼.”

“그리기, 사람 인물이 읊다읊다 히두 오티기 그렇기 생겼다? 키는 째끄
만 것이 살은 디룩디룩 찌갓구 **난쟁이똥자루**두 그버덤은 낫겼더먼.”

이게 충청도 사투린지 전국에 떠도는 속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다만 ‘짜리몽땅’과 ‘난쟁이똥자루’는 예전부터 우리 충청
도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고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을 놀리듯이 말
하는 화법이 충청도말에 잘 어울려요. 충청도 사람들의 말은 직접
남을 놀리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에둘러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
하니까요. 더구나 과장을 섞어 유머와 해학을 연출해내는 화법도
충청도말처럼 보이지요.

‘짜리몽땅’은 ‘짜리’라는 말에 ‘몽땅’이란 말이 이어져 생긴 말

이에요. ‘짜리’는 짧은 물건을 나타내는 말이고, ‘몽땅(몽당)’은 물건이 닳거나 잘려나간 조그만 도막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 두 말이 붙어 ‘조그맣게 잘린 도막처럼 몸집이 몽푹하고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었어요.

‘난쟁이똥자루’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말인데요. 키가 작은 종족인 ‘난쟁이’에 굵은 똥덩이를 나타내는 ‘똥자루’가 붙은 것이에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난쟁이가 싸 놓은 굵은 똥덩이’가 되는데, 비유어로 쓰면 ‘난쟁이가 싸놓은 똥덩이만한 사람’의 뜻이 되지요. ‘키는 매우 작으면서 통통하게 살이 찐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

두 말 모두 남을 놀리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뜻이 크게 드러나는 말이니 함부로 쓸 말은 아니겠고요. 다만 예전부터 많이 쓰였고, 충청도식 비유 화법이 두드러져 소개해 봅니다.

기창 떨어지겠다

귀 쭈시개로 귀를 후비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막힌 부분이 있어요. 이 막힌 부분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어를 이 를 ‘귀청’이라고 해요. 요즘은 충청 지방 사람들도 대부분 표준어를 익혀서 ‘귀청’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귀청이라고 안한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껍뻍 소리를 지르며 떠들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야이눔덜아, 살살점 소리 질러. 귀먹쟁이느이 할매 기창 떨어지겠다.”

이제 기억나시지요? 예전 우리 충청말은 ‘기창’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지요. 평소엔 잘 안 쓰던 분들도 동네에서 충청말을 편하게 쓰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창’이에요.

귀청의 한자말은 ‘고막(鼓膜)’인데요. 요즘은 ‘고막’이란 말도 쓰고 ‘귀청’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표준어도 한자말도 익숙지 않으셔서 순 우리 충청말 ‘기창’을 흔히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창’이라고도 했지요. 물론 ‘기창’이든 ‘구창’이든 ‘구청’이든 다 알아듣고 자연스레 쓴 것으로 보아 ‘구창’과 ‘구청’은 예전에 많이 쓴 말도 같아요. 구창과 구청, 예전에 들어보거나 써본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죄없는 누이 할아버가 왜놈 순사헌티 잡혀가서니 꺾방맹이를 되게 은어맞았어. 그러구선 **구창**이 터져서니 몇달 동안 귀이서 진물을 질질 흘렸넌디, 그 뒤론 통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

아구, 아갈배기

* ‘악(입/구멍) 이 들어간 충청말

아참, 다음 장에 ‘구락쟁이와’와 ‘아궁지’를 이야기하면서 ‘악’이 ‘입이나 구멍’을 뜻하는 말이라 설명하는데요. ‘악’이 들어간 다른 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악’의 뜻을 살펴볼까요?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구석 구석 뒤져봐도 ‘악’에 대한 내용을 뚜렷하게 풀이한 곳을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이고, 한글 문헌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악’이 독립되어 쓰이진 않은 듯해요.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는 ‘악’이 하나의 단어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근거가 없으니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네요.

다만, 지금 남아 있는 몇몇의 단어를 통해 그 뜻을 추정해보는 일은 가능하겠지요. 뒷장에 설명하는 ‘구락쟁이’는 ‘굴(큰 구멍)+ 악(입/구멍)+쟁이(그러한 사물)’로 된 말이니 ‘불을 때는 큰 구멍의

입구'가 되는군요. '아궁지'는 '악(입/구멍)+옹지(그러한 것)'로 된 말이니 '불을 때는 구멍, 또는 불을 때는 입구가 되는 곳'이 되고요. '악'을 입이나 구멍으로 생각하고 맞춰보면 그럴 듯해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못하네요. 그러니 다른 말을 더 찾아보기로 해요.

'악'이 들어가 있는 충청말을 더 찾아보니 '아구'와 '아갈배기'가 있군요. '아구'는 '악(입/구멍)'에 '-우(그러한 것)'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구'는 '입이나 구멍'을 뜻하는 말이 되겠지요. 충청말 '아구'의 표준말은 '아귀'고요. 이 '아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물건의 갈라진 틈이나 물건에 나 있는 구멍'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아구가 맞닿 않여. 아구를 맞춰라. 아구심이 참 씨구나. 속옷이 아구를 트야졌다.'를 예로 들어 보면 '아구'는 '틈새나 구멍에 맞질 않으니 잘 맞추라든지, 엄지와 손가락 틈새를 이용한 힘이 세다든지, 옷에 구멍을 내야겠다.' 따위에 쓰이네요.

'아갈배기'는 '입'을 거칠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요. 표준말은 '아가리'인데요. 우리 충청지방에서는 '아가리'도 썼지만 입을 비속하게 나타낼 때는 대부분 '아갈배기'라고 써 왔어요. '저 자식의 아가리를 찢어놓을라.' 하는 방식이 표준말의 비속어라면, 충청도에서는 '저 새끼의 아갈배기를 찢어놔 빠릴라.'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위 말을 풀어보면 표준말 '아가리'는 '악(입)+아리(그러

한 것'로 된 말이니 '입을 찢어 놓겠다.'의 표현이 되고, 충청말 '아
갈배기'는 '악(입)+알(알맹이/속)+-배기(그러한 것)'로 된 말이니
'입속까지 찢어버리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머가지와 먹살

* ‘모가지’와 ‘떡’

국어사전에서 ‘머가지’를 찾으면 ‘모가지’의 충청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모가지’란 말도 쓰잖아요. 그렇다면 ‘머가지’와 ‘모가지’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닐까요? 물론 이 두 말을 충청도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고 있고요. 같은 뜻으로 쓰이니 같은 말일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확실한 것을 알려면 말의 근원(語源)과 두 말의 쓰임을 살펴봐야겠네요.

① 자꾸 까불른 **모가지**를 확비틀어 뺏질 거.

자꾸 까불른 **머가지**를 확비틀어 뺏질 거.

예구, 끔찍한 말이네요. 위 문장을 보면 ‘모가지’와 ‘머가지’의 공통점이 둘 보이네요. 하나는 고운 말이 아닌 거칠고 저속한 말이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같은 뜻의 말이라는 것이예요. 두 말 모두 비속어다 보니 사용하면 거칠고 험악한 분위기가 돼요. 막 쓰면 안 되겠지요?

② 돼지 **떡 따년 소리** 허구 자빠졌네.

돼지 **목 따년 소리** 허구 자빠졌네.

돼지 **떡통(떡줄) 꿩년 걸** 아무나 혈 중 아남?

돼지 **목통(목줄) 꿩년 걸** 아무나 혈 중 아남?

당신이 뭘 **내 떡살**을 잡는 거?

당신이 뭘 **내 목살**을 잡는 거?

②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떡’과 ‘목’이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 쓰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네요. ‘목 따년 소리, 목통 꿩년 걸, 목살을 잡는 거?’는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떡’과 ‘목’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떡’과 ‘목’은 모두 ‘머개’라는 옛말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머개’는 뒷날 말이 줄어 ‘떡’이 되었고요. 이 ‘떡’이 다시 ‘목’으로 변했어요. ‘머개>떡>목’이 된 것이지요. 결국 충청말 ‘머가지’는 표준어 ‘모가지’의 옛말인 것이예요.

참고로 ‘떡’은 지금도 표준말이에요. ‘떡’이 서울 지방에서 ‘목’

으로 바뀌는 바람에 ‘며가지, 떡줄’ 따위는 사투리가 되고 말았지만, ‘떡살, 떡통’ 따위의 말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표준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싸대기와 쌤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과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
서 아이들은 마구 떠들어대요.

“야, 어떤 꼬맹이가 까분다구 내 친구가 쫓아가서 개 싸대기를 때렸어.”

“싸대기를 때렸다고?”

“이, 개는 누가 까붙면 싸대기를 쳐.”

옆에서 내가 끼어들어요.

“얘, 싸대기가 뭘 말인지 아니?”

“아, 싸대기는 뺨따구잖아요.”

“그래, 그럼 싸대기와 뺨따구의 표준말이 뭔지 아니?”

“예? 싸대기와 뺨따구가 표준말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예산에는 충청 방언과 표준어가 섞여 쓰여요. 어른들은 충청말을 좀 더 많이 쓰고, 아이들은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으로 표준말을 좀 더 많이 쓰지요. 그렇지만 위의 대화처럼 아이들은 충청말을 쓰면서도 자신들이 쓰는 말이 충청말인지 표준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① 머스매가 여자한테 **싸대기**를 맞구 댕기냐?
- ② 여점 봐유, 애 **뺨때기**를 이렇기 펄 수 있는 규?
- ③ 어휴, 저런 건 **쌈따구**를 올려부치야 허던 건디.

위 내용과 보기 문장을 보면, ‘싸대기, 싸대기, 뺨때기, 쌈따구’가 같거나 비슷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뺨’의 충청말은 ‘쌈’이에요. 충청말은 말하기 편하도록 구개음화를 많이 활용하는데, ‘뺨’이 ‘쌈’이 된 것도 그런 것이에요. 이 ‘쌈’에 ‘근처,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 ‘-대기, -때기’가 붙어서 된 말이 ‘쌈대기, 쌈때기’예요. 이 말이 말하기 편하도록 ‘ㅁ’이 떨어져지고 변하면서 ‘싸대기→싸대기’로 쓰이게 된 것이지요. ③의 ‘쌈따구’도 비슷하지요. ‘쌈’에 ‘따구’가 붙은 말이고요. 표준말로 바꾸면 ‘뺨따귀’가 되지요.

이렇게 ‘쌈’과 ‘-대기’가 붙어 쓰이는 말의 형태와 뜻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아요.

- ① 씹(뺨)→썩→싸 :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
- ② 씹때기. 씹대기. 씹배기→싸대기. 싸배기→싸대기. 싸배기 : 뺨의 어름. 뺨의 부근.
- ③ 씹따구(뺨따귀)→싸다구 : 뺨을 속되게 이르는 말.

다음 장에는 '싸대기, 싸대기'가 붙어 쓰이는 '귀싸대기, 귀싸대기→꺾방맹이, 구통배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귀쌌대기, 구통배기

아래 낱말들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충청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가운데 표준말이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것인지 찾아보세요.

- ① 귀쌌대기를 올려부쳤다.
- ② 귀쌌대기를 쥐 꿰다.
- ③ 구쌌대기를 얻어맞았다.
- ④ 저런 놈은 귀쌌대기를 쥐패야 버릇을 고치न्छ다.
- ⑤ 꺾방맹이를 쥐 꿰더니 조용해지더면.
- ⑥ 이 자속 구통배기를 확 갈겨뼈리까?

①~⑥의 낱말의 표준말은 '귀뺨'이에요. 이 가운데 ①②③④의 '쌌, 꺾, 싸'는 같은 말이지요. '쌌'은 '뺨'의 충청말이고, '쌌, 싸'는

‘쌈’이 말하기 편하도록 변한 것이예요. 간단히 나타내면 ‘귀쌈대기→귀싸대기/구싸대기→귀싸대기[기싸대기]’로 된 말이지요.

이 가운데 ‘귀싸대기’는 표준말이에요. 본래 서울지방에서는 얼굴의 양 옆쪽을 가리키는 말로 ‘뺨’을 썼기 때문에 ‘귀뺨’이 표준말이 된 것은 자연스럽고요. 다만 사람들이 ‘귀뺨’을 낮잡아 쓸 때는 ‘귀뺨따귀’를 쓰지 않고 한강 이남의 방언이었던 ‘귀싸대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방언인 ‘귀싸대기’가 서울말 ‘귀뺨따귀’를 물리치고 표준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위 문제의 답은 ④번입니다.

⑤의 ‘귓방망이’는 ‘귀’에 ‘방망이(방망이)’가 붙은 말이에요. 이 말의 서울말인 ‘귓방망이’는 표준말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울사투리로 되어 있어요. ‘귀(耳)’에 ‘방망이(棒)’가 붙어 쓰이는 꼴이 어법상 이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만 ‘귓방망이’나 ‘귓방망이’는 ‘귀에 붙은 방망이’가 아니라, ‘귀의 근처, 귀의 어름’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귀’의 뒤에 붙은 말인 ‘방망이’를 막대기로만 풀이할 것이 아니라, ‘근처, 부근, 어름’의 뜻을 가진 접사로 풀이하면 어법상의 문제가 해결되어 표준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이 말은 지금 전국에서 두루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법상의 문제와 상관없이 머지않아 표준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⑥의 ‘구통배기’의 표준말은 ‘귀통배기’예요. ‘구통배기’는 ‘구통머리(귀통머리)’를 낮잡아 쓰는 말이고요. ‘구통(귀가 붙어있는 곳

→구석진 곳, 모서리)에 ‘-배기(어름/근처)’가 붙어 된 말이에요. 또
‘귀통’에 ‘-이’가 붙으면 ‘귀통+이→구통이>구탕이>구탕이/구탕
이’ 따위로 쓰입니다.

‘혀’의 충청말 ‘서’와 ‘세’

‘혀’의 충청말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거의 들을 수 없지만, 나
이 드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혀’의 충청말이 ‘서’라는 것
을요.

옛말에서의 ‘ㅎ’은 충청도에서 ‘ㅅ’으로, ‘ㅎ’은 ‘ㅍ’으로 흔히
발음되었어요. ‘ㅎ/ㅎ’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로 발음을 똑똑하
게 내려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발음하기 쉬운
‘ㅅ/ㅍ’을 택한 것이예요. 옛말 속의 ‘ㅎ’은 표준말에서는 ‘ㄱ’으
로도 많이 변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충청말에서는 ‘ㅍ’으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옛말 ‘불을 췌다’의 경우 표준말에서는 ‘불을 췌다’가
되었고, 충청말에서는 ‘불을 쓰다’가 되었지요. 한자말 ‘형(兄)/형
님’은 ‘성/성님’이 되었고, ‘힐끗 쳐다보지도 않다’에서 ‘힐끗’은

‘시끗두 앓다’처럼 ‘시끗’이 되었어요. ‘힘이 없다’는 ‘심이 없다’, ‘힘에 겹다’는 ‘심겹다’가 되었지요. 이처럼 충청말에서는 ‘ㅎ/ㅎ’ 따위의 소리가 구개음인 ‘ㅅ/ㅆ’으로 나타났는데요. ‘혀’도 이와 마찬가지로 ‘혀>셔→서’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설명에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충청도에서 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실제 ‘혀’를 ‘서’라고 쓰는 것을 들은 분들이 많지 않으니깐요. 합성어에서는 흔히 ‘서’가 쓰였지만, ‘혀’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대개 ‘세’라고 썼기 때문이지요. ‘혀 좀 내밀어 보라.’를 ‘서 점 내밀어 보라.’ 하지 않고, ‘세 점 내밀어 보라.’, 또는 ‘셉바닥 점 내밀어 보라.’라고 했거든요.

정리하면, ‘혀’의 충청말 원형은 ‘서’고요. 이 ‘서’가 변한 모양이 ‘세’랍니다. 그럼 ‘서’와 ‘세’가 들어간 합성어 몇 개를 살펴볼게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면 아래 몇 개의 낱말을 보면서 옛 충청말들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 1) 단독형 : ‘서/세(혀)’. 서 깨물다→세 깨물다(혀를 깨물다)
- 2) 합성어 : 서끝→세끝(혀끝), 서끝소리→세끝소리(혀끝소리). 서빠지다→세빠지다(혀가 빠지다). 췌빠지다(‘세빠지다’가 강해진 경우). 서짤배기→세짤배기(말더듬이). 셉바닥→셉바닥(헛바닥). 셉바늘→셉바늘(헛바늘). 셉뿌리기→셉뿌리기(헛뿌리).

역구리, 역구레

엿그제 시골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눈이 와서 찾아뵈지 못할거야. 죄송스럽고 해서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병원엘 다녀가셨대요. 어제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고생했대요.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니 아마도 맹장이나 아닐까 걱정을 더 했는지도 몰라요.

“어제 **역구레**[역꾸레]가 뭇 전디게 아파서 병원일 가서 사진을 찍었넌디 뱃속이 변이 차서 그렇다. 물약을 닐병이나 줘서 타왔어.”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 속에서 ‘역구레’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는 저참이고, 그동안 안 잊고 있던 충청말 ‘역구레’에 신경이 더 가는 것은 자식으로서

참 거시기합니다.

아무튼 전화를 끊자마자 오랜만에 들어본 ‘역구레’를 메모합니다. 요즘은 이 말을 쓰는 분들이 참 적고요, 지금 대부분의 충청도 사람들은 ‘역구리(역꾸리)’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전의 어르신들은 ‘역구리’ 못잖게 ‘역구레’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좀 더 어원에 가깝게 ‘옆구레’라고 쓰는 분들도 많았지요.

다 아시겠지만 ‘역구레, 역구리’의 표준어는 ‘옆구리’예요. ‘옆구리’의 옛말은 ‘넙구레/녘구레>옆구레’예요. 앞이나 뒤가 아닌 측면을 가리키는 말인 ‘옆’에 ‘구레’라는 말이 붙어 만들어진 말이지요. ‘구레’는 ‘그러한 곳, 그러한 부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니 ‘옆구레’는 배의 옆쪽 부분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구레’가 붙은 말에는 배가 있는 부분을 뜻하는 말 ‘뺏구레(배꾸레)’가 또 있어요.

결국 충청말 ‘옆구레’는 예전에는 표준말이었는데, 서울말이 ‘옆구리’로 바뀌면서 사투리가 된 것이예요. 다시 말하면 ‘옆구레’는 ‘옆구리’의 옛말이고요. 충청말 ‘역구레, 역구리’는 ‘옆구레’가 말하기 편하도록 약간 변형된 것이지요.

충청말이나 서울말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누군 표준어라 대접받고 누군 사투리라 잊혀진다면 잊혀지는 누군 참 열 받겠지요. 그런 의미로 버려지는 누구 속상하지 않게 충청말 다시 써 볼까요?

“그눔이 냅다 **역구레**를 쥐박년 통이내 숨막혀 죽년 중 알었구먼.”
“나는 가만있년디 뇌가 들구 **역구리** 찢렸잖여. 그닝께 **역구리** 찢른 뇌
가 나 책임져.”

오곰다릴 쪽 피구 앉어라

“오곰다리를 걸다.”

“불편하게 앉덜 말구 오곰다릴 쪽 피구 앉어라.”

“워째 오곰다릴 절구 있다?”

“쭈구리구 담배를 엮었더니 오곰패기가 저리구 퍼지덜 않네.”

무릎 관절의 안쪽을 ‘오곰’이라고 해요.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로 다리가 꺾이면 접히는 안쪽이지요. 이 ‘오곰’을 우리 충청도에서는 ‘오곰’이라고 하는데요. 뭐 ‘오곰’이나 ‘오곰’이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투리 같지도 않고요. 특히 요즘은 표준말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오곰’이라 말해도 ‘오곰’으로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오곰’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꼭 ‘오곰’만이 아니라, ‘오’ 다음에 나오는 ‘으’는 모두 ‘오’로 발음

하는 것이 충청말의 특징이에요. 앞뒤의 소리를 같게 만들면 말하
기가 쉬워지고 모양도 맞춰지는데, 이런 것을 국어 문법에서는 모
음조화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표준말 ‘소끔’은 충청도에서 ‘소끔
이 되는 것과 같아요. ‘오그리다’는 ‘오고리다’라 말하고, ‘오므리
다’는 ‘오모리다’, ‘조그맣다’는 ‘쪼꼬맣다’, ‘동그랗다’는 ‘똥고랗
다’로 말하는 것도 다 그런 거지요.

다시 ‘오끔’으로 돌아가면, 사실 충청도에서는 ‘오끔이 저리다’
라는 표현보다는 ‘오끔다리가 저리다’나 ‘오끔다리가 땡긴다’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따져보면 ‘오끔’의 충청말은 ‘오끔’보다는 ‘오
끔다리’가 더 어울리지요. 특히 이 ‘오끔’을 훌하게 쓸 때는 ‘오끔
폐기, 오끔팽이’라 썼는데요. 이런 말들은 표준어에 없는 것들이랍
니다.

입설, 입설발매

“자가 얼마나 씨게 넘어졌길래 아랫**입설**이다 깨졌다?”

‘입설’이 ‘입술’을 뜻하는 충청말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쓰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도 흔히 쓰고 있는 말이니깐요. ‘입설’은 ‘입’에 입의 언저리를 뜻하는 ‘시울’이 붙어서 된 말인데요. 옛말 ‘입시울’이 줄어서 서울에서는 ‘입술’이 되고,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입설’이 되었어요. 입에는 위아래에 입술이 둘 있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래에 있는 입술은 ‘아랫입설[아래넙쌀]’, 위에 있는 입술은 ‘웃입설[운넙쌀]’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는 표준어에 없는 ‘입설발매’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입설’에 ‘물건을 내다 판다’는 뜻의 ‘발매(發賣)’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입술을 잘 놀

려 물건을 파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좋은 말솜씨를 지닌 장사꾼들의 물건이란 것이 그들의 유창한 말솜씨만큼 좋은 물건이 아닌 경우가 많았나 봐요. 말이 그럴 듯하여 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 영 개갈나지 않더라. 웬지 장사꾼의 말솜씨에 속은 듯한 기분. 그래서인지 이 '입설발매'는 원래의 뜻과는 달리 '상대에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그럴 듯하게 늘어놓는 말이나, 실속은 없이 입으로만 공치사 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 되었어요.

“자네 말 알아들었으께 **입설발매**랑 그만 혀.”

“술 한 잔두 못 사넌 놈이 **입설발매**룬 말술을 낸다닝께.”

하는 식이지요. 이 말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입설발림'이란 말도 있어요. 표준어로는 '입발림'인데요. '실속은 없이 말만 유창하게 늘어놓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입설발매'와 함께 많이 쓰였어요. 참 재미있고 고급스런 비유어예요.

말의 뿌리는 표준어와 같은데 지역별로 말소리가 달라진 것을 '사투리'라 하는데요, 표준어에 없는 지역말은 표준어로 정해져요. 고급스런 충청말 '입설발매'는 표준어에 없는 말이고, 요즘은 충청도에서도 '입술'이라 쓰니까 '입술발매'로 우리가 꾸준히 쓴다면 이 말들은 표준어가 되어 '국어사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콧중배기와 콧잔딩이

* ‘콧등’과 ‘코허리’의 충청말

“하두 승질나서니 **콧중배기**를 한 대 쥐박었어.”

“**콧등배기**에 웬 뽀두락지가 나서니 챙피혀 죽겼어.”

“승질난다구 **콧잔딩이**를 쥐 패서니, 글썸 가 콧뻘가 뿌러져 뻘졌다.”

서울 사람들은 ‘콧중배기’, ‘콧잔딩이’라 하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도에 사는 분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르신들 대화에 귀 기울이면 참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들 대화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콧중배기’의 본래말은 ‘콧등배기’예요. ‘코’에 ‘등배기’가 붙어서 된 말이고요, ‘등배기’는 ‘목에서 허리로 이어진 등이나, 높은 곳이 죽 이어진 산의 능선’을 뜻하는 충청말로 표준말은 ‘등성이’예요. 그러니까 ‘콧등배기’를 쉽게 풀이하면 ‘양 눈의 오목한 곳에

서 오뚝하게 솟은 코의 윗부분'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에 해당하는 표준말이 금방 떠오를 듯싶은데요. 그래요. '콧등배기'의 표준말은 '콧등'이에요.

이 '콧등배기'가 말하기 쉽도록 변한 것이 '콧중배기'예요. '콧등'을 말하려면 혀를 위 잇몸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움직여야 하는데, '콧중'은 혀를 덜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편해져요. 이런 것을 흔히 '구개음화'라 하고요. '김치'를 '짐치'라 한다든지, 불을 '컨다'를 불을 '쓴다'처럼 우리 지방에서는 흔히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콧등'을 나타내는 말로 '콧잔딩이'도 있어요. 이 말은 '코'에 '잔딩이'가 붙어서 된 말이지요. 이 말의 본래말은 '콧잔등이'고요. 이 '콧잔등(이)'이 표준말이기도 해요. '잔등이'는 '등줄기에서 허리 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하면 '콧날과 코뼈 사이에 살짝 들어간 부분'을 뜻하는 말이지요. 손을 코 위에 대보시면 코끝과 중간의 볼록한 코뼈 사이에 살짝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거기가 '콧잔등'이고요. 이 '콧잔등이'가 말하기 쉽게 이루어진 것이 '콧잔딩이'예요.

보통 충청 지방에서는 '콧잔딩이'나 '콧중배기'가 거의 구분 없이 '콧등'의 뜻으로 쓰여 왔는데요. 요즘은 서울 사람들도 '콧잔딩이'를 잘 쓰지 않아요. 대신 '코허리'를 많이 쓰는 탓에 이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요.

오여손잡이와 바른손잡이

* '오이다'와 '바르다'

예로부터 오른손과 오른발을 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세계적으로 왼손잡이가 10% 정도고, 90% 정도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왼손을 쓰는 사람이 적고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많다보니 인류 역사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흘러왔어요. 왼손잡이들은 잘못도 없이 늘 따돌림과 차별을 받은 것이지요.

1970년대에 크게 각광받던 어느 서부 영화를 보면 왼손잡이와는 악수를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지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왕)였던 람사스2세는 자신이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를 크게 괴롭혔다고 해요. 근래의 미 대통령이었던 클린턴도 왼손잡인데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른손으로 선서를 했다는군요.

물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지요. 예로부터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적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어요. 문

제는 그 아픔이 지금 시대에도 엄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왼손잡이는 불편을 감수하게 돼 있지요. 운전을 하려 해도 교통법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책이나 글을 읽으려 해도 글이 오른쪽으로 썩어져 있어 원하지 않게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며 읽어야 하지요. 특히 왼손잡이 어린 아이들은 지금도 적잖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 연습을 하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외’가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오이]로 소리났어요. 충청말 ‘오여’는 ‘왼쪽의’라는 뜻의 옛말이지요. 뜻은 ‘그르다, 잘 못되다, 바르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오여손잡이’는 ‘바르지 않은 손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 되지요. 반대로 오른손잡이는 ‘바른손잡이’라 했어요. ‘옳고 바른 손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니 이 말도 왼손잡이에 대한 그릇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말이지요.

이런 그릇된 말을 바로잡기 위해 요즘은 ‘바른손’이란 말을 ‘오른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른 것이나 옳은 것’이나 다 똑같지요. 다만 오른손이 ‘옳다’에서 온 말이란 것을 대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낫다 생각되고요. ‘오여’가 들어간 충청말 몇 개 적어봅니다.

- 왼손잡이용 낫 : **오여낫**을 구헐라넌디 파넌 디가 있으까?
- 왼발 : **오여발**버텨 내밀으라닝께 그러네.

- 왼새끼 : 난 오여손잡이라 **오여삿내끼**만 짜유.
- 왼팔 : 바른손잡이라 **오여팔**은 영 심이 읍유.
- 왼쪽 : 난 **오여편짜**이루 가든 되여.

제2부

동물과 식물

섬난 짐승 염생이

2015년이 밝았어요. 올해는 12띠 가운데 ‘염생이’의 해예요. 새 해가 되면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그보다 더 낮고 더 희망차기를 바라는데요. 그러한 마음과 소원들이 모여 띠에 여러 빛깔을 담아 의미를 더하기도 해요. 황금빛 돼지해가 되기도 하고, 흰 빛깔의 백마해가 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엔 푸른빛의 염생이해가 되었네요.

‘염생이’의 표준말은 ‘염소’지요. 우리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양띠(羊-)’라는 한자말은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염소띠고, 염생이띠라 불렀지요. ‘염소띠’가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쓰던 말이라면, ‘염생이띠’는 한강의 남쪽 지방에서 쓰던 말이에요.

‘염생이’에서 ‘염(驪)’은 ‘턱밑에 난 수염’을 뜻하는 말이고요.

‘생이’는 ‘짐승’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말 그대로 염생이는 ‘섬난 짐승’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까닭으로 옛 충청도어르신들은 종종 ‘짐생덜 가운데 질 으른은 염생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였어요.

요즘은 ‘염생이(염소)’를 한자말 ‘양(羊)’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면서 우리말 ‘염생이, 염소’라는 말이 점차 힘을 잃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염생이(염소)와 양(羊)은 같은 동물일까요? 네, 당연히 턱에 섬이 나 있으니 모두 염생이고요. 염생이와 양은 모두 소과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옛날 책을 보면 ‘검은빛의 염생이(염소)는羔(고)’라 하였고, ‘흰빛의 염생이는 羊(양)’이라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염생이(염소)지만 한자로는 구분해 썼네요. 검은빛 염생이는 다른 말로 ‘산양(山羊), 고력(靱羆, 산양고, 산양력)’이라고 했대요.

이렇게 말의 기원을 따져가다 보면 아주 먼 옛날에는 야생의 염생이(산양)를 잡아다가 집에서 길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선조들은 2천 년 전부터 산에 사는 검은 염생이를 잡아다가 집에서 길렀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흰 염생이(양)는 삼국시대 초췌 중국에서 들여왔을 것이라고 하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염생이(염소)라고 하면 흔히 검은 염생이를 말하고, 흰 염생이는 ‘양’이라 해서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까닭도 우리의 고유종 ‘흑염소(黑羔)’와 외래종 ‘백양(白羊)’을 구분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흑염소든 백양이든 모두 '염생이'가 분명하고요.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라 하는데, 사실 푸른 염생이(청양)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예전 중국에는 있었다는군요. 중국 송나라 때의 의서(醫書)에 의하면 '염생이는 사람의 몸을 보하는 약이 되는 동물인데, 여러 종류의 염생이 가운데 검푸른 빛의 염생이(청양)가 특히 약효가 높았다.'고 해요.

올해는 운세가 좋다는 청양의 해, 푸른 염생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생각합니다.

매미와 오래오래

*가축을 부르는 소리

예전에는 집집마다 짐승을 길렀어요.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우리 충청도에서는 '집짐성'이라 했어요. 개나 닭, 돼지, 소 따위는 아주 소중한 '집짐성'이었어요. 개는 영리하여 집을 지켜 주고 주인을 잘 따라서 늘 친근한 짐승이었어요. 닭은 달걀과 고기를 공급해주는 짐승이었어요. 소나 돼지는 집안 살림을 불러주는 보물이었지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집짐승들을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이 집짐승들을 부르는 소리가 여럿 있었지요. 닭을 부를 때는 '꼬꼬 꼬꼬꼬, 구구 구구구'를 많이 썼지요. 모이를 들고 닭장에 가서 가까이 있는 닭을 부를 때는 주로 '꼬꼬'를 썼고요, 멀리 있는 여러 닭을 부를 때는 모이를 뿌리며 큰 소리로 '구구 구구구'를 외쳤어요. 그러면 닭들이 알아듣고 달려

와 모이를 쪼아댔지요. 개를 부를 때는 주로 혀를 차며 ‘쪽쪽 쪽쪽 쪽’ 하고 불렀어요. 1960대 이후에는 영어식으로 개를 부르는 소리가 유행하여 ‘워리’나 ‘도그’라 부르기도 했고, 아이들은 ‘해피’라 이름 지어 부르기도 했지요. 돼지를 부를 때는 ‘오래오래’를 가장 많이 썼어요. 더러는 밥을 주며 ‘꿀꿀꿀’ 하고 부르기도 했지요.

이렇게 짐짐승을 부르는 소리는 전국적으로 비슷했는데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어린 소를 부를 때는 ‘매미, 매미야’ 하고 불렀어요. 충청도 전역에서 ‘매미’ 하면서 송아지를 부른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나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이 말이 쓰였을 법한데 여러 곳을 뒤져보아도 제대로 기록된 것을 찾을 수가 없군요.

예전에 이 짐짐승들을 부르던 소리들, 혹시 그새 잊으신 분들은 없겠지요? 가까이에 있는 짐승들을 살펴보고 예전처럼 정겹게 불러보세요.

“모시를 들구 닥을 불를 적인 ‘꼬꼬꼬’ 허구, 도아지를 불를 적인 ‘오래 오래’ 허잖어. 그거차람 송아치를 불를 적인 ‘매미야.’ 라구 허녕 거. ‘멤, 멤, 멤, 매미야. 일루 와라.’ 이렇기 불르지. 촌인 못 알아 듣넌디 몇 번 불르다 보문 송아치가 알아 들어. 구수이다 쇠물을 부맨서니 ‘매미, 매미야’ 허문 알아듣구 떠와서니 먹는 거.”

참새와 허송애비

나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송애비**
너는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날 찾아온 날아온 널
보내야만 해야 할 슬픈 나의 운명
휘이휘이가거라 산너머 멀리 멀리
보내는 나의 심정 내 님은 아시겠지.

석양에 노을이 물들고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노란 참새는 날 찾아와 주겠지.
휘이휘이가거라 산너머 멀리 멀리
보내는 나의 심정 내 님은 아시겠지.
내 님은 아시겠지.

아버지는 긴 막대기 두 개를 잘라다가 열 십 자로 묶었다. 베토 매(벧단)에서 짚단을 몇 줌 추려내어 몸통을 만들었다. 헌 윗도리 한 개 입히고 머리 위에 망가진 밀짚모자를 씌우는 간단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허송애비는 여름부터 겨울 모진 바람에 쓰러질 때까지 수수밭둑이나 콩밭둑을 지키고 서 있었다.

내 어릴 적 동네 어른들은 그것을 허송애비라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허수아비라 말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었다. 나도 학교와 아이들을 따라 아버지가 일러주는 허송애비가 아닌 허수아비라 부르며 컸다.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고 오랫동안 허송애비를 잊고 살았다. 그러니까 허송애비가 허수아비란 말로 변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허송애비라는 말을 들을 길이 거의 없다.

나는 지금 ‘참새와 허송애비’라는 노래를 듣고 있다. 노랫말처럼 사랑을 잃고 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허송애비의 외로움은 아니지만, 노래를 들으며 나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허송애비란 그리움에 귀 기울이고 있다. 부르는 이는 허수아비라 하는데 내 귀에는 자꾸 허송애비로 들린다.

위의 노래는 1982년 제6회 MBC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희 씨의 ‘참새와 허수아비’다. 늦가을이 깊어가는 시간,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며 허송애비가 되어간다. 노래를 좋아하는 40-50대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들으며 애잔한 추억의 허송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참새를 쫓아내야만 하는 허송애

비의 운명, 그리고 다시 참새를 기다리는 슬픔처럼 스스로 쫓아내
버린 허송애비라는 말이 자꾸만 그리워 나는 이 노래를 되풀이해
듣고 있다.

까마귀와 까그매

‘까마귀’의 충청말은 ‘까그매’예요. 세상이 다 도시로 변하고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충청도도 이미 자연과 함께할 수 없는 곳이 되었나 봐요. 산과 들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서 관심도 멀어지고 그 새들을 가리키는 충청말들도 거의 사라졌지요.

의무 교육이 없고 산업화가 밀려오기 전인 1960년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이라면 ‘까그매’를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들이나 산 주변에선 으레 만나던 ‘까그매’, 정월보름이면 ‘까그매밥’을 떠서 들과 밭에 뿌리던 시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까그매가 모두 까마귀로 변신을 하고, 변신한 까마귀도 사람을 떠났는지 요즘은 잘 보이지 않네요.

“이 늀이 **까그매** 괴길 처먹었나 왜 그렇기 깜막깜막허능겨?”

“얼굴이 그게 뭐여? **까그매**가 닮은 성님 허겼구먼.”

“벽이다 똥칠허녕 거 보닝께, 인전 그 낭반두 **까그매**밥 될 날이 멀들 앞은겨.”

표준말 ‘까마귀’와 충청말 ‘까그매’는 소리가 닮아있는 듯하지만 말의 뿌리는 전혀 달라요. 표준말 ‘까마귀’의 옛말은 ‘가마괴’예요. ‘까맣다’는 뜻을 가진 옛말 ‘감다’에 ‘그러한 동물’을 뜻하는 ‘아괴’란 접사가 붙은 말이지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검은 빛깔을 지닌 새’를 뜻하는 말이고요. ‘감(검)+아괴’의 ‘가마괴’가 현대말 ‘까마귀’로 변한 것이지요. 이에 반해 충청말 ‘까그매’는 소리를 나타내는 ‘각’에 새 이름인 ‘매’가 붙어 된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매와는 달리, 까옥까옥 소리를 내는 매’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요.

충청의 어르신들 가운데는 까마귀를 ‘까마구, 까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 까마귀의 충청말이 ‘까마구, 까마기’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까마구, 까마기’는 표준말이 충청도에 전파되는 가운데 변한 말로 볼 수 있어요.

잠시 시간을 쪼개 정겨운 고향의 산과 들을 돌아보세요. 지금도 산과 들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들이 살아 뛰놀고, 어딘가에서 서울의 까마귀가 아닌 ‘고향의 까그매’가 날아오를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까그매!’ 썩 색다르고 정겹지 않나요?

곰쥐와 곰지

‘곰쥐’는 짙은 갈색의 털을 지닌, 집쥐보다 몸집이 작지만 귀가 크고 꼬리가 긴 췌과의 한 종이에요. 주로 사람들이 사는 집 근처에 사는데 예전부터 집쥐에 비해 수가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양식 주택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수가 더 줄어 멸종될 지경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요즘은 보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군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예전부터 ‘쥐’의 ‘늪’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라고 했어요. 대체로 충청 지방에는 네 가지 종류의 쥐가 사는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시골집 안팎에 살며 중간 크기인 ‘집지(집쥐)’고요, 하수구에 주로 살며 몸집이 가장 큰 ‘시국지(시국쥐)’, 산간이나 들판에 살며 엄지손가락만한 ‘새양지(새쥐)’, 시골집 안팎에 살며 아주 보기 힘든 ‘곰지(곰쥐)’가 그것이에요.

이 가운데 ‘시국지’와 ‘곰지’는 우리 충청도에서 ‘쥐’를 뜻하는 말보다는 비유어로 많이 쓰여요. ‘시국지’는 ‘뺨질거리며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나타내고요. ‘곰지’는 아래 문장에서 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무엇인가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써왔어요.

세상이 달라지니 곰지도 자취를 감춰가고 말의 뜻도 달라지는군요. 우리 충청말은 비유적 표현과 간접적, 우회적 표현이 발달한 고급스런 언어인데요. ‘곰지’도 재미있는 비유적 언어예요. 이런 좋은 말들이 잘 가꿔져서 국어가 더 윤택해지길 생각해 봐요. 아래 문장을 보시면서 곰지를 기억해 보세요.

“곰지가 달래 곰지겼어? 사람덜 눈이 안 띄넌 지닝께 곰지지.”

“저 곰지가 뒤란이서 또 뵈을 허구 있다?”

“저눔은 똑 곰지갈어서 뭘 히두 소리 하나 안내유.”

새양

* '생강'의 충청말.

저는 '생강'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맵잖아요. 연하게 끓인 생강차는 맛이 깔끔해서 더러 마시긴 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냄새도 싫었어요. 그 생강의 충청말이 '새양'이란 사실을 국어사전을 뒤적이다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새양'이라고 쓰는 분들을 보지 못해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아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오래 생각했어요.

지난 한식 때에는 멀리 떨어져 사시던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모여 합장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산소를 손보았어요. 산소는 예산 대술의 장군맥이라는 산등성이에 있는데, 묵은 폐를 벗기고 새 폐로 예쁘게 입혔지요. 저는 거기서 예산말을 잘 쓰시는 셋째아버지와 셋째어머니, 당진말을 잘 쓰시는 넷째어머니에게 '새양'이란 말을 알고 있느냐고 여쭙었어요.

여쭙기 전에 예산 지방에서는 새양이라 쓰는 분이 거의 없었지만, 서산이나 당진에서는 '새양'이란 말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다가 고향말을 아끼시는 넷째어머니는 '새양'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셋째아버지 : 새양? 아녀. 예산서는 새양이라구 안했어. 다 생강이라구 했지.

넷째어머니 : 잉, 새양이라고 하지. 난 지방두 새양이라구 하네킨디.

셋째아버지 : 이전인 새양이라구 했는지 몰러두 우덜 클 적인 다 생강이라구 했네킨디?

셋째어머니 : 나두 새양이라군 못 들어봤어.

넷째어머니 : 우덜 동네선 새양이라고 했어. 지금도 서산서는 많이 쓴다던디.

아마도 예산 지역에서는 '새양'이 일찍 사라지고, 생강 고지인 서산 지역은 아무래도 예전 말인 '새양'을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듯싶군요.

중세 시대인 600년 전 말은 '칭강'이었는데요. 이 말은 근대에 이르러 대부분 '새양'으로 변해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새양'이라 썼고요. 해방 이후 나라에서는 표준어를 사정하면서 '생강'과 '새양'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어요. 당연히 '새양'은 국어사전에 오른 표준어예요. 그런데 요즘은 서울에서 흔히 쓰던

‘생강’이 널리 퍼지면서 ‘새양, 새양’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양지와 생쥐

* ‘생강처럼, 몽푹하고 작은 쥐’

생쥐의 충청말은 ‘새양지’예요. ‘생강’의 옛말은 ‘새양’인데요. 충청과 전라 지방에서는 ‘새양’을 ‘새양’이라고 했어요. 이 ‘새양’에 ‘쥐’를 뜻하는 충청말 ‘지’가 붙어서 ‘새양지’가 되었지요. 말 그대로 쥐는 쥐인데 ‘생강처럼 몸통이 몽푹하고 작은 쥐’라는 뜻이에요.

서울지방에서는 ‘새양쥐’라고 써오다가 요즘은 모두들 ‘생쥐 [생:지]’라고 하는데요. 금방 알 수 있듯이 이는 새양쥐가 줄어 된 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쥐를 선택해 쓰면서 새양쥐는 사투리가 되고 생쥐는 표준어가 되었어요.

‘쥐’의 충청말은 ‘지’지요. ‘쥐’나 ‘지’나 발음이 서로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서울에서는 ‘귀’를 한 소리로 발음하는데, 충청

도에서는 [우이]라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요. ‘윗똥네’를 예로 들면, 서울말의 발음은 [윗똥네]인데 충청도에서는 [우잇똥네]가 돼요. 그러니까 ‘쥐’도 충청도식으로 발음하면 [주이]가 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누구도 [쥐]를 [주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히 [지]라고 하지요.

그럼 [쥐]와 [지]의 발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ㄱ’을 한 소리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만, 서울 사람들은 ‘ㄱ’과 ‘ㅇ’을 다른 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금방 구분해요. 쉽게 설명하면 [ㄱ]은 오리주둥이처럼 입술을 쭉 내밀어 [ㄱ]자리에 놓은 다음에 [ㅣ]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말 [쥐]는 입술을 쭉 내밀고 내는 소리이고, 충청말 [지]는 입술을 내밀지 않고 내는 소리지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표준말 [생:쥐]는 입술이 튀어나와야 하고요. 충청말 [새양지]나 [생:지]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내밀지 않는답니다.

살쥬이와 살가지

“뚜르르.”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잠결에 전화기를 들으니, 예 산군 대술에 사는 친한 동생 목소리가 들린다.

“성님, 동영상 봤유?”

“어젯밤이 자네가 보내준 거? 흐릿허니 뭘 고양이같은 게 나오 던디 그게 뭐라?”

“아. 그게 살쥬이예요. 사악~.”

“그게 고양이가 아니구 살쥬이였어?”

“예, 꼬추밭이서 상헌이허구 용깁이 형이 잡은 규. 군 환경과이 다 연락을 했던디 일 있다구 아직 안 오네유.”

산에서 내려온 아기 살쥬이가 고라니를 막으려고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린 모양이었다. 주위에는 다른 아기 살췍이와 어미 살췍이가 그물에 걸린 살췍이 곁을 맴돌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 보기 드문 살췍이다 보니 그물에 걸린 것을 잡아다 보호하며 군에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대술을 떠나 예산읍에 살고 있는 내게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고 전화까지 해주는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나는

“살췍이, 살췍이, 샷…, 충청도 말로 이게 뭐더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그리곤 곧 살췍이의 충청말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살가지’였다. 예전에는 닭장에 침입해 닭을 죽이거나 잡아가기도 했다는 ‘살가지’는 내 어릴 적 동네에서 흔히 쓰던 말이었다. ‘살췍이’라고도 했지만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대개 ‘살가지’라고 했다.

‘살췍이’의 옛말은 ‘샷’이다. 이 ‘샷’에 ‘쟁이(고양이)’가 붙은 것이 ‘살췍이’다. ‘샷’은 표범이나 범과 함께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 ‘야생의 고양이’라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오랜 옛날 늑대나 들개를 잡아다 기르던 것이 개가 된 것처럼, 샷을 길들여 생긴 것이 지금의 고양이니까. 크기도 집고양이만 하고, 다만 야성이 강해 작은 몸집에 비해 사나운 짐승이다.

‘살가지’는 ‘샷’에 ‘아지’가 붙은 말이다. ‘아지’는 사람이나 짐승의 어린 것을 뜻하는 말이다. ‘아지’는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도야지/돼지(‘돌’의 어린 것)처럼 짐승이름 뒤에 붙어 ‘어린 짐승’을 나타낸다. 어린 사람이나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아기, 애기, 아가,

아기씨, 애기씨, 아씨, 아가씨' 따위도 모두 '아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살가지'는 '삶+아지'이고, 어린 삶을 나타내던 말이 '돼지'처럼 '삶'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우리가 우리말을 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챙겨주지 않는다. 예전 충청도에서는 '삶'을 '살쟁이, 살가지'라고 썼는데, 현대에 이르러 우리들은 '살쟁이'를 선택해 쓰며 '살가지'를 버렸다. '형태가 다른 말이라도 표준어법에 맞는 것은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사정규칙에 따라 '살쟁이'는 '삶'과 함께 표준어가 되었다. 그러나 충청말 '살가지'는 우리들이 쓰지 않음으로써, 표준어법에 맞는 말 이면서도 표준어가 되지 못하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다.

배얌(1)

*독이 있는 ‘뱀’의 충청말

“그 왜 장복실이 **배얌** 잡던 땅꾼 있잖어. 그 사람 오늘 아침이 떼웃 입으러 산이 갔다. 어제니 말여. 지는 **배얌**헌티 물려두 꼬떡었다구 동네 사람덜 죄 봐놓구 큰소리치매 독사덜을 주물렀다넌디, 아침이 가보닝께 **배얌** 자루 옆이서 **배얌**차람 웅쿠리구 송장이 되더라.”

‘뱀’을 충청 지방에서는 ‘배얌’이라고 해요. 이 ‘배얌’을 표준말과 비슷하게 바꿔 말하면 ‘배얌, 배엠’이 되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사실 ‘뱀’의 예전 말이 ‘배얌’이에요. 몇 백 년 전에는 서울지방에서도 ‘배얌’이라고 했고요. 이 ‘배얌(비얌)’이 ‘배얌>배엠’을 거쳐 지금의 ‘뱀’이 된 것이에요. 뭐, 서울말이나 표준말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충청말 ‘배얌’이 예전의 우리말을 잘 간직해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배암’의 갈래는 수십 종이라 하는데요. 대체로 독이 있는 뱀과 독이 없는 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독이 있는 뱀은 ‘독사’라고 하지요. 독사의 갈래는 대개 셋으로 구분해요. 일반적으로 진한 갈색의 몸통에 검은 무늬가 섞여 있는 것은 모두 독사예요. 독사는 밝은 유채색(有彩色)을 띄지 않고 검은 빛깔이나 검은 무늬를 몸통에 지니며, 머리가 크면서 모가 난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뱀은 모두 독사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런 독사 가운데 드물게 몸빛이 붉거나 누런 기운을 띄는 독사가 있는데요. 이는 ‘불독사’예요. ‘붉다+독사’니까 몸빛이 붉은 독사라는 말이지요. 불독사는 개체 수가 적어 눈에 자주 띄지는 않지만, 직접 보면 몸집이 아주 작고 몸과 배 쪽이 밝은 빛이어서 다른 독사와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건드리면 꼬리 끝을 들고 흔드는데 꼬리색이 투명한 노란색이에요. 맹독이 있으니 갈색에 붉거나 누런 기운이 있는 작은 배암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나머지 하나는 몸집이 일반 독사에 비해 훨씬 큰 ‘살무사(殺母蛇)’인데요. 충청 지방에는 두 종류의 살무사가 살고 있어요. 하나는 몸빛이 회색빛을 포함한 연한 갈색에 얼룩무늬가 있고 검게 빛나는 화살촉 무늬가 머리에 여럿 나 있는 ‘살무사’로, ‘북살무사(北殺母蛇)’라는 종이에요. 다른 하나는 ‘까치독사’예요. 까치독사는 진한 갈색에 검은 얼룩무늬가 온 몸에 박혀 있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얼룩얼룩 검은 얼룩무늬가 있는 배암을 보면 까치독사라 생각하면 돼요.

아하, 잠깐만요. 까치독사와 비슷한데, 검은 얼룩무늬가 아닌 검은 가로줄무늬가 온 몸을 두르고 있는 ‘칠점사’라는 독사가 있어요. 덩치와 생김새가 까치독사와 비슷해서 독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까치독사라 부르는데, 사실은 출혈독을 쓰는 까치독사와 달리 신경독을 쓰는 독사예요. 칠점사는 일반 독사로 분류되지만 그 독은 까치독사보다 훨씬 강하다고 해요. ‘까치독사’는 흔히 ‘까치살모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옆집이 **까치독사**를 잡아서 달여 먹었다. 얼룩덜룩한 **까치독사**는 몸집이 커서니 한 마리만 잡어두고 먹을 수 있다너먼.”

배얌(2)

*독이 없는 ‘뱀’의 충청말

“짜구때낭구 옆일 지나넌디 말여.뭔가가 목이 척 걸리더라구. 슴뚝히 서 쳐다보닝께 **땅배얌**이 낭구가짐이에 올라가 있더면. 월마나 놀랬넌 지 물러.”

“흐흐 **땅배얌**이 낭구는 잘 올라가지. 낭구타기 구신이라닝께.”

독이 없는 배얌의 갈래는 아주 많은데요. 충청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얌만 표준어와 비교하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

먼저 ‘구렁이’가 있지요. 표준말은 ‘구렁이’고요. 요즘은 표준말의 영향으로 ‘구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일 흔한 것이 시골집 주변에서 쥐를 잡아먹으며 사는 붉은 빛의 ‘능구렁이(능구렁이)’가 있고요. 배얌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능구렁이에 비해 두 세 배가 넘는 ‘황구렁이(황구렁이)’와 검은 빛깔의 ‘떡구렁이(떡구

렁이)'가 있는데요. 황구렁이나 먹구렁이는 귀해서 구경하기 힘들어요.

다음은 '울미기'가 있지요. 달리 '울메기'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표준말은 '울모기', 또는 '유혈목이'예요. '울미기'는 다른 지방에서는 '화사(꽃뱀)'라 부르기도 하고, '늘메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산이나 들에 다니다 보면 푸른색(綠色)을 띠는 기다란 배얌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푸른 뱀이 '울미기'예요. 울미기는 생김새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푸른 몸빛에 머리에서 등 쪽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배얌은 꽃처럼 붉고 예쁘다 해서 화사(꽃뱀)라 불리는 종이고요. 온 몸이 푸른색으로만 되어 있는 종도 있어요. '울미기'는 독이 있는 이빨이 있긴 하지만, 목 안쪽으로 퇴화하여 사람을 보면 피하고 몸통을 잡아도 입만 벌리지 여간해서는 물지 않아요.

이 밖에 '땅배얌'과 '물배얌', '실배얌'이 충청 지방에 살고 있어요. '땅배얌'은 나무타기를 잘하는 뱀으로 새집을 곧잘 털어먹기로 유명하고요. 몸빛이 회갈색으로, 흔히 보이는 땅배얌은 몸길이가 1미터 내외로 아주 길어요. 독은 없지만 손을 대면 문답니다. 흔히 '석화사(石花蛇)'라고도 불리고요, 표준말로는 '누룩뱀'이에요. '물배얌'은 물속이나 물가에 사는 뱀이에요. 몸길이가 땅배얌보다 많이 짧지만 겉모습이 아주 비슷해서 얼핏 보아 구분이 쉽지 않아요. 갈색의 긴 뱀이 지나갈 때, 궁금하면 막대기로 몸을 굴려 보세요. 배쪽의 빛깔이 희거나 누런색이면 '땅배얌', 붉은 색이면 '물배얌'이에요. '물배얌'의 표준말은 '무자치', 또는 '물뱀'인데요, 되도

록 만지지는 마세요. '물배암'은 자기 몸을 건드리면 막 덩벼들어 물어요. 물기를 가장 잘하는 배암이에요. 독은 없지만 물리면 피나고 아프니까 손으로 건드리진 마세요. '실배암'은 실처럼 몸이 가늘고 아주 작은 뱀이에요. 표준말은 '실뱀'이구요. 개체 수도 적고 몸집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띵답니다.

“물배암 개지구는 장냥허덜 말어. 물배암은 독은 읍어두 근덜기만 허든 물어댄다닝께.”

“근디, 물배암헌티 물리든 오티기 된대유?”

“오티기 되긴 뭐가 오티기 더. 기냥 피나구 아픈 거지.”

개구락지와 개구락지

* '개구리'와 '개구리송'

엣그제 퇴근을 하는 길에 회원 모집 광고지를 들고 신례원엘 갔어요. 여름으로 향하는 밤공기가 참 시원해서 이곳저곳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듯 돌아다녔어요. '신례원'하면 으레 여러 동이 서있는 현대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동안 그저 스쳐지나기만 했던 성문아파트, 풍진아파트, 청천아파트, 아름채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청천아파트 입구를 찾아갔는데 들어가 보니 입구 쪽이 아니라 뒤편 주차장이 나오는군요. 주차장에는 차 몇 대가 가지런히 쉬고 있고, 그 뒤로 논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온 세상 개구리들이 왁자하게 나를 반기네요. 밤하늘이 떠나갈 듯한 개구리소리, 갑자기 세상이 시끄러워진 듯도 하고 반갑기도 하네요.

문득 개구리소리가 한 번 들리기 시작하니 신례원이 온통 개구

리소리 천지군요. 그 소리가 반가워 현대아파트 뒤편의 놀이터에서 나는 한참 동안 개구리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개구리’의 충청말은 ‘깨구락지’예요. 양서류에서 개구리만큼 우리와 친근한 동물은 드물지요. 올챙이와 개구리를 모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깨구락지’란 충청말을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크는 아이들도 ‘깨구락지’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개구락지’라 말하는 어른들도 더러 있는데요. 대개 충청도에서는 ‘개구락지’보다는 발음이 강한 ‘깨구락지’라고 해요. 그러니 ‘개구락지’보다는 ‘깨구락지’를 충청말이라 해야 할 듯하네요.

사실 ‘개구리’를 가리키는 각 지방말은 ‘까구리, 깨구랭이, 깨구락데기, 갈개비, 메구락지, 떡재기, 떡장구’ 등 아주 많은데요. ‘개구락지’는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주로 사용한 말이고요. ‘깨구락지’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많이 써오던 방언이에요.

신레원 현대아파트와 성문아파트 사이의 논에서 쉽 없이 외쳐대는 합창, 그 소리가 처음에는 개구리울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어릴 적 ‘깨구락지의 노래’로 변하네요.

아래에 ‘개구리송’ 가사를 적어 볼게요. 어릴 적 누구나 즐겨 불렀던 노래, 저널 들판 어디선가 개구리들의 합창소리가 있거든 개구리들과 함께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불러 보세요.

개굴개굴 개구리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
듣는 사람 없어도 목이 닳도록 ♪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
개굴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다 ♪

〈어른들의 추억, 개구리 동요〉

개구리 소년(뽀뽀밤) 개구리 소년(뽀뽀밤) ♪
내가 올면 무지개 연못에 ♪
비가 온단다 ♪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
울지 말고 일어나(뽀뽀밤) ♪
피리를 불어라 ♪
빨릴리 개굴개굴 빨릴릴리 ♪
빨릴리 개굴개굴 빨릴릴리 ♪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

〈'개구리 왕눈이' 만화영화 주제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
꼬물꼬물 헤엄치다 ♪
뒷다리가 쑥 ♪

앞다리가 쪽 ♪
팔딱팔딱 개구리 댕네 ♪
꼬물꼬물 꼬물꼬물 ♪
꼬물꼬물 올챙이가 ♪
뒷다리가 쪽 ♪
앞다리가 쪽 ♪
팔딱팔딱 개구리 댕네 ♪

〈귀여운 올챙이 노래〉

미꾸리와 미꾸락지

* ‘미꾸라지’의 충청말

앞 장에 개구리의 충청말 ‘깨구락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말은 ‘깨굴(소리)’에 ‘악지(접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악지(작은 생물체나 작은 사물을 나타내는 말)’라는 붙었으니, ‘깨굴깨굴 하고 소리를 내는 작은 동물’을 뜻하는 것이 ‘깨구락지’예요.

충청도 말에는 접사 ‘악지’가 붙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에는 ‘깨구락지, 구구락지(구구리.구굴무지-표준말은 ‘동사리’), 미꾸락지, 검부락지, 뽕드락지(꼬드락지-표준말은 ‘뽕루지’), 지푸락지’ 따위가 있어요.

이 가운데 ‘미꾸라지’를 우리 충청도에서는 ‘미꾸리’, 또는 ‘미꾸락지’라 해요. ‘미꾸리’라 쓰는 지방은 주로 충청, 경기도 지방이구요. ‘미꾸락지’라 쓰는 지방은 ‘강원도, 전라도’ 지방이에요. 충

청도와 가까운 지방이니 말이 서로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 사투리가 섞여 쓰이는 것이지요. 이 둘 가운데 ‘미꾸리’가 ‘미꾸락지’보다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미꾸락지’보다는 ‘미꾸리’가 더 충청말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미꾸리, 미꾸락지’도 ‘깨굴깨굴’하고 소리 내는 동물인 ‘깨구락지’처럼 ‘미끌미끌 미끄러운 동물’이라는 재미있는 어원을 가진 말일까요? 우리 옛말을 살펴보니 딱 그렇네요.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밋그락지’가 나와요. ‘밋글+악지’니까 ‘미끌미끌한 동물’이란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미꾸리’도 ‘미끌+이’의 모양이네요.

어렸을 적 논두렁 아래의 물꼬를 따라 미꾸리(미꾸락지)를 잡던 기억, 한 나절 뚝병의 물을 뿜어내고 진흙탕 속을 헤매던 기억, 맨 손으로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끝없이 빠져나가던 알미운 미꾸리(미꾸락지)의 모습이 아련해요. 그래서 손으로 잡기를 포기하고 잡자마자 물꼬(뚝병)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흙을 잔뜩 묻힌 손으로 겨우겨우 잡아 올리던 기억들이 그림기도 하네요.

우리 충청말을 찾아가다 보면 추억이 있고, 스러져가는 모습들이 정겹게 떠올라요. 소중한 우리 기억처럼 우리 충청말도 정겹게 오래도록 살아있길 생각해 봅니다.

진드기와 진디

충남 홍성에 이어 부여에서도 일명 '살인 진드기'에 물린 증상을 호소하는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23일 충남도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A(77·여)씨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입원 2~3일 전 야외에서 밭일을 하다가 벌레에 물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여군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B(57·여)씨도 SFTS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충남도 보건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배에 벌레 물린 상처가 있는 B씨의 주치의가 SFTS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의심환자로 신고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13년 5월 23일자, 연합뉴스기사 발췌〉

요즘 살인진드기 뉴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제주도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우리 충남 지역에서 SFTS 의심 환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진드기’라는 벌레가
어르신들에게는 낯설다. 우리 충청 지방에는 ‘진드기’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찐디기가 뭐라? 진딧물인가? 땀물 애긴 거?”

워낙 마스크에서 떠들어대니 이젠 어르신들도 ‘아, 저 버러지구
먼.’ 하고 아시지만, 사실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소참진드기’
가 생소하기만 하다.

‘진드기’는 거미류 진드깃과에 속한 절지동물이다. 진드기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일부의 종은 동물의 피를 빨아 먹으며 기생하
거나 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진드기의 충청말은 ‘진
디’다. 아마 어르신들은 진드기보단 ‘진디’를 더 잘 알 것이다.

“소 배이 다닥다닥 붙은 저 **진디** 점 봐. 소 등 점 긁어주구 잘 강겨주야
지. 저게 뭐라?”

예전 시골집의 외양간엔 늘 소가 있었다. 소는 농사일을 돕는 큰
일꾼이요, 집안 살림을 불러주는 보물이었다. 여름이면 산과 들에
서 꼴을 베어 소를 먹이는 일이 큰 일과였고, 소는 꼴을 먹으며 살
이 썩었다. 그렇지만 이 꼴 덕분에 소들은 진디에 피를 빨렸다. 산
과 들의 꼴에 달려온 진디가 소의 배나 엉덩이 따위에 달라붙기 때
문이었다. 그때마다 예전의 농부들은 진디를 떼어냈고, 그 진디가
낯설지 않은 벌레였다. 그러나 지금 농가에선 소를 기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진디를 보는 일도 드물고, 진디라는 이름도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불쑥 ‘살인진드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진디!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달려가고 들판엔 농번기가 한창이다. 논과 밭에서 바쁜 일손을 놀리는 농부들에게는 달려들지 않는, 살인진드기 아닌 옛 ‘진디’를 소망한다.

뜨물과 진딧물

“무궁화이 **뜨물**이 싸까말게 찼어.”

“무궁화야 약 치덜 았으은 맨날 **뜨물** 공장인디 뭘 그걸 보구 놀랜다?”

“열무다가 **뜸물**약 친 제 올라 안 뵈이니께 시방 뜯어먹으은 안 되야.”

표준어 ‘진딧물’을 나타내는 충청말은 ‘뜨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뜨물’ 못지않게 ‘뜯물’이나 ‘뜸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표준말을 배워 ‘진딧물’이라 많이 쓰지만, 4-50대 이상의 연배를 지닌 분들은 대부분 ‘뜸물/뜯물’이나 ‘뜨물’이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4-50대 분들은 ‘뜸물/뜯물’을 많이 쓰는데, 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

면 ‘뜨물’을 더 많이 쓴다.

이것을 보면 오래 전에 주로 쓰인 충청말이 ‘뜨물’이고, ‘뜨’와 ‘물’ 사이에 사잇소리 ‘시’가 들어가 ‘뜻물(뜨물/뜸물)’이 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딧물’과 ‘뜨물/뜸물’은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일까?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지만, 다른 지역 방언들을 살펴보면 같은 말에서 생겨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진두미/뒤미/뚬/뜸(함경도말), 진디/진드기(평안도말), 진딧물(경기북부말), 드물/뜨물/뜸물/뜸물/뜸물(경기남부·충청·전라·경상·강원도말), 디물/띠물(경상도말)’ 따위의 지역말의 공통점을 꼽아보면 ‘드/뜨/디/띠’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말(서울말)인 ‘진딧물’의 옛말은 ‘진디’였는데, 여기서도 ‘디’가 들어 있다.

결국, 천 년쯤 전의 옛말은 아마도 ‘드’나 ‘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옛 서울말 ‘진디’는 ‘디’ 앞에 ‘진’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진디’가 된 것이고, 경기 남부와 충청말에는 ‘드’ 뒤에 ‘물’이 붙어 ‘드물→뜨물>뜻물(뜨물/뜸물)’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잔디의 충청말은?

* 띄, 췌, 뿔장, 잔대미

‘충청남도예산말사전 시리즈’가 계속 발간될 예정이에요. 이미 나온 1-2권처럼 450쪽 내외의 책이 되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충청남도예산말사전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잔디’예요. 어렸을 적 어른들이 ‘잔디’를 나타내는 우리 방언을 많이 썼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잔디’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초상이 났이니 띄를 떠야겠다.’느니 ‘모이(墓)를 쓸라믄 뿔장이 필요허다.’느니 할 때의 ‘띄’나 ‘뿔장’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충청말로 ‘잔디’를 말했는데, 나이를 먹고 오래 쓰지 않는 동안 많이 듣고 많이 썼던 내 말을 까먹었어요.

아쉽게도 나는 지난번에 출간한 사전에 잔디의 충청말을 실지 못했어요. 메모장에 기록해 두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

게든 찾아 이번에 실어보고 싶었는데요. 우연히 어제, 어렸을 때 내가 쓰던 ‘잔디’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5월 5일날, 장복실 아님 집에서 대술 으른덜 잔치가 있었어. 그집 딸래미가 김서울이라는 가순디, 김서울이라구 쓴 촌을 옷에 붙이구 두어 시간 노랴 볼르매 으른덜을 대접혔어. 새루 진 집이 참 좋은디, 되게 넓은 마당이 ‘잔대미’ 하나 읍이 깨갓허더라구.”

어젠 어버이날이었어요. 천안에 사는 누나하고 우리 내외가 어머니를 뵈시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 식당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예요. 나는 깜짝 놀라 ‘잔대미’를 다시 물어 확인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잔대미’를 머릿속에 푹푹 넣어뒀어요.

‘잔디’의 표준말은 들이예요. ‘잔디’와 ‘떼’지요. 이 두 말은 같은 말로, 따로 떼어 쓰이면 ‘잔디’와 ‘떼’가 되고, 붙어 쓰이면 ‘잔떼(강원도), 잔대기(전라,경상도)’ 따위가 돼요. 잔디의 500년 전 말은 기록에 의하면 ‘전뽕, 잠뽕, 잔뽕’ 따위였어요. 이 말이 서울에서는 ‘잔뽕>잔디’가 되었고요.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였는데, ‘잔대미’는 전국의 여러 지방에서 널리 쓰인 방언이래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잔대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디’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잔디의 또 다른 말인 ‘뽕’과 ‘뽕장’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요. ‘뽕’과 ‘뽕장’도 전국 여러 지방에서 많이 쓰는 방언이예요.

그런데 방언사전에 보면 다른 지방과는 크게 다른 충청도의 독특한 방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썰’인데요. 이 ‘썰’은 어렸을 적에 더러 들어본 말도 같은데 요즘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분명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틈틈이 어르신들 뵙고 여쭙고 싶은 말이에요. 혹 ‘썰’을 기억하시는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잔대미’와 ‘썰’을 함께 기억하시는 분은 내게 연락해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질겅이와 질경이

* '질경이'의 충청말

들판이나 길가에 흔히 보이는 '질겅이'는 '질경이'의 충청말이에요. 이노 작용을 돕고, 속이 좋지 않을 때 먹으면 효능이 좋은 풀. 내 할머니는 질겅이를 늘 '이점(이질)에 좋은 약'이라 하며 설사병에 걸리면 질겅이 삶은 물을 권했어요. 맛이 좋아서 봄이면 뜯어서 무쳐먹는 들남새이기도 하고요.

표준말 '질경이'를 충청도식 말로 바꾸면 '질기응이[질긌이]'가 되거나 '질겅이'가 돼요. 충청도에서는 '영감'을 '이응감[응감]'으로 소리내는 것처럼 '여'를 대개는 '이오[으]'로 발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모음동화를 활용하여 '여'를 '에'로 쉽게 발음하거든요.

몇 년 전에 나는 '질겅이'를 '질경이'의 충청말이라고 공책에 적어 놓았어요. 어려서부터 '질겅이'는 수없이 듣고 써온 말이고 지

금도 충청도 사람들은 대부분 질갱이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쉽게 기록은 해두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질갱이’가 아닌 다른 말도 썼을 것만 같아서 ‘충청남도 예산말사전’에 이 말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질갱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국어사전에서 ‘질갱이’를 검색하니 ‘빼뿌쟁이’란 말이 나오네요. 빼뿌쟁이는 질갱이의 다른 말이라는데 침 듣는 말이네요.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쓴 말이라는데, 혹시 우리 충청지방에서도 쓰지는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다음에는 질갱이의 충청사투리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니 충남 방언으로 ‘질갱이’와 ‘질갱이’가 뜨네요. ‘질갱이?’ 어려서 할머니한테 많이 들어본 말인 듯도 싶고 아닌 듯도 싶고 아리송하네요.

나는 팔순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니, 질갱이를 ‘빼뿌쟁이’라구 쓰는 거 들어보셨유?”

“질갱이는 알겠넌디 빼뿌쟁이는 몰러.”

“잉, 질갱이? 엄니, 질갱이를 질갱이라구두 했유?”

“우덜 어렸을 적이는 질갱이라구두 허구 질갱이라구두 허구 그렸넌디 요새는 질갱이는 안 쓰잖어.”

전화 한 통화로 ‘질갱이’가 확인되네요. 나는 이웃 할머니들과 ‘빼뿌쟁이’와 ‘질갱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라 하고 ‘질갱이’를 ‘질갱이’ 옆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

나는 ‘빼뿌쟁이’를 아는 사람들은 없었노라고 하면서 옛 동요 한 구절을 들려주네요.

“**질경질경** 밟혀도내 국 같이 맛나냐?”

엄니는 동무들과 이 ‘질경이 노래’를 부르며 자랐대요. 길가나 논둑과 밭둑에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늘 밟히며 자라지만 질경이로 꿇인 국만큼 맛난 국은 없다는 노래.

나는 지금 질경이를 통해 엄니들의 어렸을 적 추억과, 된장을 풀어 질경이국을 끓여먹으며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옛 어르신들의 추억을 돌아봅니다.

포갱이와 포기

*접사 ‘앵이’

앞 장엔 질경이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풀을 세는 ‘포기’에 대해 알아보게요. 요즘은 대개 표준말이 널리 보급되면서 거의 쓰지 않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충청도에선 풀을 썰 때 포기라고 하지 않고 ‘포갱이’라고 했어요. 겨울 김장철이 되면 으레

‘이번 진장인 배차 뿔 **포갱이**나 허까?’

‘그리기유. 식구덜 즈내 먹을라믄 백 **포갱이**는 냉겨야 허잡겼유?’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지요. 봄철이면 담배의 모나 고추의 모를 서로 나눌 때도

‘담뱃모 점 여유 있으면 삼백 **포갱이**만 돌려줘.’

‘꼬춤모 한 천 **포갱이**만 팔 터?’

하는 식으로 썼지요.

‘포갱이’는 ‘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포기’에 ‘-앵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지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앞말에 ‘-앵이’라는 말을 종종 붙여 썼는데요. ‘-앵이’는 어떤 말에 뒤에 붙어 ‘앞말과 같은 것’을 뜻하는 접사예요. 이런 충청말에는 ‘누룽갱이, 더갱이, 나싱갱이, 새갱이/새깁이, 이슬갱이, 얼갱이, 걸갱이’ 따위가 있어요.

‘누룽갱이’는 음식물이 타는 것을 뜻하는 ‘눌다’에 ‘-개+앵이’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은개+앵이→누룽갱이’는 ‘밥이 타서 솥에 눌러붙은 것’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더갱이(뎡갱이, 위에 뎡은 것), 나싱갱이(나싱, 냉이라는 풀), 새갱이(삿, 새끼줄라는 것), 이슬갱이(이슬이라는 것), 얼갱이(성글게 얼은 체라는 것), 걸갱이(도구를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말이 되지요. 이와 같이 ‘포갱이’도 ‘포기’에다 ‘-앵이’가 붙은 것이니 ‘풀의 포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충청말들은 서울말에 밀려 사투리가 되었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잘 정리된 것들이에요.

4월이 왔어요. 벚꽃이 동그랗게 붉은 꽃잎을 머금고, 개나리와 개동백이 노란 웃음을 활짝 펼쳐냈어요. 싱그럽게 펼쳐지는 올 봄에는 화분에, 마당가에, 텃밭에 몇 포갱이 꽃을 심어 보세요.

깍대와 깍줄

* ‘깍대기, 깍질’의 충청말

‘깍대기’와 ‘깍질’의 충청말은 ‘깍대’와 ‘깍줄’이에요. 요즘은 우리 충청말들이 표준말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표준말로 바뀌었지요. 더구나 마스크의 발달로 전국의 지역말들이 서로 섞여 쓰이면서 어느 것이 충청말이고 어느 것이 표준말인지, 또는 어느 것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말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적지 않아요.

표준말 ‘깍대기’와 ‘깍질’은 이미 오래 전에 충청 지역에 들어와 쓰였어요. 충청말 ‘깍대’와 ‘깍줄’이 표준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표준말은 충청도에 쉽게 번져갔고요. 별 생각 없이 표준말을 받아들여 쓰다 보니 ‘깍대’와 ‘깍줄’은 빠르게 사라져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깍대’라든가 ‘깍줄’이라 쓰는 분들을 거의 찾을 수 없지요. 다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서는 더러 들을 수 있고요, ‘깍대’와

‘껍줄’ 이야기를 꺼내면 ‘맞어, 옛날인 나두 **껍대**라구 했넌디.’ 하며 맞장구치는 분들만 많습니다.

‘껍대’와 ‘껍줄’은 서로 비슷한 말로 ‘어떤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물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만 자세히 구분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방콕이 알맹이버더 빈 **껍대**가 더 많구먼.(껍정콩이 알보다 빈 껍데기가 많군.)”

“다갈 **껍대**는 왜 퇴비장이다 버린다?(달걀 껍데기는 왜 퇴비장에 버린대?)”

처럼 ‘껍대’는 딱딱한 껍질을 주로 나타낼 때 쓰고요.

‘저기 낮이루 말여. 솔나무 **껍줄** 점 살살 백겨봐.’

처럼 ‘껍줄’은 좀 부드러운 껍데기를 나타낼 때 썼어요. 그리고 ‘껍대’를 좀 더 충청말답게 하는 말은 ‘껍댕이’예요. ‘껍댕이’는 ‘껍대’에 ‘앵이/앵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누룽갱이(누룽지), 새갱이(새끼), 망댕이(망태), 쭈글탱이(늪은이, 쭈그러진 사물), 밥탱이(바보)’처럼 어떤 말에 ‘-앵이/앵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붙여 써왔어요.

“그 낭반 곁**껍댕이**는 멀쩡헌디 속은 다 끓었어. 병주거리라 닝께.”

라든지,

“이누무 그이(게)는 **껍댕이**만 크드렁구 속은 텅 뵈네그랴?”
처럼 쓰였어요. ‘껍대’가 충청의 본디말이라면 ‘껍댕이’는 충청말

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지요. 이러한 '깍대'와 '깍줄'은 다른 말과 붙어 '겉깍대, 겉깍대이, 겉깍줄, 속깍대, 속깍대이, 속깍줄' 따위의 합성어를 이루어 널리 쓰여 왔습니다.

앞사구와 앞새기

“무슨 **앞새기**를 봐서 씨래기를 맹글었다.”

“가지뺏이 가서니 묵은 **앞새기**를 따 내거라.”

“사과나무 **앞사구**가 같이 되기두 전이 다 떨어졌구먼.”

“땅이 걸어야넌디, 거름이 부실허니께 **앞사구**가 먼저 떨어지능겨.”

풀이나 나무의 줄기 끝에 붙어 있는 넓적하거나 긴 부분을 표준말로 ‘잎’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잎을 ‘앞사귀’라고 하는데요. 이 ‘잎, 앞사귀’란 말을 충청 지방에서는 ‘앞새, 앞새기, 앞사구’라고 해요. 이 가운데 ‘앞새기’와 ‘앞사구’는 모두 표준말의 ‘앞사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표준말 ‘앞사귀’가 ‘앞새기’나 ‘앞사구’가 된 것은 말의 편리성에 따른 것이에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위’를 ‘우이[ui]’로 발음해요. 이중모음 ‘위’를 정확하게 ‘우’와 ‘이’를 모두 발음하는 것인데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위[wi]’를 한 소리로 발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말 ‘윗사람[윗싸람]’이 충청도에 마실을 오면 ‘윗사람[우읻싸람]’이 되는 거예요. 쓰는 것은 같은 ‘위’지만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소리가 되지요. 이처럼 우리 충청도에서는 한 소리인 ‘위’를 두 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이 길어지고, 길어지는 만큼 소리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위’를 줄여서 ‘우’나 ‘이’로 쓰는 일이 아주 많아요.

표준말 ‘잇사귀’를 요즘 어르신들은 ‘잇새기’라 쓰고 있고, 예전에는 ‘잇사구’라고 많이 썼지요. 서울말 ‘잇사귀’를 충청도의 발음으로 읽으면 ‘잇사구이’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잇새기’나 ‘잇사구’로 줄여 쓰는 것이예요. 이처럼 ‘위’를 ‘우’나 ‘이’처럼 말을 줄여 쓰는 방식은 충청도말의 한 특징이에요. 서울 ‘방귀’가 충청도에 놀러 오면 ‘방구, 방기’가 되고요. 서울 ‘위인(偉人)’이 충청도에 내려오면 ‘우인’이 되고, 서울 ‘귀신’이 충청도에 오면 ‘구신, 기신’이 되지요. 서울 나뭇가지가 태풍에 ‘휘어질’ 때면 충청도 나뭇가쟁이덜은 ‘후여지는’ 거예요.

11월도 깊어 가을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붉고 노랗게 물들었던 단풍잎새들이 쌀쌀해진 바람을 따라 세상을 뒹굴고 있고요. 추위가 다가오기 전 잠시 밖에 나가 보세요. 여기저기 뒹구는 가을 잎사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전할 거예요.

새밭고사리와 오박고사리

“양달루만 찾아댕겨서 그런가 새밭고사리만 잔뜩 꺾었어.”

“새밭고사리나마나 싹어 널으른 다 그눔이 그눔이여.”

“산지장날 너머 오박고사리덜이 참 많더라구. 그늘낭무 밑이루 오박고사리가 촌지더라닝께.”

예년보다 봄이 빨리 찾아왔어요. 4월에 되기 전에 피기 시작한 벚꽃이 벌써 지고 있고요. 오늘 출근하는 길에는 고사리를 꺾어다 널고 계신 할머니를 보았어요. 고사리를 벌써 다섯 번째 꺾어 오셔서 삶아 너는 거래요. 고사리가 조금 작고 가냘픈 것을 보니 아무래도 양지쪽에 먼저 돌아난 고사리군요.

혹시 ‘새밭고사리’와 ‘오박고사리’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전에

는 산들이 대개 민둥산이라 고사리를 많이 꺾을 수 있었지요. 봄철이면 산등성이를 따라 산을 오가는 고사리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숲이 우거지고 고사리를 꺾는 분들도 적어졌어요. 세상이 변하니 당연한 것처럼 ‘새발고사리’란 말도 ‘오박고사리’란 말도 점점 잊혀지고 있지요.

‘새발고사리’는 말 그대로 ‘새의 발처럼 생긴 고사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양지쪽에 돌아난 고사리는 한 뺨뺨 자라 오르면 머리가 셋으로 갈라지는데, 그 모양이 꼭 새의 발처럼 생겼다 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식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줄기가 작고 순이 꽤기 시작한 것으로 질이 좀 떨어지는 고사리에요.

이와는 달리 ‘오박고사리’는 말 그대로 ‘오박진 고사리’지요. 우리 충청도에는 표준어에 없는 ‘오박지다’란 말이 있는데, 이는 ‘식물의 잎줄기나 열매 따위가 실하거나 탐스럽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박고사리’는 잎줄기가 굵고 탐스러운 고사리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양지쪽의 고사리가 먼저 돌아나 펼 때면 산기슭이나 수풀 속에는 굵고 긴 줄기를 가진 고사리들이 자라 나거든요. 그 탐스럽고 웅골진 고사리를 ‘오박고사리’라고 해요.

4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산에 오르면 양지쪽엔 새발고사리들이 가득 피어났을 거고요. 그늘 속에는 오박고사리들이 고개를 길게 내밀고 있을 거예요. 이 봄에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세요. 거기 예전에 꺾던 고사리들이 가만히 고개를 쳐들고 수줍게 우리들을 반길 거예요.

벼와 베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난주부터 헬로비전이라나 뭐래나 하는 서울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쌍더니 오늘은 피디라는 두 젊은이가 내려왔네요. 전국 사투리를 소개하고 사투리로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충청도의 특산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충청도 허문 암채두 예산허구 충주 사과가 멥품이지, 허구 대답허까? 예산 흥성인 한우가 유명허다구 허까? 조치원 복숭아? 서해안서 많이 나넌 쭈께미? 청양꼬추? 아산의 탕정포도? 촌안이 호두과자? 흥성광천이 어리굴젓? 서천의 한산모시? 금산의 고려인삼? 머리 속에 주르륵 떠오르는 것은 많아도 이것이 충청도 특산물이다 말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충청도서 짬 많이 나넨 것이믄 벨 텐디유.”

생각다 못해 머뭇머뭇 대답이라고 한 것이 ‘베’예요. 그랬더니 피디 하나가 ‘베’가 뭐냐면서 삼베 얘기냐고 묻네요.

‘참내, 베두 몰르넨 낭반이 있나 베.’

생각하며,

“두 사람 태생이 오디슈?”

하고 물으니, 한 사람은 서울이고 한 사람은 제주도래요. 그래서

“충청도엔 평야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쌀이 많이 나지. 쌀나무 벼두 모르냐?”

하니 서로 쳐다보며 껌연쩍게 웃더군요.

‘베’는 전국에서 두루 쓰는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 서울 사람만 죽어라 하며 ‘벼’를 써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베’가 사투리가 되고 말았지요. 무지무지 억울하지만 실상이 그래요. 어쨌든 ‘베’의 원형은 ‘벼’인데요. 문제는 ‘벼’라고 써 놓고도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모두 ‘베’라고 읽지요. 충청도에서는 모음 ‘여’를 ‘이으[으]’라고 발음하니, ‘벼’의 충청도 발음은 ‘브:[비으]’가 되지요. 그래서 예전 충청도 양반들은 ‘비으’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발음하기 쉽게 ‘베’라고 써왔어요.

“암튼지간이 베를 못 알아듣넨 사람두 다 있더먼유, 오늘 지대 루된 서울 낭반을 들이나 봤유.”

스늑과 스늑밥

“아니 요짐 같은 시상이 오디서 스늑쌀이 낫대유?”

“이, 장이서 차조라구 허맨서니 누가 팔걸래 사왔어. 이전 생각두 나구 말여. 이따가 자네두 우리집이 와서니 오랜만이 스늑밥 점 먹어보지 그려?”

산촌에 가을이 오면 스늑(조)이 노랗게 익었어유. 어릴 적엔 내 키보다 훌쩍 커버린 스늑들이 밭이랑마다 가득했어유. 바나나처럼 길쭉한 스늑 이삭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스늑대는 무거운 머리를 다 지탱하지 못해 어깨까지 축축 늘어뜨렸어유.

여름내 거뭇한 보리밥만 먹다가 가을이면 노란 스늑밥(조밥)이 지어졌어유. 스늑으로만 밥을 지으면 먹기 어렵다고 보리도 반쯤 섞어 지은 어머니의 아침 보리스늑밥은 먹을 만했어유.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들일로 바쁘시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문 사이로 겨우겨우 몸 비비며 들어오는 부엌에 들어가면 부뚜막엔 상이 차려져 있어요. 신 김치며 장아찌가 수저와 함께 상보에 덮여 졸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면 빠끔히 즐린 눈을 치켜떴어요.

나는 소당(술뚜껑)을 열어요. 술 안에는 아침에 해둔 스승밥이 한 그릇 물 위에 떠 있어요. 술 안의 물은 점심을 드시고 들로 나가면서, 흑 금방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이 식은 밥을 먹지 말라고 데워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개 물은 짜늘하게 식어 있어요.

나는 스승밥을 꺼내어 상 위에 올려놓고 수저를 들어 밥을 떠요. 이때 참 조심해야 해요. 스승밥은 식으면 돌덩이가 되거든요. 억지로 짝어 한 술 뜰라치면 밥그릇이 통째로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밥그릇을 상에 놓고 손으로 잡은 채 떠야 해요. 그래도 잘못하면 밥그릇만 남기고 밥이 통째로 쑥 빠져버려요.

어려서부터 위장이 튼튼하지 못했던 내게 보리밥이나 스승밥은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스승이 조라는 걸 알고, 스승쌀이 좁쌀이란 걸 알아차린 중학교 시절엔 이미 스승밥이 밥상에서 사라졌어요.

요즘의 보리밥은 딱딱하지 않고, 스승밥도 예전처럼 뽕스승밥(매조밥)이 아닌 찰스승밥(차조밥)이에요. 더러는 식당에서 남들이 맛나게 먹는 보리밥, 스승밥을 바라만보지만, 지금도 보리밥이나 스승밥을 나는 먹지 못해요.

멍위 쫄검데기

‘머위’의 충청말은 ‘멍위’지요. 옛 책을 보면 ‘머휘’가 나오는데, 이 ‘머휘’가 갈라져서 서울에서는 ‘머위’가 되고, 충청도에서는 ‘멍위’가 되었어요. 예전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더러 ‘멍우’라고 쓰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그리 쓰는 분을 뵈기 힘드네요. ‘멍위’는 시골에서 자란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나물이지만,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물이에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표준말 ‘머위’도 모르고 충청말 ‘멍위’도 몰라요. 아예 관심이 없는 식물이지요.

‘쫄검데기’는 ‘식물의 줄기에 붙은 겉껍질이나, 줄기에서 벗겨낸 껍질’을 나타내는 충청말이에요. 충청도 방식으로 표현하면 ‘풀줄기의 껍데기’가 되지요. 표준말에는 줄기와 껍질을 나누어 쓰는데 우리 충청도에는 이 말이 합쳐져 ‘쫄검데기’가 된 것이에

요. 이 ‘졸검데기’가 강해지면서 ‘졸검데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표준말에 없는 것이니 아주 소중한 말이지요.

얼마 전 시골 집에 가니 뉘에서 어머니가 멧뿔대(머뿔대)의 껍질을 벗기고 계셨어요. 아내도 마주 앉아 멧뿔 껍질을 벗기네요. 한참 껍질을 벗기던 어머니가 말씀하셔요.

“**졸검데기**는 이쪽이루 모대놔.(즐기 껍질은 이쪽으로 모아놔.)”

‘졸검데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에요. 아내도 잊었던 말 일 텐데 자연스럽게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팔순인 어머니는 예전의 충청도말을 잘 쓰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쓰던 충청말들은 대개 표준어에 동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랑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쑥불쑥 예전의 충청말이 튀어나옵니다. 지금은 듣기 어려워진 그 말 속에는 어머니의 젊었을 적 삶이 소록소록 담겨 있어요. 나는 ‘졸검데기’를 메모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저 위집 뒷산이 멧뿔대가 우산차람 뿔더면, 암체두 내가 한 주먹 버다 먹어야겠어.”

“그류, 지는 **졸검덩이**나 퇴비장이 버리구 오께유.”

쌩딩이와 쌩짜

*자연 그대로의 것, 익지 않은 것

“진장침치가 여적 하나두 안 익었네유. 완전 쌩딩이유.”

“근디, 먹두 못헐 쌩짜를 뉘더라 상이 올린 겨?”

충청도나 전라도 지방에서는 표준어에 비해 소리가 강해진 것들이 많아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 또는 익지 않은 날 것, 마르지 않은 것’ 따위를 나타내는 표준말로 ‘생(生)’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말은 살아계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리키는 ‘생모(生母)와 생부(生父)’, 억지를 부리는 ‘생트집’처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대부분 소리가 강해져서 ‘생-’보다는 ‘쌩-’으로 발음을 해요.

예를 들면 마르지 않은 나무를 ‘쌩나무’라 하고요. 덜 익은 김치는 ‘쌩김치’, 대가 없이 하는 고생을 ‘쌩고상’이라고 하지요. ‘쌩가

죽, '쌩맥주' 등 많은 낱말들이 '쌩-'으로 발음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익지 않은 낱'을 나타내는 '쌩짜'도 우리 충청도에서는 '쌩짜'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 충청도에서 많이 쓰는 '쌩딩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펼쳐놓고 '쌩둥이'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충청도 '쌩딩이'는 보이지 않고, '쌩짜'의 북한말이라는 쌩뚱맞은 설명만 보이는군요. 지금 북한에서 쓰이는 '쌩둥이'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쌩둥이, 쌩둥이, 쌩뉥이, 쌩딩이' 따위로 전국에 널리 쓰였을 법해요. 그런데 전국의 방언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다보니 국어사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충청말 '쌩딩이'는 어디에도 없는 말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쌩딩이'는 '쌩-'에 '그러한 것'을 뜻하는 접사 '둥이/뉥이'가 붙어 이루어진 말로, 소리가 변하여 '쌩딩이'가 된 것이지요. 말 그대로 '익지 않은 것, 낱'을 뜻하며, 예전에는 흔하게 쓰이던 말이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아 우리말사전에 오르도록 해야겠어요.

콩천대와 밀천대

예전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지요. 겨울이면 칩을 캐다가 삶아 먹거나, 쓴맛 뒤에 오는 칩뿌리의 단맛에 젖기도 했지요. 이름 봄 들판엔 쑥이며 달래며 나싱개며 썸바구, 미나리를 캐러 다녔고요. 화창한 봄산에 올라 진달래와 아카시아 꽃잎을 따먹고 빨기와 성을 꺾어먹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림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해요.

얼마 전에 예산 고덕에 갔다가 ‘콩천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콩천대’라는 말을 몰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충청말 연구한다더니 알고 보니까 허벌이구먼.’

‘고모부, 대술 산골이 살았다매 콩서리두 안히 봤유? 그래, 산골 사람이 콩천대를 물론단 말유?’

‘하하, 충청도 사람이 콩천대를 몰르던 사람두 있나 배?’

‘아 참내, 고모부! 갈철이 넘어네 서리태를 꺾어다가니 귀먹넨
것을 콩천대라 허넨 것 진짜 물류?’

‘이 사람, 콩천대를 몰르른 밀천대두 몰르졌네?’

한 마디씩 하는데 참 멀썩해지더군요. 사실 나는 콩서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의 콩대를 꺾어다 구워먹는 일도 그렇지만, 나는
콩을 먹지 못해요. 지금도 밥에 방콩(검은콩)이나 종콩(흰콩)이 들
어있으면 다 골라내거든요. 콩을 좋아하지 않다보니 콩서리엔 관
심이 없었지요.

아무튼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나만 모르니 좀 그렇더군요. 메모장
에 써놨다가 집에 와서 사진을 찾아보니

‘콩천대-‘콩서리’의 황해도와 평안도 사투리.’

라고 나오는군요. 어이쿠 이런, 충청도 사람이 쓰는 말을 북한지방
사투리라고? 다시 인터넷을 죽 검색해 보니 몇몇 블로그에 ‘콩천
대’가 나오는데, 블로그 운영자들이 예산, 홍성, 서산, 태안 지역 분
들이네요. 이를 보면서 ‘콩천대’는 충남 서부 지역과 충청 지방에
서 널리 쓰인 말임을 확인했어요.

남의 집 서리태를 뽑아다 콩천대 해보신 분들, 혹시라도 나를 보
면 ‘콩천대’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남의 집 밀밭에서 밀 이삭
따다가 구워먹는 ‘밀천대’도요.

뿌리기와 뿌랭이

내게는 충남 남서쪽의 바닷가, 서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서천은 위로 부여와 붙어있고 아래로는 군산에 붙어있는 충남의 남쪽 지방이지요. 그 친구는 말을 참 재미있게 해요. 표준말을 따박따박 쓰는데 그의 말에는 충청도 서천의 억양이 가득 배여 있어요. 서산이나 당진, 예산의 말은 느릿하면서 슬며시 오르내리는 것인데요. 서천의 사투리는 느리면서 툭툭 튀는 전라북도 억양을 닮아 있어요. 그것은 전라북도 말과는 조금 다르면서, 충남의 바닷가 억양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다보면 표준말과 충청말, 전라도 말이 하나로 어우러진 느낌이 들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표준말 사이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사투리를 섞어 쓰는 것이예요. 이제 막 50줄에 접어든 친구인데, 팔십 어르신들도 안 쓰는 옛 사투리를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가끔 서천말에 대해 묻곤 해요. 지난주엔 천안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무뿌랭이’라는 말을 섞어 쓰더군요. ‘뿌랭이’란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예산서는 ‘뿌리기’라구 많이 허네티 서천서는 ‘뿌랭이’라구 허는가 보쥬?”

“아, 뿌리기라고도 허긴 허쥬. 근데 서천서는 대개 뿌랭이라고들 많이 해요. 뿌링이라고 허는 사람도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군요. 예산서는 ‘뿌리기’를 많이 쓰는데, 서천서는 ‘뿌랭이’를 많이 쓴다네요. 그러면 표준말 ‘뿌리’의 충남말은 ‘뿌리기’가 될까요? 아니면 ‘뿌랭이’가 될까요?

이 답을 구하려면 전국의 사투리와 충남 지방의 사투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현재의 국어 표준말은 ‘뿌리’지요. 그런데 표준어맞춤법통일안이 처음 생긴 1933년 당시에 ‘뿌리’라는 말은 서울과 그 인근 지역서만 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뿌리에서 파생된 ‘뿌레기’가 많이 쓰인 듯해요. ‘뿌레기’는 만주 지방부터 북한 전역, 강원, 경기, 충청, 전라와 경상도까지 전국적으로 쓰였대요.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뿌리기’라고 썼고요. 예전으로 가면 ‘뿌링이’와 ‘뿌랭이’를 많이 썼어요. 더러는 ‘뿌레기’나 ‘뿌리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뿌리기’는 전국방언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주로 쓴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뿌리기’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남 북부에서 많이 쓴 말이 됩니다. 반대로 금강을 건너 남쪽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뿌랭이’를 많이 써요. 물론 ‘뿌리기’는 충남 남부 지방과 전라도 지방에서도 쓰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뿌랭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충남에서 가장 두루 쓰인 말은 ‘뿌랭이’네요. 전라도에서도 그러하니, ‘뿌랭이’는 충남, 전라 방언이 되겠네요. 다만 천안이나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방언은 경기 방언과 이어진 ‘뿌리기’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나무와 낭구

출근하다 보니 내가 사는 주공아파트 앞에 설치된 광고 게시대에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어요.

‘솔랑구’.

어느 분이 새로 가게를 열면서 붙인 이름인 모양이에요. 속리산 근처에 있다는 정2품송 그림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보다는 그 옆에 쓰인 ‘솔랑구’가 먼저 눈에 띄이더군요. 아마도 어릴 적 많이 쓰던 정감어린 내 말이어서 더 쳐다보게 된 듯해요.

‘솔랑구’는 ‘솔낭구’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에요. 나무 이름인 ‘솔’에 ‘낭구’가 붙은 말이니까 어법에 맞춰 바로 잡으면 ‘솔낭구’라 써야 맞지요.

‘낭구’는 나무의 옛말이에요. 한글이 막 창제된 15세기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는 ‘남기’와 ‘나모’가 함께 쓰였어요. 그것이 후대에

오면서 경기도 지방에서는 ‘남기’가 사라지고 ‘나모’가 주로 쓰였고요, 우리 충청도 지방에서는 나무의 옛말인 ‘남기’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나모는 지금의 나무이고, 남기는 거의 사라져가는 우리 충청말 ‘남구’가 되었지요.

두 말의 쓰임이 어땠는지 구전되는 나무타령의 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서울말〉 십리절반 오리나모, 방귀 끼는 쑥나모, 앵도라져 잉도나모, 반말 짝짝 아자나모, 뽕뽕쓴다 딱총나모, 대낮에도 밤나모, 미안하다 사과나모, 화가 나도 촌나모, 쿨쿨잔다 잣나모, 입맞추자 쪽나모, 망했구나 작살나모, 조졌구나 개피나모, 더럽구나 쥐똥나모, 냄새좋다 향나모.

〈충청말〉 십리절반 오리봉낭구, 방구 끼는 뽕낭구, 앵토러져 앵두낭구, 반말 짝짝 아지낭구, 뽕뽕쓴다 딱총낭구, 대낮이두 밤낭구, 미안허다 사과낭구, 부에나도 침낭구, 쿨쿨잔다 잣낭구, 입맞추자 쪽낭구, 망했구나 작살낭구, 조졌구나 개피낭구, 더럽구나 지똥낭구, 냄새좋다 향낭구.

뽕로수낭구와 보리수나무

어릴 적, 산골짜에 가을이 물들고 나뭇잎이 지기 시작하면 나는 뽕로수를 따 먹으러 산에 오르곤 했어요. 내가 자라난 산골 동네의 산등성이, 안락산으로 이어지는 증골(正谷)을 따라 올라가노라면 산등성이 양지쪽마다 뽕로수낭구들이 빨갛게 열매를 달고 기다렸어요.

빛보다도 작고, 0.5센티미터도 못 되는 붉은 열매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달콤한 침을 흘리게 했어요. 대개는 먼저 본 사람들이 따먹고 남은 설익은 뽕로수가 대부분이라 늘 욕심만큼 딸 수는 없었지만 그 조그만 붉은 열매들을 바라보거나 한 움큼 손에 쥐 때는 적잖이 설레기도 했어요.

1970년대 이후 뽕로수낭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산림녹화로 큰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 오르자 더 이상 뽕로수는 흔한 열매

가 아니었어요. 나는 차츰 뽕로수를 잊고 청년이 되어 산골을 떠났어요.

자취를 하며 대학을 다니던 시절, 나는 대전에서 뽕로수를 다시 만났어요. 주인집 마당가에는 3-4미터 키의 뽕로수낭구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엔 1센티미터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뽕로수들이 열려 있고, 초여름인데도 빨갛고 탐스럽게 익어 있었어요. 분명 나무는 뽕로수낭구인데, 열린 것은 분명히 뽕로수인데 나는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는 뽕로수낭구엔 큰 가지가 많았는데 이 나무엔 가지가 적었어요. 내가 먹은 뽕로수는 아주 작았는데 이걸 너무 컸어요.

뽕로수는 뽕로수인데 내가 알던 뽕로수와 달라 자꾸만 헷갈렸어요. 나는 이게 무슨 나무냐고 주인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보리수나무’라 대답했어요.

내 자취집에는 여러 세대가 세를 들어 살았지만 아무도 뽕로수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어릴 적 감질나게만 먹어보았던 뽕로수를 그 여름내 나는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산골의 산등성이에서 따먹던 작고 달콤한 맛과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 떨떠름하면서도 시큼한 향기, 속살의 감촉은 어릴 적의 기억과 함께 충분히 보드라웠어요.

그 뽕로수를 여러 날 따 먹거나 추억에 잠기면서 ‘뽕로수’가 ‘보리수(菩提樹)’의 충청말이란 것을 알았어요. 산등성이 양지에서 자라는 야생의 뽕로수낭구와는 많이 달랐지만, 그것은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독배(돌배)와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양배(洋-)의 차이점으로 이해했어요.

오늘 시골집에 갔더니 조그만 보리수나무가 마당가에 서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건 뽕로수낭구가 아니라 보리수나무란 걸요. 뽕로수낭구는 산 속에서 강한 가시를 속으로 키우고, 보리수나무보다 더 듬성하고 작은 잎으로 수수함을 드러내고, 더 작고 더 달콤한 맛과 강한 향을 내뿜어요. 그렇지만 내년 여름쯤엔 저 작은 보리수나무엔 보리수가 아닌 뽕로수가 열릴 거예요. 새끼손톱만큼 씩이나 큰 뽕로수가 붉게붉게 내 유년의 그리움을 드리울 거예요.

생강나무에 핀 눈꽃

* '생강나무꽃'의 충청말 '동백꽃'

산기슭 생강나무
노란 꽃눈으로 가는 겨울 전송할 때
달려온 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돌아온
겨울의 하얀 눈꽃

노란 생강꽃 위에 가만히 올라앉고는
내 포근한 숨꽃 보고 싶어
일찍 눈을 떴구나.
겨울 친구가 보고픈 생강꽃과
봄 친구가 그리워 젖은
겨울 눈꽃의 만남.

생강나무 노란 봄꽃 위로

넷물 흐르듯 솟아나는

겨울 눈꽃의 소복한 포옹

-〈이명재, '생강나무에 핀 눈꽃' 전문〉

김유정님의 소설 '동백꽃'을 기억하시나요? 강원도 농촌을 배경으로 순박한 젊은 남녀의 사랑을 재미있게 그려간 1930년대의 소설이요. 조숙한 마름집 딸 점순이의 구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나'로 인해 벌어지는 닭싸움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안타까워요.

고추장도 먹어보고, 훈련을 시켜 봐도 당하기만 하는 우리 닭, 보다 못해 점순이네 닭을 작대기로 때려죽이고는 울음을 터뜨리는 나와, 내 어깨를 짊고 넘어지는 점순이의 몸뚱이 위로 '노란 동백꽃 향기'가 가득 피어오르네요.

이상하다? 동백꽃은 붉은 꽃인데 노란 동백꽃이라고요? 아하, 김유정님의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은 '생강나무꽃'의 사투리에요. 2월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으로 매화보다 한 달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추위 속에 피어나는 생강나무꽃을 '황매화(黃梅)'라 불렀고요. 너무 일찍 피어나기 때문에 꽃샘의 눈발이 날리는 날이면 노란 생강나무꽃은 하얀 눈꽃 모자를 쓴 한답니다.

이 생강나무꽃은 강원도와 충청도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동

백꽃'이라 불렀어요. 쓰이는 범위로만 보면 생강나무꽃보다는 동백꽃이 표준어가 되고도 남을 텐데요. 옛 문헌 자료에 '싱강나모'가 많이 나오고, 붉은 동백꽃이 따로 있어서 표준어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충청도, 강원도 지방의 사투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생강나무가 아닌 '산동백나무'가 문화어(표준어)로 사전에 실려 있고요. 지금도 충청도와 여러 지역에서는 생강나무를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와 구분하여 '산동백나무', 또는 '개동백나무'라 부르고 있어요.

제3부
생활
도구

바수거리와 바지게

*어느 것이 더 충청말다운가?

- ① **바수거리** : 깔짐이 얼마나 큰지 **바수거리**가 찌부러질 것 같네
유.(깔짐이 얼마나 큰지 발채가 찌부러질 것 같네요)
- ② **바지게** : 아니 **바지게**두 읍지 않은 지겔 지구서니 먼 벵토매를 날
르러 간대능 겨?(아니 발채도 없지 않은 지게를 지고서는 무슨 벵단을
나르러 간다고 하는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산에 가 참싸리를 한 짐 베어와 수백 가닥으로 늘어놓고 바수거리를 엮었지요. 싸리나무의 밑둥(밑둥)을 한데 모아 단단히 묶고 견고틀어 조이고 나면 싸리나무 가지들은 등그렇게 사방으로 팔다리를 뻗었어요. 그 뻗친 가지를 양쪽으로 묶어내면 바수거리의 바닥과 양쪽의 축이 만들어졌어요. 그

리고 나면 싸리가지 하나하나를 칩끈냉이(칩의 줄기를 갈라 만든 줄)나 가늘고 조밀한 샷내기(새끼줄)로 울울이 엮어냈지요. 한 줄을 촘촘히 엮고 나면 오합지졸로 팔다리를 뺀고 있던 싸리가지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고, 두 줄을 엮어내고 나면 바수거리의 틀거지가 온전히 드러났어요. 세 번째에는 칩끈냉이를 쓰지 않고 좀 더 올이 굵은 샷내기를 주로 써 엮었어요. 세 번째가 마지막 엮음이거든요. 아주 단단하게 싸리나무의 끝을 조여 가면 이제 아주 가는 싸리나무 끝의 줄기들이 한 뺨이나 두 뺨만큼 남아 마무리를 기다렸어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싸리나무 끝을 낫이나 손도끼로 자르고, 완성된 바수거리는 실용 예술품이 되어 지게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바수거리’는 벧단이나 풀 따위를 신기 위하여 지게 뒤에 엮은 물건이에요. ‘밭’에 ‘소쿠리’가 붙은 말이니 말대로 풀이하면 ‘밭을 엮어 만든 소쿠리’로 표준말은 ‘밭채’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는 ‘바수거리’ 못지않게 ‘바지게’라는 말도 많이 써요. ‘바지게’는 ‘밭’에 ‘지게’가 붙은 말로, 말 그대로 풀이하면 ‘바수거리(밭채)를 엮은 지게’가 돼요. 말의 짜임만 보면 바수거리와는 달리 표준말 ‘바지게’가 되어 버리는데요. 우리 지방에서는 ‘바지게’가 바수거리를 엮어놓은 지게라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고 ‘바수거리’와 같은 뜻으로 쓰여요.

‘바수거리’는 경기 남부지방과 차령 이북의 충남 북부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말일 것으로 생각해요. 아산이나 천안 지역에서는 ‘바수거리’가 많이 쓰인다는데, 차령 이남인 공주 지역으로 가면 ‘바소거리, 바소쿠리’로 쓴다고 하거든요. 경기 남부 지방에서는 ‘바수거리’가, 강원과 충북 지역에서는 ‘바소거리’가 많이 쓰인다네요.

‘바지게’는 경상 지역과 여러 지역에서 ‘발채’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반해, 서울 지역에서 ‘바지게’가 ‘발채를 엮은 지게’를 뜻하는 말로 표준말이 되었어요.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표준말 ‘발채’의 뜻으로 ‘바수거리’와 ‘바지게’가 함께 쓰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방언과 비교해본다면 ‘바수거리’가 ‘바지게’보다 차별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구락쟁이와 아궁지

* ‘병거래’를 찾습니다.

“아궁지 군불은 지퍼논 거?”

“구락쟁이다가니 장적개비 점 밀어느른 쫓일 방이 따땃힐 거.”

표준어 ‘아궁이’를 나타내는 방언은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충남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만도 ‘아궁, 아궁재이, 아국쟁이, 아국징이, 아궁지, 아굼지, 아구이, 뽕작, 뽕아구리, 병거래, 구락쟁이, 구락징이’ 따위가 있다고 하네요.

충남 방언만 해도 이렇게 많다니 참 놀랍지요. 그런데 이 많은 충남 방언 가운데 서북부 지방에서 주로 쓰인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100년 전쯤에는 위의 말들이 대부분 쓰였을 가능성이 높을 데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듣고 써온 말이 ‘구락쟁이(구락징이)’와 ‘아궁지’예요. 그리고 가끔 들은 말이 ‘아궁’과

‘아국쟁이’예요. 이 밖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충남북부 방언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충남 북부지역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을 말부터 찾아보지요. ‘아구이’는 현재 경상도에서 쓰이는 말로 충청도에서 흔하지 워진 지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돼요. ‘뽕작/아궁재이’는 전남과 전북에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말이라 하니, 예전에 충남에서 쓰였다 할지라도 남부지방에서 쓰였을 것이고요. 충남 북부에서는 많이 안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뽕아구리(뽕가구리)’도 쓰였을 법한데 나는 아직 이 말을 쓰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네요.

이제 남은 것은. ‘아궁, 아굼지, 아궁지, 아국쟁이(아국쟁이), 구락쟁이(구락쟁이), 병거래’네요. ‘아궁, 아굼지’는 경기도 방언인데요. 우선 ‘아굼지’는 ‘아궁지’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충청말에서 받침 ‘ㅁ’은 말하기 편하도록 흔히 ‘ㅇ’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굼지’는 ‘아궁지’보다 앞서 쓰이다가 사라진 말이라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아궁’은 일부 쓰이기는 했지만 표준말 ‘아궁이’와 비슷하게 쓰여서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국쟁이(아국쟁이)’는 경기, 강원에서 주로 쓴 방언이라 하는데요. 충청 북부지방은 경기도와 가까워서인지 예전에는 종종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결국 ‘구락쟁이(구락쟁이)’와 ‘아궁지’, ‘병거래’가 남았네요. ‘구락쟁이’는 충남 지방에서 가장 널리 쓰인 충남 토박이말로 생각돼요. 이 ‘구락쟁이’ 외에 널리 쓰인 말이 ‘아궁지’로 생각되고요. 이 두 말의 뜻을 풀어 보면 뜻은 같아요. ‘구락쟁이’는 구멍을 뜻하

는 ‘굴’에 입을 뜻하는 옛말 ‘악’이 붙어 ‘구락’이 되고, 그 뒤에 ‘쟁이’가 덧붙여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락쟁이’는 ‘불을 때는 굴의 입구’를 뜻하는 말이지요. ‘아궁지’도 그래요. 입을 뜻하는 ‘악’에 그러한 것을 뜻하는 접사 ‘-웅’과 ‘-지’가 붙어 ‘불을 때는 입구가 되는 곳’을 뜻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병거래’라는 말은 모르겠네요. ‘구락쟁이’와 함께 충남 지역에서 널리 쓰였고, 지금도 더러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통 기억에 없어요. ‘병거래’는 ‘뵙(부엌)’에 ‘악우리(아가리)’가 붙어서 ‘부엌에서 불을 때는 입구’란 뜻을 가진 말로, ‘뵙+아구리→뵙가구리/뵙가래>병가래’로 변한 것일 텐데요. 혹, ‘병거래’를 기억하는 어르신 어디 계시지 않나요?

적쇠와 석쇠

쇠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 쇠 테두리에 철사를 엮어 고기나 떡 따위의 음식을 구울 때 쓰는 도구를 충청도에서는 '적쇠[적썰/적썰]'라 쓰는데, 표준어는 '석쇠[석썰/석썰]'다. 얼핏 보면 서로 닮아 있기도 하고, 달리 보면 사뭇 멀어 보이기도 하는 '적쇠'와 '석쇠'는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일반적으로 표준어와 방언을 비교하면 표준어가 방언에 비해 어휘가 풍부하고 더 체계적임을 발견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행정 중심지의 언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반면, 방언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표준어(중양어)에 밀려나 있다. 원래부터 지역 방언이 빈약하다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소외되어 온데다가, 사투리는 열등하다는 사람들의 편견까지 더해져 지금의 방언은 본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다시 '적쇠'와 '석쇠'로 돌아가 보자. 한자가 아닌 한글이 쓰이기 시작한 500년 전으로 가보면 '섯쇠'란 말이 나온다. 이 '섯쇠'가 지금의 '석쇠'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섯쇠'를 풀이한 옛 문헌을 보면 '적(炙)'에 '쇠'가 붙어서 된 것이라 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중국 사전에는 없는 글자다. 이 '炙'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고기(육, 肉-月)가 불(화, 火) 위에서 익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고기 구울 적' 자가 되었다. 쉽게 정리하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충청도에서나 서울에서나 모두 '적쇠'라 말해진 것이다. 이 '적쇠'를 한글 창제 이전에는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炙'이라는 한자를 만들어 붙인 것인데 이 '적쇠'가 서울지방에서는 '섯쇠>석쇠'로 변화한 것이고, 우리 충청지방에서는 천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본 모습을 지켜 '적쇠'로 쓰는 것이다.

본래의 말을 지켜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방언에는 우리말 원형을 본래대로 지켜온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말들은 변화한 말보다 어원에 가까운 소중한 말이다. 조상들의 문화와 정신의 뿌리를 간직한 수많은 방언들, 그 소중함이 자꾸 잊혀져가는 현실은 슬프다.

틈이 나면 나는 예당저수지에 간다. 국민관광단지 휴식처에 가면 많은 이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 아래 모여 있다.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광장이나 평상 위에 자리를 깔고 고기를 구우며 정을 나

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들, 갈색으로 지글거리는 고기 사이로 가위질이 지나노라면 화덕의 연기보다 먼저 누릿한 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쳐간다. 그 정겨운 자리에 충청의 '적쇠'는 사라지고 이제 '석쇠'가 놓여 있다.

이번 주말엔 '석쇠'가 아닌 '적쇠'를 들고 가야겠다. 오래 지녀온 충청의 고기맛을 보러 예당엘 가 봐야겠다.

쓰레박과 쓰레받기

“이 사람아. 암만 더워두 그렇지. **쓰레박**이루 부채질을 허문 오쩌는가?”

저는 어릴 적 ‘쓰레박’이란 말만 듣고 썼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쓰레받기’란 말을 알았을 때 ‘쓰레받기’란 말이 참으로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충청말 ‘쓰레박’은 ‘쓸다’와 ‘바가지’가 붙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담아내는 바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표준말 ‘쓰레받기’는 ‘쓸다’에 ‘받기’가 붙어서 ‘쓰레기를 받아내는 것’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명사와 명사가 어울린 ‘쓰레박’보다, 명사에 동사의 명사형이 붙은 ‘쓰레받기’는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쓰레받기’란 표준말이 어색해서 오랫동안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쓰레받기’를 쓰게 되고, 한번 두 번 어색하게 쓰던 쓰레받기가 어른이 될 때쯤엔 입에 붙어버렸어

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쓰레박’이란 말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러했지요. 아이들은 ‘쓰레박’이란 말을 배우지 못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쓰레박’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쓰레받기’를 놓았어요.

지금은 이 ‘쓰레박’을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은 ‘쓰레박’을 모두 알고 있지만 표준말에 익숙해지는 동안 이 말은 소통에 불편을 주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자연스럽게 정겨웠던 이 ‘쓰레박’은 전국에 널리 쓰이던 말이라서 충분히 표준말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말 ‘쓰레받기’에 밀려 어느 순간 쓰레기통에 버려진 말이 되었습니다.

호밀과 밀땀방석

“날 더우니까 저녁은 **밀땀방석** 깔구 미당서니 먹자.”

“여름인 그늘낭구 밀이다 **밀땀방석**을 축허니 깔어놓구 낮잠 자넨 게 최고여.”

지난주엔 예산 신암면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센터에 놀러갔어요. 보리와 밀이 한 가득 이삭을 내밀고 있더군요. 아직은 이삭들이 파랗지만 6월이 되면 누렇게 변할 텐데요. 보리밭 너머로 가지런히 이삭을 세우고 선 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릴 적 호밀밭을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호밀의 이삭들이 머리 위에 있어 키가 참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가슴 정도로 내려다보이는군요.

밀은 본래 비가 좀 적게 오는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곡

물이에요. 이런 까닭에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밀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밀것이 아주 귀했지요. 특히 호밀은 일반 밀에 비해 수확량이 적어 기피 작물이었어요. 충남과 전북의 산간 지방에서만 일부 재배되었을 정도지요.

그런데 이 호밀은 곡물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밀짚을 얻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보리나 밀은 탈곡기에 넣어 추수한 뒤 남은 짚들은 불에 태워 버렸지요. 그렇지만 호밀은 키가 1.5미터 내외로 컸기 때문에 호룽개(와룽개/왓구랑)로 낱알을 떨어내고 남겨진 밀짚은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썼어요. 지붕을 이는데 쓰기도 하고 밀짚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주로 '밀땀방석'을 만드는데 썼지요.

'밀땀방석'은 '밀대로 만든 자리'를 뜻하는 충청말이에요. 본래는 '밀땀방석'인데 편하게 '밀땀방석'이라 말해 왔지요. 예전 어르신들은 왕골새끼나 노끈을 고드랫돌에 감아놓고, 자리틀에 1.5미터 정도의 호밀대를 양쪽에 번갈아 올려놓으면서 엮었어요. 그러면 넓이가 2미터 정도, 길이는 필요한 만큼 늘어 3~4미터 정도로 하면 직사각형의 명석만한 밀땀방석이 되었지요. 이런 밀땀방석은 곡식을 너는데 쓰는 명석과 달리 깔개로 이용하였어요. 밀땀방석은 가벼웠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 편했고, 부드럽고 폭신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깔개였지요.

여름철 그늘나무 아래에 깔면 폭신했던 침상이 되어 낮잠 자기에 그만이었어요. 여름 안마당에 깔면 저녁상을 둘러앉아 시원한 저

녁 시간을 나눌 수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밤 모깃불을 피우고 마당
가운데 밀뎀방석을 피놓으면, 동네사람들 모여앉아 세상 얘기 나
누는 정다운 시간들이 참 아늑하였답니다.

흔털뱅이

* '누더기 옷'의 충청말

예전에는 먹고 입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어려웠고 깨끗하게 빨아 입기도 힘들었지요. 터지고 떨어지면 바늘로 기워 입어야 했는데, 제대로 깎지도 않고 오래도록 빨지 않아 때가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렇게 낡고 더러운 옷을 '누더기'라 했는데요. 예전 동남배기나 비렁뱅이들이 입고 다니던 '누더기'같은 옷을 '흔털뱅이'라 했지요.

'흔털'은 '헌 털옷'이란 말이고, '-뱅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말(접사)이에요. '장돌뱅이, 게을름뱅이, 울뱅이, 으덩뱅이, 안진뱅이, 잠뱅이' 따위가 그렇게 만들어진 말들이지요. 말 그대로 '흔털뱅이'는 '낡고 다 떨어진 옷'을 가리키는 충청말인데요. 이 '흔털뱅이'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서 쓰이고 있어 표준어에 '헌털뱅이'로 올라가 있

지만 점차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살이가 풍족해지면
서 ‘헌털뱅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서일까요?

“저 낭반은 어려서버텨 머심살일 헛어. 용니오 적이 핵결 땡기다가 때
려치구 머심을 살었년디 말여. 돈을 애긴다구 일곱 해 동안 **헌털뱅이**만
입구 땡긴 사람이여. 머심이 먼 좋은 옷을 입냐구, 쥘이 새 옷 한 벌 사주
겠다구 히두 마다허구 세경을 채곡채곡 쟁였어. 봄서 갈까장 머심을 살
구 즐이 되든 집이루 와설래미 나물 히다가 장이 나가 팔었지. 열다섯이
시작헌 머심살이가 스무 살이 지나서 끝났어. **헌털뱅이** 일곱 해만이 벗
구서니 바루 장개를 갔지. 한 푼두 쓰덜 앓구 모대서 건발 다섯 단보를
사구두 집까장 장만헛거던.”

툽배기와 투가리

오늘 친구들과 ‘투가리’ 얘기를 했어요. 오랜 만에 써보는 말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나는 툽배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된장국이나 통통장을 끓일 때면 할머니는 늘 ‘툽배기’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웃집 어르신들은 종종 그것을 ‘투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툽배기와 투가리’가 같은 질그릇이란 것은 알았지만 툽배기란 말은 배우지 못했어요. 나중에 툽배기란 그릇을 알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도 그것이 툽배기나 투가리와 같은 그릇인 줄은 오래도록 알지 못했어요.

‘툽배기’는 투박한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구운 다음 오징물을 바른 질그릇이지요. 빛깔도 우중충하고 생긴 것도 매끄럽지 못해 아무래도 고급스럽거나 세련된 그릇이 아니지요.

질그릇이라 아주 무겁고 불에 쉽게 달구어지지도 않아서 사용하려면 꽤 귀찮은 그릇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뜨거운 기온이 오르면 오래도록 식지를 않아서 어느 집안에서나 널리 쓰였어요. 지금도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면 어디서나 애용되는 그릇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은 질그릇이 쓰였지요. 물동이부터 오줌이나 똥을 퍼내던 ‘장군’,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던 장독처럼 큰 항아리에서부터 오목한 특배기나 입이 넓은 자배기, 웅배기같은 그릇까지 참 많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 뚝배기를 충청 지방에서는 투가리나 특배기라고 썼다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군요.

“투가리라고도 했지만, 투거리라고도 많이 했지.”

그래요. 우리 충청말에서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쉽게 교체돼요. 그래서 ‘투가리’라고 하든 ‘투거리’라고 하든 듣고 쓰는 데는 차이가 없었어요. 투가리 속에서 개장국이 짹짹 끓든, 투거리 속에서 삼계탕이 짹짹 끓든 그게 그것인 것처럼요.

서울의 뚝배기가 우악스럽게 전국을 휩쓸면서 충청도의 투가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특배기도 모습을 바꿔 뚝배기가 되었어요. 시골집에 가도 식당에 가도 충청도 특배기와 투가리는 보이지 않고 서울 뚝배기만 가득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서울 뚝배기보다는 암만해도 특배기에 끓어오르던 구수한 충청도 된장국, 투가리에 담긴 추억이 그리웁습니다.

부지깡이와 부시땡이

“아줌닌 아들 때려두 왜 똑 **부시땡이**루 때린대유?”

“속상혀 죽겼넌디 뭘 소리랴? 그럼 애를 **부지땡이**루 때리지 도긧땡이
루쥬 패남?”

“그럼 게 아니구유. **부시땡인** 뵈이서나 쓰시구 호차리를 하나 맹글덩가
허셔유.”

아궁이에 불을 땡 때,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를 충청도에서는 ‘부지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충청 서부지방에서는 ‘부시땡이’라고도 많이 했지요. 표준말은 ‘부지깡이’예요. 표준어가 확산되어 청소년들은 거의 쓰지 않지만, 지금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지땡이’라고 말하지요. 아쉽게도 ‘부시땡이’는 표준어와 차이가 커서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표준어 ‘부지깡이’와 충청말 ‘부지땡이/부시땡이’는 대충 닮아 있어서 별 차이는 없는데요. 자세히 보면 ‘부지-’ 뒤에 붙은 말이 달라요. 표준어에는 ‘-깡이’가 붙어 있고, 우리 충청말에는 ‘-땡이’가 붙어 있잖아요.

먼저 ‘부지’의 뜻을 살펴보면요. ‘부지’는 ‘불’에 ‘집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두 말이 합쳐지면서 ‘불’의 ‘ㄹ’이 떨어져 나가면 ‘부집-’이 되지요. 표준어에서는 이 ‘부집-’에 도구를 뜻하는 말인 ‘-개’가 붙어서 ‘부집개’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불을 헤집는 도구’라는 말이고요. 다시 여기에 ‘-ㅇ이’라는 말이 붙어서 ‘부집깡이→부지깡이’가 된 것이지요.

우리 충청지방에서는 ‘부집-’ 뒤에 ‘-깡이’ 대신 ‘-땡이’를 붙여 썼어요. 서로 비슷하지만 ‘-깡이’와 ‘-땡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충청말 ‘부지땡이/부시땡이’는 ‘부집-’에 가늘고 긴 막대기를 뜻하는 말인 ‘대’가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집대’가 되었는데요. 이 ‘부집대’는 표준어 ‘부집개’와는 달리 ‘불을 헤집는 막대기’라는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지요. 이 ‘부집대’에 ‘-ㅇ이’가 붙어서 ‘부집땡이→부지땡이>부시땡이’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궁쟁이’에 불을 지피거나 군불을 때는 일이 없어졌지만, 쥘일 불장난하다 오줌을 지려본 분이 아니라도 그리운 그 이름이 ‘부지땡이, 부시땡이’랍니다.

조랭이와 조래미

* '조리'의 충청도말

방아 찧는 기술이 요즘만 못했던 예전에는 보리쌀이나 쌀에는 돌이나 탑새기 따위가 흔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밥을 먹다가 돌을 깨물어, 먹던 밥을 뱉어 내거나 이가 상하는 일도 있었지요. 이런 까닭에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추수할 때 곡식에 돌이 섞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고,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조랭이를 써서 밥 지을 낱알을 잘 일어야 했어요.

그때는 조랭이가 큰 대접을 받으며 부엌의 선반에 걸려 있었지요.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엔 방앗간에 돌 고르는 기계가 등장하고, 그 기계가 전국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 이후엔 밥을 먹다가 돌을 깨무는 일도 없어졌어요. 세상이 달라지면 새 물건이 나오고 현 물건들이 사라지지요.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조랭이가 사라지자 조랭이란 말도 쓰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존이는 황애장사덜이 **조랭이** 팔러두 많이 땡겼구먼 시방이야 누가 **조랭이** 쓰남? 우리 어렸을 적인 **대조랭이**랑 **쇠조랭이**를 많이 썼어. 근디 독 골르넨 기계 나오구 나선 **조랭이** 귀경 통 못허게 뒀지.”

어느 어르신인 말씀처럼 지금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조랭이, 말이 멀어진 만큼 조랭이질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도 아스라한 추억 속으로 멀어져 갑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쓰던 말 둘만 골라 적어 봅니다. 살펴 지난날의 그리움 속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서는 기냥 **조랭이질**을 헨다구덜 허지, **조래미질**이라구는 잘 안허.”

“애를 들구 그렇기 **조랭이질**을 허다 다치믄 워쩔라구려?”

충청 지역에서는 ‘조리’를 ‘조래미’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조리질’을 ‘조래미질’이라 쓰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조랭이’가 ‘조래미’보다는 충청말스럽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아이를 들어 흔들어대는 것을 곡식을 이는 것에 빗대어 ‘조랭이질을 헨다’라고 했네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재미있는 충청의 비유어들이 그림습니다.

차귀와 짝새

“밤마두 쪽지비덜이 달기장 옆댕이를 찌웃거려싸서니 장이서 차귀[차
구에 하나 사왔어. 닥 채갈까미 불안히서 못 전디겼더라구. 근디 이느무
쪽지비가 차귀에 걸릴라나는 잘 몰르겠네.”

‘차귀’의 표준말은 ‘창애’인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차귀는 머구 창애는 또 머랴?”

“차귀는 알겠지먼 창애는 통 몰르졌구먼.”

할 거예요.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니 젊은 사람들은 더 모르
겠고요.

‘차귀’나 ‘창애’의 옛말은 ‘차오’고요. 이 ‘차오’는 ‘들짐승이나
산짐승을 먹이로 유인한 다음 채어 잡는 사냥 도구’를 가리키는 말

이에요. 서울지방에서는 이 말 뒤에 ‘ㅇ애’라는 접사가 붙어 ‘창애’가 됐고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 말 뒤에 ‘도구’를 뜻하는 접사 ‘귀’가 붙어 ‘차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 ‘차귀’를 이용해서 새도 잡고 쥐도 잡고 꿩이나, 노루, 산돼지까지 사냥하곤 했는데요. 잡으려는 짐승을 앞에 붙여 ‘새차귀, 지차귀, 꿩차귀, 노루차귀, 산돼지차귀’ 따위로 불렀어요.

이 ‘차귀’는 충남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말이고요.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차구, 차기, 짜귀, 짜기’라고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차귀’가 변형된 말들이에요. 우리 지방에는 다른 지방에서는 잘 쓰지 않는 ‘착쇠, 짝쇠, 짝새’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사냥도구인 ‘차’에 ‘쇠’가 붙어 된 말이고요. ‘차귀’가 사냥도구를 나타내는데 두루 쓰이는 반면, ‘착쇠, 짝쇠, 짝새’는 주로 노루나 산돼지처럼 큰 짐승을 잡는 쇠붙이로 된 사냥도구를 가리킬 때 썼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쓰던 말 몇 개 읽어보면서 사냥도구 ‘차귀’를 추억해 보세요.

“즈내 새**차귀**를 들구댕기더면, 그려 참새는 뗏마리나잡은겨?”

“애덜 지나넌 딴 **지차귀** 놓덜 말어. 저더러잡이가 광이다 **지차귀**를 낚다가니 애 발꼬락 뿐질렀대잖어.”

“냥구허러가넌 사람이 왜가이는 델꾸가서니 **짝쇠**에치게 헨다?나참, 눈먼노루잡넌다다다리뿌러진 개갑 물어주게 생겼어.”

대꼬바리, 담뱃대

예전 예산 대술의 우리 동네엔 딱 한 분의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수원 김씨의 집성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일가친척들이었고, 그 양반이란 분은 수원 김씨 가운데 향렬이 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 분이 양반이면 그 일가 형제분들도 양반이어야 하는데요. 많은 수원 김씨 일족 가운데 오직 그분 하나만 양반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양반이라 부르니까 그저 양반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커나면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에게 여쭙보았지요.

“아버지, 딴 사람덜은 다 쌍놈인디 왜 저 할아버지만 양반이래유?”

아버지는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어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양반이라 불렀대요. 남들에게도 자신을 양반이라 부르
 라 했대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수많은 놀림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자기는 양반이라 고집하며 양반 흉내를 내었대요.

그 양반 행세가 수십 해를 이어가니 사람들이 이름 대신 ‘양반’
 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분의 동네 친구들은 그를 ‘이놈, 양반
 아!’ 하고 불렀고, 젊은이들은 ‘양반어른!’ 하고 불렀어요.

그분은 평생 한복을 입고 사셨어요. 1970년대 근대화가 이루어
 지고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도 하얀 한복에 긴 담뱃대를 뒷목덜미
 에 꽂고 다녔어요. 늙어 허리가 굽자 앞에서 바라보아도 굽은 등
 위로 불쑥 솟은 담뱃대가 보이곤 했지요.

그분이 실제 양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끝끝내 양반으로 사시다가 양반으로 돌아가셨거
 든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한복의 앞가슴 소매 속에 감춰진 양
 손과 굽은 등 뒤로 솟은 담뱃대가 아련하게 떠올라요.

“아래뜸 양반네는 양반두 아니맨서 지가 양반이란 거 표시내너라구 노
 상 대꼬바리 장죽을 등이다 꽃구 땡기능겨.”

예전 동네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인데요. 그 시절엔 담뱃대를 ‘대
 꼬바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꼬바리’는 긴 담뱃대의 끝
 에 붙이는 쇠붙이 부분을 뜻하는 말이지요. 긴 대나무 담뱃대에 붙
 인, 담배를 담는 동그란 쇠붙이가 ‘대꼬바리’예요. 보통은 긴 담뱃

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지금은 들어보기 힘든 말이 되었지만 저는 어렸을 적 끝말잇기 동요를 부르곤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그 동요를 적어볼 게요.

‘야야아무싯디 담뱃대, 대대 **대꼬바리** 대장군, 군군 구두 신고 재지마,
마마 말래 밑이 숨었네, 내내 냇가이서 춤을 추다가, 가가 가재한티 물
려서, 서서 서서방네 갔더니, 니니 니만저만 허더라.’

메갱이

음력 8월 한가위가 지나고 9월이 오면 농촌의 들녘은 들썩였어요. 밭농사를 하는 동네에선 콩바심과 팠바심으로 도리깨가 바빠 돌아가고, 들에서는 배바심으로 밭동기며 탈곡기가 웅웅거렸지요.

봄날의 보릿고개가 지나고, 땀방울들이 냇물처럼 흘러내리던 여름날의 띄약벌도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면, 들녘에서 노랗게 물든 곡식들은 집안으로 들여졌어요. 가까운 집안들은 모여 시제를 지낸다, 시향을 지낸다, 시루떡을 이고 지고 조상들의 산소에 띄들렸고요. 산신제니 우물제니 하며 동제를 지내는 동네에서는 돼지를 잡고 떡을 찌냈지요. 조금쯤 넉넉한 집안에서는 시루에 떡을 안쳐 갈떡을 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옛 가을은 가난한 집안 아이들도 이래저래 떡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계절이었어요.

가을에 해먹는 떡 중에 가장 풍성한 것은 시루떡이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인절미였지요. 잔치라도 준비하는 집안이면 가마솥 가득 지어낸 찹쌀밥덩이를 커다란 절구통 안에 그득 채워 넣거나, 넓적한 떡판 위에 올려놓고 ‘메갱이’로 내리쳤어요. 이렇게 떡을 내리치는 공이를 ‘떡메갱이’라고 했지요.

‘메갱이’는 ‘메’의 충청말이지요. ‘메’에 ‘그러한 도구’라는 뜻을 지닌 ‘-갱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큰 통나무를 잘라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자루를 끼워 만들면 ‘나무메갱이’가 되고, 돌을 다듬어 자루를 끼워 만들면 ‘돌메갱이’가 되었어요. 서울사람들이 ‘떡메’를 들고 떡쌀을 내리칠 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떡메갱이’를 들고 떡쌀을 내리쳤지요.

이제 또 바심철이 다가왔어요. 들녘엔 베들이 풍성하고, 논둑이며 밭에는 콩과 팥, 수수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이 가을, 우리 충청도의 모든 이웃들이 떡메갱이를 내리치며 정을 나누는,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을 생각합니다.

개상, 흘태, 그네

* ‘베바심’할 때 쓰는 도구

가을이 깊어가고 베바심도 끝나가면서 들녘이 거무튀튀한 흑백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베바심은 베를 벨 것도 없이 트랙터가 베고 떨고 알곡까지 담아내지만, 내가 어렸을 적인 60년대만 해도 ‘개상’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개는 ‘호룽기’를 이용해서 베바심을 했지만, 적은 논농사를 하는 가난한 농가에선 호락질(일꾼을 부리지 않고 홀로 하는 노동)로 ‘개상’을 이용했지요. ‘개상’은 조선시대에 주로 쓴 타작 도구인데요. 큰 통나무에 튼튼한 다리를 박아 세우고 그 곳에 벅토매를 메쳐서 낱알을 떨어낼 수 있도록 만든 도구지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개상’은 큰 농사를 짓는 집에나 있는 것이고, 보통은 나무 절구통을 이용했어요.

가난한 농부들은 커다란 명석을 마당에 깔아놓고, 벅단 위에 절구

통을 누여 놓았어요. 그리고 끈 질긴 줄로 베토매를 감아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가 잔 절구통에 내려쳤지요. 그러면 낱알들이 우수수 떨어져 튀어 나갔어요. 그것은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하는 타작법이였지요.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바심 방식으로 ‘홀태’와 ‘그네’가 쓰였어요. 표준어에서는 이 두 말을 같은 말로 풀이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구분했지요.

‘홀태’는 나무판자에 빗살처럼 촘촘히 쇠꼬챙이를 세우고, 그 사이에 곡식의 이삭을 한 주먹씩 넣고 훑어 낱알을 떨어내는 농기구를 가리키는 충청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홀태’나 ‘홀치기’라고도 했어요.

‘홀태’의 표준어는 ‘그네’인데요, 우리 지방에서 말하는 ‘그네’는 보통 젓가락처럼 가늘고 긴 막대기 두 개를 집게처럼 만들어 그 사이에 벼이삭을 넣고 훑어내는 농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벼 닻 말에서 한 섬 정도를 훑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네’의 표준어는 ‘벼훑이’예요, 한자말로는 ‘도급기(稻扱機)’라고 하고요.

개상도 홀태도 그네도 지금은 쓸 일이 없어진 말이지만, 이런 말 속에는 지난 역사의 흔적과 옛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어요. 아래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잠시 옛날을 돌이켜 보세요.

“베토매지거나 짓년 사람덜이야 **홀태**를 쓰남? 징일 **홀태**루 홀트야 베 두어 섬 될까 말간디, 그건 농사처 죽은 사람덜이나 쓰닝 거여.”

“베바심이 낫나쁜 논바닥이 베이삭이 더러 떨어져 있잖은감? 그걸 한
주먹씩 주서다가 **그네루** 하나씩 흘트넌 거여. 젊은 사람덜은 안 쓰기 늙
은이덜이 쓰넌 게 **그네지**. 베 한 주먹두 이전인 참 구했잖어.”

암키와, 암캐와

*주의해야 할 표기법

오늘 오후에 어느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곳엘 갔는데 거기서 ‘암키와’라고 쓴 글을 보았대요. 전통 기와집을 지을 때 지붕의 바닥에 깔려 고랑을 이루는 기와를 ‘암키와’라 하고, 암키와와 암키와 사이에 엮는 기와를 ‘수키와’라 하잖아요. 그런데 쓸 때 ‘기와’ 앞에 ‘암’이 붙은 거니까 ‘암키와’라 써야지 왜 ‘암키와’라 썼냐는 것이예요. 맞춤법을 몰라 틀릴 만한 곳이 아닌데, 헛갈려서 전화를 했다는군요.

15세기 한글 창제 당시의 책에는 받침이 ‘ㅎ’인 명사가 적지 않았어요. ‘들(野), 앉(內), 암ㅎ(雌), 송(雄)’ 따위가 대표적인 말들이지요. 받침이 ‘ㅎ’인 경우 하나의 낱말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쓸 때는 ‘ㅎ’을 받침으로 쓰지 않았지만, 뒤에 다른 말이 이어질 때는 ‘ㅎ’을 살려 썼어요. ‘들’의 경우 홀로 쓸 때는 ‘들’

이 되지만, 조사가 뒤에 붙을 때에는 ‘들ㅎ+에→들혜’의 모양이 되었지요. 많은 세월이 지나 명사의 받침 ‘ㅎ’은 사라졌지만, 일부 소리값이 분명하게 남은 몇 개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암, 수, 안’ 따위예요. 이런 말 뒤에 다른 말이 이어지면 뒤에 오는 낱말의 첫 소리가 거센소리(ㄷ, ㅋ, ㅌ, ㅍ)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해요. ‘암+개→암개, 수+개→수개, 암+기와→암키와, 수+기와→수키와, 안+밖→안팍’ 따위가 그것이에요. 물론 ‘안+방’은[안팡]이 아닌 [안빵], ‘암+고양이’는 [암코양이]가 아닌 [암꼬양이]가 표준 발음이니까 ‘안방, 암고양이’라고 써야 합니다.

‘기와’의 충청말은 ‘개와’지요. 충청말 ‘개와’를 쓸 때도 같아요. ‘암+개와’는 ‘암개와’로 써야 하고요, ‘수+개와’는 ‘수개와’라 써야겠지요. 그리고 낱개로 된 개와는 ‘개왓장[개왓:짱]’, 개와로 지붕을 얹은 집을 ‘개와집’이라 했어요, 더러는 ‘개:집’이라고도 했어요.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날에는 개와집이 멋지고 늙름하게 보였어요. 예산군 예산읍의 대동병원 옆에 있던 열두 대문집, 아흔아홉 칸 개와집은 참 유명했답니다.

몽달구신과 삼태미구신

“**몽달구신**이라고 들어봤어? 글썄 **몽달구신**은 으름 밤이 풀썩이 삼태미를 들구 숨어있다가니 여자덜이 지나가믄 삼태미를 뒤집어 써서 혼을 빼간다. 그러서 **몽달구신**을 **삼태미구신**이라고두 한다.”

‘몽달구신’은 ‘몽달귀, 몽달귀신’의 방언이에요. 어린 날의 여름, 마당에 ‘땀방석(땃방석, 추수한 곡식을 말리기 위해 짚으로 엮어 만든 큰 방석)’을 깔아놓고 모깃불을 피워놓으면 동네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옛날얘기를 조르고, 간혹 운 좋게 들은 여러 옛날얘기 가운데 귀신이야기는 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지요. 물가와 버드나무 아래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엔 으레 손각시(치녀귀신)가 나오고, 여름 풀썩엔 몽달귀(총각귀신)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으름밤 동네 어귀라도 혼자 걷노

라면 길설 어둠 속에서 손각시가 ‘으호호’ 귀기어린 웃음을 흘리는 듯해 가슴이 서늘했고, 누나랑 함께하는 길이라면 몽달구신의 검은 삼태미가 튀어오를 것 같아 조마했어요.

‘몽달구신’은 ‘장가를 들지 못한 총각이 죽어서 된다는 귀신’이에요. 우리말 표준어는 ‘도령귀신’이고요. 우리 지방에서는 ‘총각구신’이라 많이 썼어요. 어둠 길을 가는 젊은 여자를 삼태기로 씌워 혼을 빼간다고 하여 흔히 ‘삼태미구신’이라고도 하지요.

‘삼태미’는 ‘삼태기’의 충청말이에요. ‘가는 싸리나 대오리, 짚 따위로 엮어 만들어 흙,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농기구’의 하나지요. 요즘도 농사짓는 마을엔 집집마다 하나쯤 마련되어 있고요. 삼태미가 들어간 다른 말에는 ‘삼태미그물’이 있어요. 삼태미그물의 표준말은 ‘삼태그물’이지요. 삼태미와 삼태미그물의 쓰임은 대개 아래와 같아요.

“보리감자 심을라든 씨감자허구 재를 담을 **삼태미**가 여럿 필요하여.”

“요 앞 뜰강이 피라미덜이 많걸래 **삼태미그물**을갓다가 많이 잡었어.”

끈내끼와 끈냉이

* 꼬아진 끈 ‘내끼’와 꼬아지지 않은 끈 ‘냉이’

‘끈내끼가 점 필요헌디.’

‘정일 시 타래의 **삿내끼**를 찢다.’

‘**사내끼** 다섯 발만 끊어와.’

‘침녕쿨을 삶구 벅겨내여 **노내끼**를 찢다.’

‘**끈냉이**를 점 구헤 와.’

‘바지 **끈냉이**가 풀어져 들구 흘러내린다.’

‘끈내끼’와 ‘끈냉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끈’을 뜻하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라고 나와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끈내끼’와 ‘끈냉이’는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도)에 두루 쓰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네요.

‘끈’의 사투리가 왜 두 가지일까요?

‘끈내끼’와 ‘끈냉이’가 같은 말이 되려면 접사 ‘내끼’와 ‘냉이’가 같은 뜻의 말이어야 해요. 충청 지방에는 ‘끈’, ‘끈내끼’, ‘끈냉이’의 세 개의 말이 같이 쓰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 말이 서로 달리 쓰여요. 그렇다면 ‘내끼’와 ‘냉이’도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접사가 되는 것이지요.

충청 서북지역의 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내끼’는 꼬아진 줄에만 붙어 쓰이는 말이고요, ‘냉이’는 꼬아지지 않은 줄에 붙어 쓰이는 말이에요. 간략히 정리하면 ‘끈내끼’는 ‘둘 이상의 줄을 꼬아서 만든 줄’을 뜻하는 말이고요. ‘끈냉이’는 본래 ‘하나의 끈으로 꼬아지지 않은 줄’을 뜻하는 말입니다.

위 예문에 나온 ‘삿내끼’와 ‘노내끼’를 보면 공통으로 ‘내끼’가 붙어 있지요. ‘삿내끼’는 ‘숨(풀이름)+내끼→삿내끼>사내끼’로 된 것으로 ‘풀짚을 꼬아 만든 끈’이라는 뜻을 갖는군요. ‘노내끼’는 ‘노/노끈(취죽기의 속껍질로 꼬아 만든 줄)+내끼→노내끼/노끈내끼’로 ‘노끈’이 취죽기의 속껍질을 꼬아 만든 줄이니까 뒤에 ‘내끼’가 붙었네요. 반대로 ‘끈냉이’는 대개 꼬아지지 않은 줄을 뜻해요. 그래서 꼬아서 만든 줄에는 ‘삿냉이, 노냉이’처럼 ‘냉이’를 붙일 수 없어요.

결국 ‘끈’은 긴 줄을 나타내는 말이고, ‘내끼’와 ‘냉이’는 꼬아진 줄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누어진 상대적인 말이 됩니다.

그도와 톱

예산과 대술 사이를 흐르는 인락산 아래 고새울이란 산마을에서 자라던 내 어릴 적에는 ‘톱’이란 말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산동네다 보니 산이 높이터였고, 산비탈(산비탈)을 돌며 뽕기(뽕비)를 뽑거나 성(싱아)을 꺾어 먹는 것이 주전부리였어요.

겨울이면 동네 사람들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지금이야 산에 나무가 우거져 있지만, 아궁이에 불을 때어 난방을 하던 시절에는 어느 산을 바라봐도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가을에 솔가지를 따놓았다가 겨울철에 저 내린 다던지, 아니면 오목낮(낮날을 양쪽으로 갈아세운 굽은 낮, 조선낮)을 갈아 어린 떡갈나무나 졸참나무 따위의 푸장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더러 억센 나무꾼들은 ‘그도’를 들고 높고 험한 산에

들어가 통나무를 해오기도 했어요. 통나무는 푸장나무나 솔가지보다 훨씬 무거웠고, 깊은 산에서 해 와야 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지요. 그만큼 통나무 짐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통나무를 ‘그도’로 자르고, 쿵쿵, 도치(도끼)로 장적(장작)을 빼개는 소리는 조금쯤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도’는 한자말이에요. 표준말은 ‘거도(鋸刀)’고요. ‘강한 쇠 거(鉅)’에 ‘칼 도(刀)’가 붙었으니 그대로 풀이하면 ‘강철로 된 칼’인데요. 한 쪽에 자루가 달려있고, 날이 강하고 엷나게 이어져 있어서 통나무나 판자같이 딱딱한 물건을 자를 때 쓰는 칼이에요. 금방 눈치채셨지요? ‘그도’는 ‘툽’의 한자말이고요, ‘거도’의 충청말입니다. 달리 ‘툽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충청지방에서는 ‘그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 그도질(툽질) : 그도로 나무나 물건을 자르는 짓.

※ 그덧날(툽날) : 그도의 날이 선 부분.

※ 그뚱밥(툽밥) : 그도로 나무를 켜거나 자를 때 쓸려나오는 가루.

그울과 색경

*어원과 배경

‘가서니 **그울** 점 봐라. 네 낫짜이 함진애비가 그셔져 있구나.’

‘오래된 **색경**을 꺼쳐먹었이니 이참이 새것이루 하나 장만히야겠네.’

‘색경’은 ‘거울’의 방언이지요. 예전 우리 고장에서는 ‘거울’이라는 말보다는 ‘색경’이란 말을 주로 썼어요. 그런데 ‘거울’과 ‘색경’은 낱말의 모양이 사뭇 달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표준말과 충청말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였어요.

그러면 ‘거울’과 ‘색경’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말일까요.

‘색경’은 ‘석경(石鏡)’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수은의 일종인 아말감을 발라 만든 유리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 쓴 것이 석경(石鏡:돌거울)이래요. 돌을 반

질반질하게 갈아 얼굴을 비춰본 것이지요. 이후 청동거울인 ‘동경(銅鏡)’이 나오고, ‘은경(銀鏡, 은거울)’이 나왔대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거울은 발전하여 왔지만, 처음 쓰던 말인 ‘석경’이 남아 쓰이면서 여러 거울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거울’은 ‘석경’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이에요. 돌을 갈아 얼굴을 비춰볼 수 있게 만든 도구를 ‘거울’이라 했고요. 이 거울을 한자어로 표시하니 ‘石鏡(돌거울)’이 된 것이지요. 결국 ‘거울’이나 ‘석경’이나 같은 뜻의 말이고요, 차이점은 우리말과 한자말이라는 것이에요.

한자말 ‘석경(石鏡)’의 옛날 발음은 [석끼웅]이고요, 충청말식으로 발음하면 ‘색경[색끼웅]’이 돼요. 충청어법에서는 뜻이 애매해지지 않는 한 편리하게 발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석경’보다 발음하기 쉬운 ‘색경’을 썼고, 이 ‘색경’이 더 쉽게 ‘색경’으로 변한 것이에요.

순우리말 ‘거울’은 ‘거우루’라는 옛말이 변한 것이에요. ‘거우루’에서 끝 모음이 ‘루’가 떨어지면서 ‘거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우루’의 충청말식 발음은 ‘그우루’예요. ‘거울’을 나타내는 충청말 ‘그울’은 ‘그우루’가 줄어든 말이지요.

정확하게 충청말 ‘그울’과 ‘색경’을 표준말과 대응시키면, ‘거울’과 ‘석경’이 됩니다. 물론 표준말 ‘석경’이 사라져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충청말 ‘색경’은 ‘거울’의 방언이 되기도 합니다.

저범과 적갈

* '젓가락'의 충청말.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 등이에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오래 전부터 젓가락을 썼는데요, 젓가락의 재질과 길이에 서로 차이가 있대요. 이는 젓가락이 각 나라의 음식문화에 따라 다르게 발달했기 때문이래요.

먼저 젓가락의 재질을 살펴보면, 한국의 젓가락은 대부분 쇠붙이로 만들어지는데 반해,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진대요.

젓가락의 길이는 각 나라의 음식 문화와 관련이 깊대요. 젓가락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중국의 젓가락이에요. 중국의 음식은 뜨거운 기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뜨거운 기름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젓가락이 길어졌을 거래요.

일본의 젓가락은 가장 짧대요. 한국처럼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짧은 젓가락이 유리하다네요. 일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고개를 숙이고 먹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라 하여,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한국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봤대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한대요.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밥상은 높을 필요가 없어 낮고요, 젓가락은 짧게 된 것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을 손에 들고 식사하는 일본인들을 보며 경박하다고 느낀대요. 한국 사람은 숟가락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상에 놓고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밥상은 일본 밥상보다 높고, 젓가락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 길이가 되었던대요. (출처: 위키백과사전)

‘젓가락’을 충청도 서북지방에서는 ‘저범’, ‘적까락’, ‘적깔’이라고 써요. 이 가운데 충청말다운 말은 ‘저범’이에요. ‘적까락’은 경기, 서울말인 ‘젓가락’이 발음하기 쉽게 변한 것이고요. ‘적깔’은 ‘적까락’의 준말이지요. 충청도에서 널리 쓰이는 말은 ‘저범, 저뵈’이고요. ‘저뵈’이 충남의 서남쪽지방에서 많이 쓴다면, ‘저범’은 서북부 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 ‘젓가락’을 예전에는 젓가락을 뜻하는 한자말 ‘저(箸)’에 가늘고 긴 꼬챙이를 뜻하는 ‘가닥(가락)’이 붙어서 된 말로 보았는데요. ‘저’가 과연 한자말인가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근거는 없어요.

일단 ‘젓가락, 저범’에서 ‘저’가 한자말인 가능성은 아주 커요. 우리나라 여러 지방 사투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저’가 들어가거든요.

‘채까락, 젓가락, 절가락, 저붓, 저뭉, 저범, 조뭉, 저번, 제뭉, 제분, 제뭉, 저까시, 저까치, 절까치, 절까치, 젓까치, 쩌’ 등이 전국에서 많이 쓰이는 ‘젓가락’의 방언인데요. 이들을 보면 모두 ‘저’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지요. 각 지방말에 ‘가락’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저, 지’의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저’가 한자말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방증일 수 있어요. 또한 중국어의 ‘箸’의 옛 발음이 [저], 또는 [주]여서 더욱 그럴 듯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문헌적 근거가 없어서 그 어원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조선시대 전반기의 문헌을 살펴보면 ‘젓가락’이 나와요. 이 ‘젓가락’의 ‘저’가 ‘箸’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우리말과 한자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문헌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 것이에요. 거기에 의심을 더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사대주의가 팽배하면서 한자말과 우리말의 발음 값이 비슷한 경우 우리말을 억지로 한자말에 붙여 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벼락치는 소리를 뜻하는 우리말 ‘우레’를 ‘雨雷(우뢰)’로 적는다면, 우리말 ‘생각’을 ‘生覺(생각)’으로 적는 억지들이 많았거든요.

‘雨雷’나 ‘生覺’은 확실히 우리말을 한자로 잘못 적은 것이지만, ‘젓가락’의 ‘저’도 우리말일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어, 무조건 한

자말로 이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새 국어사전에는 '젓가락'의 '저'가 한자말일 가능성을 표시하되, 한자 병기(併記, 한자말임을 표시하기 위해 한글 옆에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것)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래박과 등목/등떡

지겹게 비를 뿌리던 장마가 끝나간다. 다른 해보다 일찍 찾아와 더 많이, 더 오래 비를 뿌리고 간다.

장마가 이어질 땐 지겨운 장마야 얼른 가거라, 하다가도 막상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불볕이 내리고 무더위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요즘 젊은이들이야 에어컨을 틀거나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커피를 생각하겠지만,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겐 시원한 등목의 추억만한 것이 없다. 논일이나 밭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새얌에서 태라박으로 물을 퍼 올려 등에 뿌리던 기억의 시원함. 갈증으로 일렁이는 목을 태라박물에 정그고, 목을 타고 내리는 그 찬 새얌물을 온 몸에 내리붓던 시원함을 잊을 수 없다.

세월이 좋아지니 에어컨이 넘쳐나고 수돗물이 집안에 쿵쿵 쏟아

지지만,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힐 향수는 사라지고 없다. 타래박을 건져 올릴 새암이 사라지고, 맑고 시원하게 흘러가는 갯골물(개울물)을 본 지도 오래다. 퇴근한 저물녘, 집에 돌아와 땀에 진 와이셔츠를 벗어도 아이들은 내 등에 물 뿌려줄 생각을 하지 못한다.

목욕탕에 샤워기를 들고 온 몸에 물을 뿌려대는 일, 그것은 등목보다 훨씬 많은 물을 쓰지만 정작 시원하지는 않다. 목욕탕은 답답하다. 새암가에 엮드리면 누군가가 뿌려주는 썩아하고 넘쳐나는 차가움, 등을 밀어주는 누군가의 정감어린 손길이 없기 때문이다.

‘타래박’은 ‘두레박’의 충청말이고, ‘등목’은 표준말이다. ‘등목’을 충청에서는 ‘등떡’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떡’이 ‘목’의 옛말이니, 아마도 ‘등떡’이 ‘등목’으로 변할 것일 게다.

이제 무더위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새암이 사라지고 타래박이 사라지고, 맑은 냇갈(냇가)이 사라져 갔지만, 눈 돌리면 어딘가에서 맑은 계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드물게는 버려지지 않은 새암과 타래박도 있을 것이다. 이 여름엔 꼭 그곳에 가서 타래박에 목을 축이고, 우왓, 차거워라! 등목을 할 것이다. 누군가의 등에 새암물을 가득 뿌려줄 것이다.

괴타리씨름과 괴리띠

* ‘허리씨름’과 ‘혁명’의 충청말

‘괴타리씨름’과 ‘괴리띠’, 기억나시나요? 요즘이야 괴타리씨름을 하는 사람이 없고, 괴리띠를 매는 사람이 없으니 젊은 사람들은 아주 낯설겠지만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그리고 4-50대 분들도 시골에서 자랐다면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거예요.

1960년대엔 충청도 어디에서도 연탄을 때는 집이 흔치 않았고, 특히 산골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겨울이면 나무꾼들이 한 나절 민둥산을 헤매며 푸장나무를 베거나, 잡목을 베어 지고 산을 내려오는 것이 큰일이었지요. 농한기를 나무를 하거나 샷내끼를 꼬면서 보내다가, 힘이 빠진 젊은 친구들은 종종 힘내기를 하곤 했어요. 누가 지게질을 잘 하는가, 누가 벅섬을 잘 나르느냐가 입방아에 오르고, 여럿이 모이면 그 자리에

서 괴타리씨름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지요.

단오나 추석 명절에 벌어지던 큰 씨름판에서야 동네방네 내로
라하는 씨름꾼들이 굵은 살바를 허리춤과 가랑이에 매고 씨름을
했지만, 살바를 매지 않고 간편하게 힘내기를 하기엔 괴타리씨름
만한 것이 없었지요. 동네 사내아이들 모이는 곳이면 자치기가 이
루어지고, 으레 괴타리씨름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간혹 장냥끼(장
난끼)가 발동하면 씨름 핑계로 상대 괴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리기
도 했어요.

‘괴타리’는 ‘고의춤’의 사투리에요. ‘고의(袴衣)’는 남자들이 입
는 흠바지를 뜻하는 말이고, ‘춤’은 물건의 둘레나 높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고의춤’은 ‘바지의 윗부분이 닿은 허리쯤’을 나
타내는 말로, 쉽게 ‘허리춤’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이 ‘고의춤’을
우리 지방에서는 ‘괴타리’라고 해요. ‘괴’는 ‘고의’가 줄어든 말이
고, ‘타리’는 ‘춤’을 뜻하는 충청말인 것이지요. 이렇게 ‘살바 없이
괴타리를 잡고 간편하게 하는 씨름’이 ‘괴타리씨름’인 것이지요.
물론 ‘허리씨름’의 충청말이고요.

‘괴리띠’도 ‘고의(袴衣), 괴’에서 나온 말이에요. ‘괴리’는 ‘고
의’가 변한 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말 그대로 ‘바지가 흘러내리
지 않도록, 남자들이 괴타리에 매는 띠’가 ‘괴리띠’인 것이지요.
‘괴리띠’를 다른 충청말로 ‘허릿바/허립바’라고도 했고요, 표준
말과 같은 ‘허리띠’라고도 말했어요. 아래에는 예전에 흔히 쓰던

문장 몇 개 늘어놓아 볼 게요. 읽으시면서 예전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머 그리 바빠 **괴타리**두 추실르덜 못허구 싸댕기능겨?”

“이? **괴타리**가 온제 네려갔다?”

“야덜아, 닥덜 심심헌 것 같은디 이아저씨랑 **괴타리씨**를 한 판 혈터?”

“관 듀. 존차람 **괴타리씨**를 핑게루다가니 또 우덜 깝때기 벳길라닝 거
다 알유.”

“**괴리띠**가 너머 조여서니 답답허 죽것어.”

“잔칫상이 푸짐허니 **괴리띠**버텀 풀르야 쓰것네.”

고뽕이와 괴뽕이

* ‘고뽕’의 충청말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고뽕이’란 말을 들었어요. 어디서 많은 들은 익숙한 말인데? ‘고뽕이, 괴뽕이’ 중얼거리는데 머릿속에 소가 떠올랐어요. ‘고뽕이’를 생각하는데 왜 소가 떠오르지요? 인터넷에서 사전검색을 해 보았어요. 사전 검색에 ‘고뽕이’는 안 나오고, ‘괴뽕이’가 나오네요. ‘괴뽕이→고뽕의 충청말’.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을 다시 뒤졌어요. ‘고뽕이→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방에서 고뽕을 이르는 말’이라 나오는군요.

‘그렇지. 고뽕이는 소의 코뚜레줄이었지. 그래서 고뽕이를 생각할 때 소가 떠오른 것이었군.’

예구, 사람의 기억이란 게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아주 오래 된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고 오래 쓰지 않으면 머리에서 지워지네요. ‘고뽕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많은 그림들이 스쳐가네요. 어릴 적 장으로 팔려가는 새끼소와 헤어지던 에미소의 눈물. 사흘 밤낮 팔려간 에미소를 찾다 목이 쉬어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입만 벌려 외치던 목매기(코뚜레를 하지 않은 어린 소)의 애담. 코를 뚫고 코뚜레를 처음 댈 때 큰 나무에 빠짝 목이 조여 매인 채 몸을 뒤틀며 울던 마지막 목매기의 외침. 큰 바위들을 매달고 동네길을 오가며 생매기(길들여지지 않은 젊은 소)를 길들이던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 돌아보면 옛그제 일 같은데, 논밭에서 사람과 함께 하던 소가 사라지고, 집집마다 기르던 오양간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오가던 우리말도 소와 함께 사라지고 있어요.

‘고삐’는 코뚜레에 이어진 줄이지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고뽕이’와 ‘괴뽕이’란 말이 함께 쓰였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충청 서북 지방에서는 ‘괴뽕이’ 보다는 ‘고뽕이’를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고뽕이’는 옛말 ‘곶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곶비’는 지금 표준말인 ‘고삐’가 되었고요. 충청도에서는 ‘곶비’에 ‘-앵이’라는 말이 붙어 ‘곶앵이→고뽕이’가 되었어요. ‘괴뽕이’는 ‘고뽕이’가 말하기 쉽도록 변한 말이고요.

예전 이우지 어른들의 대화 한 토막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이느무 쇠새끼기가 **고뽕일** 잡아댕겨두 펄펄 뛰구 자빠졌네.”

“**괴뽕이**를 설 잡으니까 간보구 그러닝겨. 코뚜레 밑일 배짝 틀어줘 봐, 앞다리 꼭 꿇을 테니까.”

“그러다가 우리집 성헌 생매기 앞다리 부러지는 꼴 불라는감?”

따깡, 따깡이와 뚜껍이

* '뚜껍'을 나타내는 예산말

“콜리를 마실래는 따깡버터 따야지.”

보통 '뚜껍'의 충청 사투리가 뭐지?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해요.

‘그야 따깡이지, 뭐겠어?’

라고요.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쓰는 말에 귀 기울여보면 말할 때의 상황이나 어르신에 따라 말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표준말 '뚜껍'은 '그릇이나 상자의 입구를 막는 물건'을 뜻하는 말로 두루 쓰이는데요. 우리 충청말은 좀 더 자세하게 말이 나누어져 있어요. 표준말 '뚜껍'의 충청 서북지역의 사투리에는 크게 다섯이 있는데요. '따깡, 따깡이, 뚜껍, 뚜껍이, 떠깡이(더께)'가 그것이에요. 이런 말들, 대개 어르신들에게서 한 번쯤 들어본 말들이지

요? 그러면 이 다섯의 말이 다 똑 같은 말일까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말임을 알 수 있어요.

병의 뚜껑을 ‘병뚜껑이’라고 한다거나, 장독이나 항아리의 뚜껑을 ‘꼬치장독 따깡, 된장항아리 따깡’이라고는 안하니까요. 대충 알겠지요? 그래요. 충청말에서는 그릇이나 상자의 아가리 크기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이예요.

작은 뚜껑부터 큰 뚜껑으로 정리해 볼 게요. 살펴보면서 잊혀져 가는 우리말을 되새겨 보세요.

① ‘따깡, 따깡이’는 병처럼 입구가 작은 것을 덮는 뚜껑이예요.

“이느무병**따깡**이 왜 이렇기 안 따지능겨?”

“병을 또 쓰야허닝께 **따깡이**를 버리덜 말어.”

② ‘뚜껑, 뚜껑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널리 쓰이는 데요. 주전자나 밥사발처럼 입구가 중간 것일 때 주로 써요.

“주전자 **뚜껑**이 오딜 갔다?”

“화딱지가 난다구 밥**뚜껑**일 집어던지믄 오티기여?”

“단지는 놔두구 **뚜껑**이만 들구 내빼믄 뵈허냐?”

③ ‘떠깡이’이는 큰 독의 입구를 막는 덮개를 뜻해요. 아가리가 작은 주발이나 병 따위의 입구를 막는 것에는 쓰지 않지요.

“하늘이 구름이 잔뜩헌디 누가 고치장 **떠깡**이를 열어줬다?”

※ ‘더깨’라고 ‘큰 뚜껑’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 더 있는데요. 이 말은 ‘넝개’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뚜껑’의 사투리로 정리하지 않았 습니다.

칭칭다리와 칭칭대

* ‘계단, 층계’의 충청말

높은 건물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 공간을 ‘층(層)’이라고 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를 ‘칭’이라고 하지요. 층이 둘이면 ‘이칭’,
층이 열이면 ‘십칭’이 되지요.

“난 암만히두 심칭허구 인연이 많은개 벼. 사년 아파트두 삼칭
이구, 사무실을 이사히도 맨날 삼칭이루 험다녕께.”

‘층’을 ‘칭’으로 쓰는 것은 말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충청도
에서는 당연하게 ‘층’이 들어간 말은 다 ‘칭’이라고 하지요.

“칠갑산 꼭대기 올라가는 **칭계**가 무자게 높더먼. 거 올라가다가니 관절
나가년 중 알었어.”

“백화점일 가보닝께 **칭칭**마두 물건을 싸놓구 파넌디 참 베라벨 것 다
있더먼.”

“손상놈이 되개지구 말여. 공부 못 헨다구 애덜을 **칭하**헨다년 게 말이 되남?”

요즘은 ‘층계, 층층, 층하’라고 쓰지만 예전에는 모두 ‘칭계. 칭칭, 칭하’라고 썼지요. 이렇게 ‘칭’이라 쓰는 말 가운데 ‘칭칭다리, 칭칭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표준말도 ‘층층다리, 층층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닌 것도 같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누구도 ‘층층다리, 층층대’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계단’이나 ‘층계’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칭칭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가서 내려오다 보문 다리가 막 후칭거린다 닝께.”

“이전이야 기단이라던 말버더 **칭칭대**라구 많이 헸지. **칭칭다리**라구두 헸구.”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계단(階段), 층계(層階)’는 한자로만 이루어진 말이고, ‘층층다리’는 사람들에게 쉬운 한자말 ‘층층’에 우리말 ‘다리’가 붙어서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계단, 층계’보다는 ‘층층다리, 층층대’가 더 쉽게 이해되고 실감이 나는 것이예요. 그런데 서울, 경기지방에서 ‘계단, 층계’가 많이 쓰이다 보니 이 말이 번져 더 좋은 우리말이 쓰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잘난 남의 자식이 못난 내 자식만 못해요. 외국말, 외래어가 멋

저 보여도 내 나라말보다는 못해요.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 것만 못한 것, 누가 뭐라 해도 내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살강과 실경

며칠 전 사무실 앞에서 한 남자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은 큰 통나무를 반듯하게 켄 아주 무거운 나무판을 옮기고 있었어요. 나무판을 잠시 사무실 앞에 놓고 땀을 훔치는 모습에 나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그 분은 인사를 받고 나서 내게 물었어요.

“혹시 **살강**이란 말 알유?”

“찬장 말씀이쥬?”

“아니, 찬장허군 쫄쫄 분위기가 달브쥬.”

지금이야 서양식 부엌 구조에 개수대가 참 편리하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우물물을 떠다가 조리를 했잖아요. 지금의 개수대와 같은 부뚜막에는 밥상

이 놓여 있고, 밥그릇과 국그릇이 가지런히 놓였지요. 벽에는 여기 저기 못을 박아 조리 기구를 걸어두었고, 부뚜막의 위쪽에는 ‘살강’이 있어서 온갖 그릇과 도구들이 얹혀 있었어요.

‘살강’은 ‘채래식 가옥에서 그릇이나 조리 기구 따위를 얹어놓기 위해 부엌의 벽 중턱에 드러놓은 선반’이지요. 한 마디로 ‘찬장(饌櫃)’의 순우리말이에요. 이 말은 충청 사투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써온 표준말이에요. ‘찬장’이란 한자말에 밀려 사라져 가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충청도에서는 현대식 찬장도 ‘살강’이라 불렀어요.

‘살강’과 비슷한 뜻을 가진 말에 ‘실경’이 있어요. ‘실경’은 ‘살림살이 도구를 얹어놓기 위해 방 벽이나 마루 벽을 가로질러 놓은 두 개의 긴 나무’를 뜻하는 충청말이지요. ‘어디에 물건을 얹어 놓다’는 뜻의 ‘싹-(싹다→실다, 신다)’에 ‘무엇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접사 ‘-영’이 붙어서 된 말이에요. ‘싹+영→실경’인데요, 표준말은 ‘시렁’이에요. ‘싹+영’에서 ㄱ이 떨어져 나간 것이 표준어지요. 충청말 ‘실경-(시렁)’은 ‘선반’이란 말과 같이 쓰이다가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살강’과 ‘실경’은 모두 ‘살림살이 도구를 얹어놓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데 조그만 뜻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싱크대, 찬장 같은 외래어보다는 순우리말을 살피고 쓰는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씻대와 열대

“열대를 오따 두구 찾는겨?”

“그리기유. 열대를 자물통이다 꼬져둔 것 같은디 오디루 도망갔내유.”

“갈출 나닝께 동네마두 도둑놈덜이 슬치구 땡긴다. 그렇게 광 씻대 잘 챙기야허.”

요즘이야 다들 열쇠다, 자물쇠다 하지만 사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충청 지방에서는 ‘열대’와 ‘자물통’을 주로 썼지요. 좀 더 이전으로 가면 ‘열대’만큼 ‘씻대’라고도 많이 했고요. 열대니, 씻대니 자물통이니 하는 말들은 꼭 우리 지방에서만 썼던 말은 아니고요. 이 말들은 전국에 두루 쓰이던 말이었는데, 서울에서 쓰는 ‘열쇠’와 ‘자물쇠’에 밀려 쪼그라 들었어요.

‘열대, 씻대’라는 충청말과 ‘열쇠’라는 표준말은 거의 같기 때문에

쉽게 표준말을 따라가고 말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대’는 ‘막대기’를 뜻하는 말이니 충청말 ‘열대, 쇯대’는 ‘자물통을 여는 막대기’, 또는 ‘자물통을 여는 쇯막대기’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요. 예전의 열쇠는 요즘처럼 되어 있지 않고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었으니 딱 알맞은 말이네요. 이에 비해 표준말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쇯’이라는 뜻을 갖지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쁨을 겨루긴 어렵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쓰이던 말이 한 지방말에 불과한 서울말이 아니란 이유로 사라져가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억울해요.

이 억울함은 ‘자물쇠’와 ‘자물통’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예전 서울에서는 주로 ‘자물쇠’를 썼고요. 지방에서는 주로 ‘자물통’을 썼어요. 그런데 이 두 말은 모두 표준말이 되었어요. ‘표준어규정’을 보면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말이 널리 쓰이면서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지방말인 ‘자물통’이 표준말이 되었거든요. 사실 이 규정에 따르면요, ‘열대’나 ‘쇯대’도 표준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열쇠 못지않게 전국에 널리 쓰이고 있었고요, 표준어 규정에 뚜렷한 문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표준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아무 잘못도 없이 좋은 내 말을 버리고 표준말을 따라가는 것도 속상합니다.

꾸레미와 실꾸리

옛 문헌에 기록된 ‘꾸러미’의 옛말은 ‘쁘레’예요. 이 말을 지금 소리로 발음하면 [끄레]와 비슷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싸서 묶어 놓는 것을 ‘쁘린다[끄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변해서 지금은 ‘꾸린다’가 되었어요. ‘꾸러미’는 이 ‘꾸리다’에서 나온 말로 ‘무엇을 싸 묶어놓은 물건’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 꾸러미를 우리 충청도에서는 ‘꾸레미, 꾸리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가찬디두 아니라매 야가 시방먼 **꾸레미**를 그렇기 크게 허녕겨?”

“애덜 옷을 점 챙겼더니 **꾸레미**가 커졌유. 무건 거 아니닝께 걱정허덜 말유.”

처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과 붙어 쓰이면 ‘실꾸레미’나

‘실꾸리미’가 되기보다는 대개는 ‘실꾸리’가 돼요.

“야가 **실꾸리**를 오따 처박어 논 거? 암만 찾아두 이느무 **실꾸리**가 오딜
갔나 통 뵈덜 않네.”

처럼요. ‘꾸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요. 전라, 경상, 강원도 지역에서는 많이 쓰인데요. 이것을 생각하면 예전에는 우리 지방에서도 ‘꾸레미’ 못지않게 ‘꾸리’가 많이 쓰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표준어에서는 ‘실’과 ‘꾸러미’가 각각 떨어진 낱말로 구분하여 ‘실의 꾸러미’가 되는데요. 우리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실을 감아놓은 ‘실패’를 나타낼 때도 ‘실꾸리’라고 흔히 말해요. 그래서 표준어처럼 두 말이 아니라 하나의 낱말(합성어)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4부
사물과 장소

검부락지, 지푸락지

“워딜 쏘댕기다 왔넌디 **검부락지**를 잔뜩 붙인 겨?”

“정일 베바심을 헐더니 **지푸락지**가 머리 위다가 까치집을 쪼구먼.”

우리 충청말에는 명사 뒤에서 ‘-락지/-럭지’라는 말이 잘 붙어 쓰여요. 이 말은 ‘그러한 사물에 해당하는 것,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란 뜻을 가진 접사지요. 표준말에서는 주로 ‘검부러기, 지푸라기, 부스러기’처럼 ‘-아기/-어기’가 붙어 쓰이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락지/-럭지’가 붙어 ‘검부락지, 지푸락지, 부스러지’라고 쓰는 것이예요.

서울말은 충청도로 내려오면 충청도의 말웃으로 갈아 입어요. 그래서 ‘검부러기나 지푸라기, 부스러기’가 충청도에 오면 ‘검부레기, 지푸레기, 부시레기’가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좀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서울말을 쓰려고 애써왔고, 그 덕에 충청도엔 서울말을 닮은 말들이 많아졌어요. 지역적으로 서울경기와 인접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더 비슷해지고, 오래 함께 쓰다보니 이제는 ‘부시럭지’가 충청말인지, 서울말이 변한 ‘부시레기’가 충청말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졌지요.

이제 가을도 저물어 가고 있어요. 들녘엔 바심하는 트랙터들이 큰소리로 떠들고 거둬들이는 일손들은 바빠졌어요. 예전에는 낮으로 벼를 베고 논둑에는 산처럼 날가리와 동가리를 쌓았는데요. 마당과 논에 탈곡기를 돌리며 종일 일하다 보면 온 하늘이 뿌연 검불로 가리웠어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머리 위엔 허연 지푸라기가 가발처럼 덧씌워져 있었지요.

농사를 업으로 살아오던 시대가 빠르게 밀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떠났지만, 농사는 여전히 생명의 터를 가꾸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근본이에요. 마을이 도시가 되고 농토가 도로가 되어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언어도 수없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언어들은 이 시대의 삶이고 바탕이에요. 충청도 분들, 잠시 예전으로 돌아가 삶의 터를 살펴보세요.

몸디기, 티검불

경기도 파주에 언니가 사는데, 어느 날 마루에 뽕양게 쌓인 먼지를 보면서 말을 해요.

“마루에 웬 놈의 **탐새기**가 이렇게 많다.”

이 말을 곁에서 들은 젊은 남자가 물어요.

“아주머니, **탐새기**가 무슨 말이래요?”

오랜 가물이 장마에 밀려가는 7월, 예산 신례원에 사신다는 어르신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시집가 파주에 사는 언니가 충청도 사투리를 참 잘 쓰는데, 얼마 전 파주에 갔다가 ‘탐새기’란 말을 들었다고요. 그러니 ‘탐새기, 몸디기, 헛대’ 따위의 충청말에 대해 글을 써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탐새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이 있으니, 몸디기에 대해 글을 써볼 게요.’ 라고요.

‘탑새기’와 ‘몸디기’는 모두 ‘먼지나 티끌’을 뜻하는 충청말이에요. 두 말 다 진짜 예산과 청양을 중심으로 한 충청 서북부 지방에서 쓰이는 토박이말이랄 수 있어요.

먼저 표준말 ‘먼지’와 ‘티끌’을 나타내는 충청말 몇 개 소개할 게요. 충청 서북부 지방에서는 ‘먼지’를 ‘몬지, 몸지, 티검불, 몸데기(몬데기), 몸디기(몬디기)’ 따위로 써요. 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 다섯 가지 말 가운데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골라 쓰지요.

이 가운데 ‘몬지, 몸지’는 가장 흔히 쓰이는 말로 충청 전지역과 전라도 지방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몸데기’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경기도 사투리에요. 천안, 온양, 예산 등은 차령산맥 이북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기도 남부 말이 많이 섞여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몸데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쓰여 왔지요. ‘몸디기’는 ‘몸데기’가 진짜 충청말 식으로 변한 것이라 생각해요. 충청말은 ‘웅덩이→웅덩이, 궁둥이→궁뎅이→궁딩이, 굴약정이→굴약쟁이>굴약징이(구락징이)’처럼 말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여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디기’는 충청도 먼지를 나타내는 특별한 말이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의 뜻 차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몬지, 몸지, 몸데기, 몸디기’는 ‘먼지’의 사투리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

도로 작은 티끌'을 뜻하는 말이고요. '탐새기, 티검불'은 '틔검불'의 사투리로 '작은 먼지에서부터 조금 큰 검부래기(검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 말을 짧은 글로 설명하려니 어려움이 있네요. 우리 충청말을 돌아보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길 생각하면서, 일부러 전화를 주신 신례원의 이윤구 여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담배락이 무너지다

태풍 불라벤이 지나가던 8월 28일 오후, 조심스레 차를 몰며 예 산읍내를 한 바퀴 돌았다. 군청 앞을 지나려니 바람에 날린 물건들로 지날 수가 없었다. 시장 골목엔 바람에 떨어져 나온 조립식 지붕의 양철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가로수 잎들은 길옆마다 쌓여 있었다.

‘이런 모습이라면 과수 농가들 피해가 아주 클 거야. 이제 막 붉은 물이 들어가던 사과들 열에 둘은 떨어질 거야. 몸집이 큰 배는 열에 넷은 떨어지겠지. 신레원과 신암 등지엔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은데 또 얼마나 많은 하우스들이 발가벗겨졌을까?’

안타까운 상념으로 천변로를 지나 평화2차아파트 옆을 지날 때였다. 붉은 벽돌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다. 보도블록에 잇대어 설치한 아파트 울타리 벽 10미터쯤이 태풍과 빗물에 견디지 못하고 길

가로 넘어진 것이다. 나도 모르게 충청말이 튀어 나왔다.

“이구, **담배락**이다 무너졌네.”

‘담배락(담빠락)’은 ‘담벼락’의 충청말이다. ‘돌이나 벽돌로 쌓은 담이나, 담의 겉면’을 우리 충청지방에서는 ‘담배락’이라 한다. ‘배락’은 ‘가파른 기울기를 지닌 벼랑’의 뜻을 지닌 옛말 ‘뵤’에서 나온 말로 생각된다. 표준말을 살펴보면 ‘담(담장)+뵤(벼랑)+악(접사)’이 ‘담벼락’으로 된 것으로 보는데, 이 ‘담벼락’이 우리 충청도에서는 말하기 쉽게 ‘담배락/담빠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담배락을 ‘담부락(담뿌락)’이라고 말하는 어르신도 적지 않다.

‘무너지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말이다. 이 말의 표준말은 ‘무너지다’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충청말엔 표준말에 없는 ‘무니다’란 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무니다’에 ‘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 ‘무너지다’다. 충청말 ‘무니다’의 표준말은 ‘무느다’인데, 사실 요즘 이 말은 서울에서조차 쓰이지 않아 옛말의 잔재로만 남아 있다.

태풍 불라빈이 지나니 덴빈이 또 달려온다. 큰 피해로 상처 입은 분들 힘내시고, 명든 이웃들 서로 보듬어서 모두 맑고 파란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길 생각한다.

첫눈과 고도롬

“날이 갑작시리 눈을 퍼쟁이구 취나닝께 **고드래미**덜만 살판 닐구면.”
“거 머리 조심하. 그러다가 **고드래미**헌티 이마 깨지년 수가 있다니께.”

작년부터 마른장마로 가물기만 하더니, 비가 많이도 내리는 올 가을이네요. 동짓달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 눈이 내리고요. 늦 가을 많은 비들이 날이 취나니 눈이 되었어요. 첫눈이라 가슴이 설레기는 하는데 많이 내려 길이나 미끄럽지 않을지, 갑자기 추워져 몸이나 움츠러들지 않을지 걱정도 되는 12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날이 취나는 12월, 어릴 적 어르신들의 말씀을 추억하다 보면 ‘고드래미’가 떠올라요. 어린 나는 ‘고도롬’이라고 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드래미’라고 쓰곤 했던 기억.

예전엔 학교에 다니지 못해 까막눈인 어르신들이 참 많았고, 그

래서 어르신들은 표준어를 알지 못하고 옛날부터 써오던 충청말을 그대로 간직하며 썼는데요. 세상이 바뀌어 다들 학교에 다니며 표준말을 배우고, 그 표준말에 익숙해지다 보니 충청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서울말을 따라갔어요. 그러다보니 ‘고드래미’가 잊혀지고, 표준말 ‘고드름’과 닮은 ‘고도름’만 남았어요. 아마 세월이 더 흐르면 ‘고도름’도 ‘고드름’으로 바뀌겠지요.

“나랑 **고도름** 칼쌈 한 판 허자구? 근디 그 **고도름**이룬 나헌티 찻두 안 될 걸?”

어릴 적 고도름을 따 서로 푹푹 부딪치며 놀던 생각이 나네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고 늙고 하는 것이니 말도 변하는 게 순리겠지요. 다만 우리의 지난 삶이 소중하듯이 우리가 쓰던 충청말도 소중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 소중한 삶과 말들이 따뜻하게 소통하는 올겨울을 생각합니다.

뜯강과 갱굴

* ‘도랑, 개울’의 충청말

‘뜯강’과 ‘갱굴’은 작은 물길을 뜻하는 말이지요. 표준말로는 ‘도랑’과 ‘개울’이에요.

1970년대 말에 나는 예산읍 사작골(사직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예산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자취집 앞에는 개울이 있었어요. 그 개울은 관모산 줄기에서 시작한 작은 뜯강이었다가 지금의 석탑, 유익아파트 자리에 있던 제사공장 뒤로 지나가면서 큰 갱굴이 되어 무한천에 합류했지요. 그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뜯강물에 세수를 하고, 그 옆 방죽에서 우람한 바위들과 그 밑에 치성을 드리는 점집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토요일이면 나는 아리랑고개를 넘어 사직동을 지났어요. 마차길이 나 있는 아리랑고개를 넘어 지금의 신성아파트 아래쪽의 골짜기로 들어서면 예산농업전문대학 뒤쪽으로 흘러가는 가는 갱굴

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길이 골짜기 사이로 이어지고, 깊게 패인 골짜기 속에 맑은 물이 평평 솟아나는 곳이 있었지요.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터를 만들어두고 솟아나는 뜰물(작은 개울물)에 빨래를 하곤 했어요. 거기서 시작한 뜰(도랑)은 옛 농업전문대학 뒤쪽으로 흘러 예산성당 옆을 지날 때는 제법 큰 갯골물이 되어 있었지요. 그 긴 협곡엔 큰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길을 따라 지금의 분수대가 있는 차부로 가는 길은 참 호젓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예산읍에서 뜰강과 갯골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와 시멘트에 묻혀 구경할 수가 없네요. 그 시절 맑게 흐르던 뜰물과 내가 자취하던 집은, 산 밑으로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주공아파트와 세광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모두 사라졌어요. 아리랑 고개 밑에서 농업전문대학 쪽으로 흐르던 갯골과 골짜기도 수많은 건물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 세상도 변하는 것이 이치겠지만, 더러는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맑고 정겨운 것들이 사라져갈 땐 속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아래 문장을 읽어보면서 ‘뜰강’과 ‘갯골’에 추억해 보세요.

“오밤중이 오딜 땡겨오능겨?”

“장마가 지나서 갯골물이 맑아졌잖유. 목간 점 허구 오년구먼유.”

“뜰을 치넌디 가재가 디글디글허잖어. 그리서 잡아다가 한 잔 헛어.”

“가물이 심허닝께 **똥강**이구 **갱굴**이구 다 말러붙었구먼.”

“**똥강** 치구 가재 잡던 시절이 다시 왔으믄 좋것어.”

뚝생이는 높고 튼튼히야

오늘 오후에 평소 충청말에 관심이 많은 분이 찾아와 ‘뚝생이’를 아느냐고 묻네요. 안다고 했더니, 충청남도 예산말사전에 실리지 않았길래 알려주는 것인데요. 반갑고 고마워서 ‘뚝생이’를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차를 타고 나갔어요. 신레원 현대아파트에서 신암쪽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 무한천을 건너야 하네요. 양쪽으로 높은 제방이 쌓여 있고, 물이 흐르는 곳 위로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때 아내가 말을 걸어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여기가 무한천 맞아?”

“이, 무한천이여.”

“전에 무한천이 넘쳐서 상수원 은골하고 신원리쪽 많이 잠겼었ندی, 지

금 보니까 **뚝생이**가 무지 높고 폭두 무지 넓으네.”

“평소엔 다리 아래로 흐르다가 큰물로 수문이 열리면 다리 위허구 뚝 위루 물이 넘쳐 흐르는 거.”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넓게 했나 싶지만, 홍수에 버틸라든 개울폭이 넓구 **뚝생이**가 높은 게 좋은 거네.”

‘뚝생이’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쌓아올린 언덕’을 뜻하는 충청말이에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이나 바다 주변에 쌓아 올린 언덕도 뚝생이고,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돌이나 흙으로 쌓아 올린 언덕도 뚝생이지요. 이 ‘뚝생이’의 표준어는 ‘뚝’이고요, 한자 말로는 ‘제방(堤防)’이에요.

‘뚝생이’는 제방을 뜻하는 ‘뚝’에 ‘그러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 ‘성이’가 붙어서 된 것이지요. 만약 ‘뚝생이’에 어울리는 표준말이 있었다면 ‘뚝성이’가 되었을 것이에요. ‘뚝’은 ‘뚝’이 강해진 말이고요. 이 ‘뚝성이’가 말하기 쉽도록 변한 것이 ‘뚝생이’지요. 예산의 대술이나 신앙쪽으로 가면 ‘뚝싱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뚝싱이’는 뚝생이보다 더 말하기 쉽도록 변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쉽게 변화시켜 쓰는 충청도의 말방식을 어법에서는 ‘전설모음화’나 ‘이모음동화’라고 해요.

뜻이 불분명해서 다른 말 뒤에 붙어 쓰이는 접사 ‘-성이’는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충청도에서는 모두 ‘생이’나 ‘싱이’가 되어 표준어에 비해 말하기가 간편해지지요. 이러한 방식에 따라 표준

어 ‘등성이’는 충청도에 와서 ‘등박이/등생이→등배기/등싱이’가 되고요, ‘똥투성이’는 ‘똥투생이→똥투싱이’가 돼요. 물론 ‘허풍선이’는 ‘허풍생이’가 되고, ‘털북숭이’는 ‘털북생이→털북싱이’, ‘원숭이’는 ‘원생이→원싱이’로 되는 것도 다 같은 원리랍니다.

이제 장마철이에요. 충청도의 모든 ‘뚝생이’들이 튼튼하게 관리되고, 물 관리가 잘되어 큰비에도 걱정 없는 여름나기를 생각합니다.

세지름, 시질목

* '삼거리(三距離)'의 충청말

며칠 전 대술에 사는 형이 나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 대술면 꺾곡리에 광역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려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기로 했대요. 그런데 알맞은 문구가 떠오르지 않아 나한테 물어보려고 왔다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 중에

“근디 그 프랭카드는 맹글어서 오따 붙일 건디유?”

내가 물었어요.

“이, 다만(마을 이름) 아래 쇠지름이다 붙이야지.”

‘아, 맞다. 충청말에 ‘쇠지름’이란 것이 있었지.’

어려서 수없이 들어왔던 ‘쇠지름’. 그런데 그 뜻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시 물었어요.

“근디, 성. **쇠지름**은 어려서니 많이 들었넌디, 그 뜻이 뭐였지?”

“잉? 그거 삼거리 아녀.”

그렇네요. 나는 어려서 이웃 어른들에게 ‘쇠지름’이란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컸는데, 오래 듣지 못하고 쓰지 않는 동안에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형의 얘기를 들으니 발음은 [쇠지름] 같지만 바르게 따져보니 ‘세지름’이군요. ‘세’는 셋을 나타내는 말이고, ‘지름’은 ‘질러가다, 지름길’을 뜻하는 말이네요.

나는 형하고 헤어지기도 전에 종이를 찾아 바로 메모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세지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을 찾아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쉬 만날 수가 없네요. 예산읍내에서 어르신 몇 분을 만나 여쭙보았는데 이 말을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여쭙 보았어요.

“엄니, **세지름**이라구 아시쥬?”

“**쇠지름**? 쇠괴기에 붙은 지름 말여?”

“아니유. 삼거리를 뜻허년 **세지름** 말이유.”

“이, **시질목** 말이구먼. 근디 그걸 **세지름**이라구 했나?”

“예구, 가년 시월이 장사 읍다더니 엄니두 그새 **세지름**을 까잡셨구먼유.”

그렇지만, 또 하나 건졌네요. ‘시질목’. ‘시(三)+질목(길목)’으로 흔히 삼거리를 일컫는 충청말이지요.

아무튼 어머니에게서 ‘세지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대술로 달려가서 내가 아는 충청말 전문가 중수할머니와 상미할머니를 찾았어요.

“중수할머니, 상미할머니, 지가 사투리 하나 여쭙보게유. **세지름**이라구 아시쥬?”

“**세지름?** **세지름**이 뭐여?”

“아니, 삼거리를 **세지름**이라구 허잖유. **시질목**이라구두 허구유.”

“이, **세지름**. 그거 가다가니 질이 둘루 갈리지닌 디 아녀?”

“아니, 근디 그거 몰르던 사람이 오딧다? 넘덜 다 아년 걸 왜 물어보능겨?”

그렇네요. 대대로 충청도 산골에 살며, 세상이 다 표준말로 덮여가도 내 말(충청말)만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세지름, 시질목’이 이렇게 생생한 말이었군요.

문득 두 분을 바라보니, 심한 몸살을 보름 동안이나 앓아누웠다가 겨우 일어나셨다는 중수할머니가 바짝 구부러진 등을 지팡이로 겨우 지탱하고 있어요. 그 옆 상미할머니도 허리 뒤춤에 손을 얹고 굽은 등을 추스르고 있어요. 그 모습이 굽어 스러지는 우리 충청말만 같아서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안창과 안짱

오늘, 자고 일어나 핸드폰을 보니 대전 친구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네요.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전화를 하니, 친구가 충청말 세 개를 찾아서 알려주네요.

“너 **안창**허구 **꼬작지**, **영고개**가 뭐 말인지 아냐?”

“**안창**허구 **꼬작지**는 알겠넌디, **영고개**는 뭐여?”

‘영고개’라는 고개가 자기가 살던 고향 동네에 있는데, 그 뜻은 자신도 잘 모르겠다네요. 그 친구 살던 곳이 예산군 응봉면 ‘쇠월’이란 동네라는데, 일제시대(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금곡리(金谷里)’가 됐대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라도 동네의 옛 이름을 찾자 하면서 주민들이 ‘금곡(金谷)’을 우리말로 바꾸었는데요, 옛 동네 이름인 ‘쇠월’을 놓치고 ‘쇠골[쇠꼐]’로 바꾸었대요. ‘울(월)’은 골짜기를 나타내는 옛 충청말인데, 어

떻게 ‘월’을 ‘골’로 바꿔놓을 수가 있느냐고 속상해 하네요.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더 그릇되었으니 듣는 나도 답답하지요.

아무튼 친구의 이런 전화를 받으니 속이 따뜻하네요. 그 동안 내가 찾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잊지 않기 위해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불펜을 찾아 ‘안창, 꼬작지, 영고개’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먼저 ‘안창’을 정리합니다.

‘안창’은 ‘안(內)+창(접사)’의 형태를 가진 말로 표준말이면서 충청방언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안창 : 신의 안쪽 바닥에 까는 가죽이나 형겔 따위’라 풀이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안창’이 ‘신발창, 깔창’을 이르는 경우엔 표준말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충청도에서는 ‘신발창’을 ‘안창’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창’하면 ‘옷의 안쪽에 들어가는 천이나 형겔, 또는 동네, 산, 골짜기 따위에서 깊이 들어간 안쪽’의 뜻으로 써요. 그러니 충청말 ‘안창’은 형태나 어원에서는 표준말과 같지만, 표준말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표준말이 아니에요.

‘안쪽’은 ‘안’에 방향을 나타내는 ‘쪽’이 붙은 말이고요. ‘쪽’은 ‘쪽’의 충청말이므로 표준말은 ‘안쪽’이에요. 아래 문장을 보면서 잊혀가는 충청말 ‘안창, 안쪽’을 추억해 보세요.

안창①

“산막(山幕)은 저 산 **안창**이루 쓱 들어가믄 있유.” (산막(山幕)은 저 산 깊은 곳으로 쓱 들어가면 있어요.)

“그 **깊은 안창**이두 사람이 살구 있는가?” (그 깊은 안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 동굴은 위엄허니께 **안창**이룰랑 들어슬 생각 말어.” (그 동굴은 위엄하니까 깊은 안으로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

안창②

“지는 호랑 **안창**이 다 터져서니 암 꺼두 늘 수가 없유.” (저는 호주머니 안쪽이 다 뚫어져서 아무 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심발 **안창**이 다 떨어져서 비만 오면 줄줄 샌다닝께.” (신발 바닥창이 다 떨어져서 비만 오면 줄줄 샌다니까.)

안창③ 표준말

“엄니가 내년까장 신으라구 크다런 심발을 사줘서니 **안창**을 두 개나 깔았네유.” (엄마가 내년까지 신으라구 커다란 신을 사줘서 안창을 두 개나 깔았어요.)

안짜①

“저 **안짜**이루 돌아가슈. 갱굴 따러 한참 들어가다 보믄 그 **안짜**이루 동네가 뵈 쩌.” (저 안쪽으로 돌아가세요. 시내를 따라 한참 들어가다 보면

그 안쪽으로 동네가 보일 거예요.)

안짜②

“한 달 개용돈이 10만원 **안짜**인디 그 비싼 것을 내가 사겼는감?” (한 달
용돈이 10만원 안쪽인데 그 비싼 것을 내가 사졌는가?)

안침이다 짚이두 송켜놨네

나는 1969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얼마 쯤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 저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대술 우체국에서 발행한 저금통장이었는데, 거기엔 내 이름이 예쁘게 찍혀있고 1원이 저금되어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은 저금통장을 학급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저금을 하면 좋으니 1원짜이라도 돈이 생기면 통장과 돈을 선생님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는 돈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 동네엔 가게가 없었고, 돈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주전부리는 철마다 나오는 열매기(과일)나 푸성가리, 또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개떡이나 누리미(부침개)였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뒤에야 학교의 앞과 뒤에 송방(松房, 가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서는 학용품이며 갖가지 주전부

리를 팔았어요. 돈이란 것을 몰랐으니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할 줄도 몰랐다가,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 들어가서야 알았어요.

나는 학교에서 만든 저금통장을 엄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음날 엄마는 내게 5원짜리 푸른 종이돈을 쥐어주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엄마는 저금하라며 5원짜리 종이돈을 내게 주곤 했어요. 설날 같은 명절 때엔 10원짜리 붉은 종이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나의 통장은 첫 장을 넘기고 둘째 장을 넘어가고, 수많은 숫자들과 그 돈들이 더해진 숫자가 300원을 넘어 쌓여갔어요.

3학년의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학교에 저금하라며 할머니께서 10원짜리 종이돈을 내게 주셨어요. 방학이라 금방 선생님에게 전할 수 없어 나는 10원짜리 종이돈을 통장에 끼운 뒤 형제들 모르게 잘 감춰두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는 저금을 하려고 통장과 돈을 찾았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도움을 구했지만, 끝내 나는 통장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금통장을 보여주며 쌓여가는 돈을 자랑할 때마다 나는 속이 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저금통장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졸업식이 다가올 즈음, 선생님은 아이들이 6년 동안 저금한 돈을 찾아 나눠주었어요. 3년 전에 통장을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300여 원이 640원이 되어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떠나고, 할머니가 평생 함께하던 조그만 퀘짜 속에서는 생전의 할머니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퀘짜의 맨 아래에서 3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저금통장이 나왔어요. 그 속에는 3년 동안 눌러 뺏뺏해진 붉은 10원짜리 종이돈도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통장과 돈을 내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참, 퀘짜 안침(안쪽 깊은 곳)이다 짚이두 승겨냈네.”

언서리와 엉서리

* ‘언저리’의 충청말

충청말 ‘언서리, 엉서리’의 표준말은 ‘언저리’예요. ‘언저리’는 ‘중심에서 떨어진 둘레의 바깥 부분, 또는 어떤 수준이나 정도의 위아래쯤’을 이르는 말이지요.

‘언저리, 언서리’는 ‘사방을 빙 둘러싸다’란 뜻을 가진 말 ‘에우다(韋)’와 ‘자리(席)’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에우+ㄴ+자리→에운자리’가 본래 모양이니까, 말 그대로 ‘빙 둘러싼 자리’를 뜻하는 말이지요. 이 ‘에운자리’가 서울지방에서는 ‘언저리’로 변했고, 충청도에서는 ‘언서리’로 변한 것이예요.

보통 충청 서북지방에서는 ‘언서리’가 주로 쓰이는데요. ‘엉서리’라고도 많이 해요. ‘엉서리’는 ‘언서리’가 변한 것인데요. ‘언서리’보다 발음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쓰였어요.

이 ‘언서리, 엉서리’는 흔히 ‘언설, 엉설’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이 많아요. 그것은 ‘언서리, 영서리’를 ‘언설, 영설’에 조사 ‘이’가 붙어 ‘언설+이, 영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단어의 형태를 잘못 이해하여 생긴 말인데요, 이런 말은 어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소리말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잘못 쓰는 경우가 곧잘 생긴답니다.

아래 문장을 읽으면서 잊혀져가는 충청말 ‘언서리’와 ‘영서리’를 떠올려 보세요.

① “우리 애뭇 봤유?”

“아까 핵겨 운동장 언서리서 혼자 어실렁그리던디 여적까장 집이 안 들어갔대유?”

② “그냥반이 발 영서리다가니 뽕냥구를 죽 심더먼.”

“발 영서리다 냥굴 심으은 그늘썌서 곡석덜이 안 자랄 건디 그 냥반 이 고연헌 짓거릴 허넌 것 같어.”

모갱이와 모탱이

“**상모갱이**에 안지른 복 떨어지는 거. 얼릉 바루 안져.”

“**모갱이** 안지른 왜 복이 떨어져유?”

“**상모갱이**는 곁뱅이나 안지낸 자리여. 그러닝께 복 떨어지는 거지.”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겨울날로 기억해요. 밖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와보니 방 안이 시끄럽군요. 마실꾼들이 많이 모여서 고구마를 상에 올려놓고 드시고 있었어요.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어른들이 ‘너도 일루 와서 감자(고구마) 점 먹어라.’ 하고 권했어요. 네 모난 상의 네 면은 이미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상의 모서리 부분에 끼어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랫목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무어라 하시는군요.

위 대화는 그때 할머니와 나눈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말씀을 들

으며 ‘상모서리에 앉으면 복이 나가서 거지가 되나보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음식 먹는 자리에서는 편하고 바르게 앉아 먹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이해돼요.

‘모갱이’와 ‘모텡이’는 ‘모퉁이’의 충청말이에요. ‘모가 난, 각이 진’의 뜻을 가진 ‘모(方, 角)’에 ‘모가 나거나 울퉁불퉁한 성질을 지닌’의 뜻을 가진 ‘갱이’가 붙어서 된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갱이’는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나 구석진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모텡이’는 서울말인 ‘모퉁이’를 ‘모텡이>모텡이>모텡이’의 모양으로 닮아간 말이지요.

이 말은 ‘산모갱이(산모퉁이/산모룽이), 길모갱이(길모퉁이), 상모갱이(상모서리)’ 따위로 쓰이다가 ‘산모텡이, 길모텡이, 상모텡이’를 거쳐 지금은 거의 서울말처럼 변했어요.

“상모서리에 앉으면 복이 떨어지는 거야. 얼른 바로 앉아.”

“모서리에 앉으면 왜 복이 떨어져요?”

“상모서리는 거지나 앉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복이 떨어지는 거지.”

‘산’과 붙어 쓰이는 말

충남 예산군은 산맥과 들판이 서로 이어진 고장이예요. 동쪽에서 북서쪽과 서남쪽으로는 길게 차령산맥이 이어져 흘러요. 북서쪽으로는 아산에서 안락산과 도고산, 토성산으로 이어져 금오산에서 차령의 한 줄기가 끝나고요. 서남쪽으로는 아산시 송악면과 예산군 대술면을 가로지르는 봉수산과 천방산, 극정봉의 차령 지류가 차동고개와 공주시 유구읍 사이를 지나 청양의 칠갑산으로 이어져 흐르지요.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의 외곽이 이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서쪽에 덕산면, 봉산면이 서쪽 분지인 가야산을 등지고 있고, 대흥면은 봉수산을 등지고 있어요. 반대로 오가면, 삼교읍, 고덕면, 신암면은 당진시의 우강들과 합덕, 신평들로 이어져 예당의 너른 평야를 이루고 있지요.

이렇게 산과 들이 어우러진 예산은 평야가 많은 지역과 산이 많

은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 조금 달라요. 산촌인 대술면, 신양면 등에서는 산이나 비탈에 대한 말이 많이 쓰이고, 신암면, 삼교읍, 고덕면 등에서는 들판과 논농사에 관한 말이 많이 쓰이지요.

나는 대술면에서 자랐고, 아내는 고덕면에서 자랐는데요. 나는 표준말보다는 충청말을 많이 써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표준말을 거의 쓰더니, 같이 살다가 나에게 물이 들었는지 어졌는지 요즘은 나만큼이나 충청말을 써요. 나는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고덕의 말이 당진말과 많이 닮아 있고, 대술말은 차령산맥으로 이어지는 천안말과 많이 닮았구나를 생각하곤 해요.

그런데 가끔은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내는 산골에서 자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나는 아내의 고덕 들판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 아내는 산에 관련한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금방 못 알아들은 두세 개의 말에 대해 다음 장에 풀어볼까 해요. ‘산’에 관련된 말, ‘말랭이’, ‘비얇’, ‘등백이’ 따위 인데요. 같이 생각해보고 재밋게 이야기 나눠 보시지요.

산-말랭이

* '산마루, 산꼭대기'의 충청말

'말랭이'이는 '마루'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을 뜻해요. 표준말은 '마루'고요. 한자로는 '종(宗)'이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종교(宗教)를 믿으며 살아간다는데요. 이때 종교의 '종(宗)'이 '마루'를 뜻하는 말로 '종교'를 한자의 뜻대로 풀이하면 '마루가르침'이 되네요. '삶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말랭이'는 '마루'에 '-앵이'라는 말이 붙어 된 것이에요. '마루 + 앵이 → 말랭이'로 된 것이지요. 이 말은 경기도의 일부 지방과 충청의 북부 지방에서 많이 쓰는 방언이에요. 대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많이 쓰고 들은 말이라서 별 애깃거리도 안 되겠지만, 젊은 분들은 많이 까먹거나 못 알아듣는 충청말 가운데 하나지요. 이 '말랭이'가 붙어 많이 쓰이는 말에는 '산말랭이'와 '고

갭말랭이'가 있어요. 잊혀져가는 우리 충청의 말, '말랭이'의 쓰임을 살펴봅니다.

① **말랭이**(마루) : 산의 봉우리. 또는 우뚝 솟은 곳의 꼭대기.

“저 두 **말랭이** 사이루 질이 나 있넌디 그리루 넘어가든 산막(山幕)이 있어.”

② **고갯말랭이**(고갯마루) : ‘고개(嶺) + 바(사잇소리) + 말랭이(宗)’. 언덕의 꼭대기.

“이전인 저 **고갯말랭이**에 큰 증자낭구랑 스낭당이 있었다.”

③ **산말랭이**(산마루) : 산의 등성이와 등성이를 잇는 봉우리. 산의 맨 꼭대기.

“그전인 낭구가 구여서니 높은 **산말랭이**까장 낭굴허러 땀겼넌디, 시방은 불을 때지 았으닝께 산이 낭구가 지천이여.”

산-비얇

* '산비탈'의 충청말

'비얇'은 요즘 거의 사라져서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한테서도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4-50대 이상의 어른들도 '비얇'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비얇'은 '산이나 언덕 따위가 많이 기울어진 상태나, 그렇게 기울어진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제 '비얇'의 표준말이 뭔지 알듯하지요? 그래요. '비얇'은 '비탈'의 충청말이에요. 앞 장에서는 '말랭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말랭이'는 '산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 말랭이에서 골짜기로 이어진 기슭은 경사가 아주 가파르지요. 그렇게 산에서 가파른 기울기로 이어진 곳을 '산비얇'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세가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비얇지다, 비얇졌다' 라고 해요. '비얇'이 붙어 쓰이는 말은 위 말

외에 ‘비알질’, ‘비알밭’ 따위가 있어요. 이런 비알이 들어간 말들을 보면서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① **비알**(비탈) : 산이나 언덕 따위가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 또는 그렇게 기울어진 곳.

“**비알**이서 돌팍덜이 막 굴러네렸어.”

② **비알밭**(비탈밭) :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밭. 또는 경사진 언덕배기나 산을 일궈 가꾼 밭.

“**비알밭**이다 쑤수랑 들째 모종을 점 했지.”

③ **비알지다**(비탈지다) : 지세가 몹시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다.

“어덕이 **비알**져서니 댕이기가 되게 심들지?”

④ **비알질**(비탈길) : 비탈진 산길이나 언덕길.

“갈짐을 지구 **비알질**서 자빠져설래미 다리가 툅 뿌러졌다.”

⑤ **산:비알**(산비탈) : 산기슭의 비탈진 곳.

“낭구허다가 **산비알**서[산뻬알서] 장관 쉬넨디 말여. 밭 옆이서 큰 독사 새끼이가 썸바닥을 늘름그리구 있더라구. 내가 월매나 놀랬넨 중 물러.”

산-등백이와 산-어덕

* '산등성이, 산언덕'의 충청말

“안락산 **등백이**를 넘어가믄 말여. 그 아래 수철리 저수지가 있어. 그러구 그 앞이루 덕봉산이 안락산이랑 마주보구 우뚝 서 있넌디 그게 참 장관이라니께.”

“예전인 수철리가 산고랑팅이에 처백허서 봐두 앓혔넌디, 요짐은 안락산이루 이서진 **어덕배기**에 번쩍번쩍헌 집덜이 여러 채 주욱 들어서 있다닝께. 그게 벨장덜인디, 땅금땅끔두 무지 올렀다.”

충청말을 정리하다 보면 세상이 둘로 나누어진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충청도에 살고 충청말이 우리말인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에게는 충청말이 너무도 익숙해요. 이미 거의 쓰이지 않는 말들인데도 어르신들의 마음과 입에 생생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

런데 요즘 충청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충청말이 참 낯선 경우가 많아요. 낯설다 못해 이상하기도 하고, 웬지 지금 세상에는 전혀 필요치 않은 남의 말로 들리기도 할 듯해요.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우리 충청말을 사이에 두고, 어른들의 세상과 아이들의 세상이 따로 움직이는 듯해서 ‘나는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과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일까?’ 하는 회의에 잠겨요. 그러다기는 ‘잊고 있던 옛 충청말을 통해 어릴 적의 모습을 돌이키고 추억에 잠길 수 있었다.’는 어르신 말씀들을 들으면 슬퍼지기도 해요.

표준말이 당당한 만큼 우리 충청말도 같이 당당할 수 있기를 생각해 봐요. 물론 그럴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충청말을 정리하며 좋은 충청말들이 더러 표준어의 지위를 얻기를 바래요.

‘산등백이’는 ‘산등성이’의 충청말이에요. 산의 말랭이(봉우리)와 말랭이를 이으며 달려 나가는 산줄기, 길게길게 이어진 산의 능선이 ‘산등백이’예요. ‘등백이(등성이)’가 ‘산의 능선’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산에 붙어 쓰이는 것이지요.

‘산어덕’은 ‘산+어덕’으로 된 말이지요. ‘어덕’의 표준말은 ‘언덕’이에요. 산처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얕(비탈)지고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산어덕’은 ‘산에 언덕처럼 생긴 곳’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표준말은 ‘산언덕’이고요. ‘어덕’이 붙어 쓰이는 말에는 ‘어덕배기(언덕의 속된 말)’, ‘독어덕(돌들이 언덕처럼 쌓인 곳)’, ‘어덕질(언덕길)’, ‘어덕밥(한쪽을 높게 안쳐서 지은 밥)’, ‘어덕이마(언덕처럼 불쑥 튀어나온 이마, 앞짱구)’ 따위가 있습니다.

‘구멍’을 뜻하는 충청말

* ‘구녕, 구녁, 구먹’

문제 하나 낼 게요.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고요, 나도 궁금해서 같이 생각해보려고 내보는 문제예요.

※ 다음 세 말 가운데 표준말 ‘구멍’의 충청말은 어느 것일까요?

- ① 구녁 ② 구녕 ③ 구먹

위의 셋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청말일까요? 아니면 세 말 모두가 충청말일까요? 헷갈리네요. 어릴 적에 나는 ‘구녕’이란 말을 가장 많이 들은 듯한데요. 말하는 이에 따라 누구는 ‘구녁’이라 하고 누구는 ‘구먹’이라고도 했어요. 또 누구는 세 말을 모두 자연스럽게 쓰곤 했지요.

결국 책을 뒤져 찾아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을 듯해요. 그런데

여러 언어책과 국어사전을 뒤져도 신통한 답이 보이질 않네요. 문헌에 따르면 ‘구멍’의 옛말은 ‘굶’, 또는 ‘구무’군요. 이것이 후대로 가면서 ‘구멍, 구덕, 구녕, 구녁’으로 갈라진 것으로 생각돼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무’에 ‘영, 억, 녕, 녍’이란 말(접사)이 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말을 붙여 쓴 것이지요.

지방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서울) 지방에서는 ‘구멍, 구덕, 구녁’이 같이 쓰였대요. 우리 충청도 지방에서는 ‘구덕, 구녁, 구녕’이 같이 쓰였고요. 전라도에서는 ‘구덕, 구녁’이 주로 쓰였대요. ‘구녕’은 서울과 전라도에서는 많이 안 쓰였지만,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쓰였대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구녕’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인 듯한데, 안타깝게도 표준말은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쓰이던 말인 ‘구멍’이 되었어요.

우리말의 명사 뒤에 붙는 접사에는 ‘-영, -억’이 많은데, 그래서 학자들이 ‘구덕’과 ‘구멍’ 가운데 ‘구멍’을 선택한 듯싶고요. 표준어 사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지방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그리된 것으로 이해되지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덕’이 가장 충청말답다고 생각해요. 충청도는 경기도와 가까워서 말이 서로 비슷하고요, 경상도 말보다는 전라도 말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요. 아마도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일 거예요.

다음 장에는 '구녕, 구녀, 구떡'이 다른 말과 어우러져 합성어를
이룰 때 들어가는 '사이 ㄱ'에 대해 살펴볼 게요.

구녕, 구녕, 구먹

*동음화와 다양한 사잇소리

우리 충청도는 서울, 경기와 지리상 인접하고 있어서 서로 말이 비슷해요. 경상말이나 전라말과 비교해보면 충청말이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닮아 있지만 큰 차이도 있어요.

서울말에 비해 충청말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충청말에서는 동음화 현상이 두루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음화(同音化)는 앞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서로 닮는 것을 말해요. 앞뒤의 소리가 닮아지면 혀나 입을 덜 움직이고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죽이다'가 있다면 충청말은 '췌이다'가 돼요. 뒤에 오는 'ㅣ'에 맞춰 앞 모음 'ㅈ'에 'ㅣ'를 붙여 'ㅣ'와 비슷한 'ㅈㅣ'가 되게 하면, 말하기가 참 편해져요. 그래서 충청지방에서는 '죽이다'보다 편하게 '췌이다', 또는 '직이다'라고 말하지요. 이

렇게 말하기 편하도록 앞뒤 소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말하는 것을 ‘동음화(같은소리되기)’라고 해요.

표준말에도 동음화가 있지만, 충청말에서는 거의 모든 말에 동음화를 허용해요. ‘구멍’을 뜻하는 충청말인 ‘구먹, 구녁, 구멍’도 앞말에 따라 거의 예외 없이 동음화가 일어나요. 특히 표준말에 있어서 사잇소리를 ‘ㅅ’ 하나로 통일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말에서는 동화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잇소리가 쓰이지요. 앞의 예로 ‘코, 귀, 밭’을 들어 볼게요.

- ① 코+ㄱ+구먹, 구녁, 구녕→콧구먹, 콧구녁, 콧구녕.
- ② 귀+ㄱ+구먹, 구녁, 구녕→귀구먹, 귀구녁, 귀구녕.
- ③ 밭+구먹, 구녁, 구녕→밧구먹, 밧구녁, 밧구녕.

①과 ②는 사잇소리가 ‘ㄱ’이 쓰였네요. 이는 뒤에 ‘ㄱ’이 오기 때문에 사잇소리를 맞춘 것이에요. 사이 ‘ㅅ’을 쓰면 소리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소리내 보세요. ‘콧구먹’보다야 ‘콧구먹’이 훨씬 편하지요. ③은 받침 ‘ㅌ’이 뒤에 오는 소리를 닮아 ‘ㄱ’이 되었어요. 원래의 소리를 뒤에 오는 소리에 맞춰 바꾼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동음화 현상은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편하도록 조정돼요. ‘콧구녕’하였다가, 뒤에 ‘등’이 붙으면 말하기 쉽도록 ‘콧등[콧똥]’이 되고요, ‘밭’이 붙으면 ‘콧밭[콧물]’이 돼요.

물론 표준어에서는 ‘ㄱ, ㅂ’ 따위의 사잇소리를 인정하지는 않

아요. 그래서 국어학자들은 충청방언의 이러한 동음화를 ‘변자음화’라 해서 따로 구분하는데요. 얼핏 충청말은 같은 말이 여러 소리로 바뀌니 어법이 정돈되지 아니하고 흐트러진 듯 보이지만, 그것은 표준어 어법을 기준으로 할 때의 얘기에요. 사실 ‘말하기의 편리성’을 기준으로 충청도식 어법을 바라보면 우리 충청말은 그 규칙성이 참 잘 갖춰져 있는 말입니다.

말지기, 뽕박지기

안락산의 여러 자락에 끼어있는 우리 동네 고새울은 논이 귀했
어요. 산줄기 사이로 흐르는 가는 개울 옆으로만 좁다란 논다랭이
(논다랑이)가 계단처럼 놓여 있었어요.

봄이 오면 아버지는 췌나락을 담갔어요. 큰 함지박 몇 개에 물을
담아두고 아버지는 췌나락을 '닷 말 담글까, 옛 말 담글까' 잠깐씩
고민하곤 했어요. 그리곤 벧가마니를 가늠해 함지박에 나락을 쏘
았어요. 늘 반 가마니가 좀 넘는 양이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췌나락을 얼마 담갔는가를 보
고 그 사람이 짓는 농사의 양을요. 그래요. 어릴 적 내 아버지가 농
사지은 논의 크기는 닷 말지기에서 옛 말지기 사이였어요.

장날이면 어머니는 장고개를 넘어 예산장엘 가요. 장고개는 여
러 산등성이를 지나 즈불과 비병골로 이어져 있어요. 그 사이 좁은

골짜기 가운데 ‘췌다랭이골’이 있어요. 췌 개췌 되는 논다랭이가
이어져 있는 곳이라서 붙은 이름이래요. 논다랭이가 얼마나 작은
지 췌다랭이를 다 이어 붙여도 백 미터도 안 될 지경이에요.

‘저 논은 무지 짝은디 뻗 말지기 논이나 되까요?’

내 말에 어머니는 대답해요.

‘저건 **뻗박지기**두 못 되닌 거여.’

‘말지기’의 표준말은 ‘마지기’예요. 한자어로는 ‘두락(斗落)’이
라고 하고요. ‘한 말의 범씨를 뿌릴 만한 크기의 땅’이라는 뜻이지
요. 토양의 질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달라져서 보통 150평에서
300평 사이의 땅에 해당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대략 200평을 한
마지리라 하지요. ‘말지기’는 ‘말(斗)+지다(落)’에서 생긴 말이니
까 표준말 ‘마지기’의 본래 말이지요. 지금은 우리 지방에서 ‘말지
기’는 거의 사라져서 듣기가 꺾 어렵게 되었어요.

‘뻗박지기’의 표준말은 ‘되지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뻗박지
기’와 ‘되지기’가 같이 쓰여 왔어요. ‘되(升, 뻗박·되’의 방언. 또는 한
되의 물건을 담을 만한 크기의 바가지)’는 ‘말(斗)’의 십분의 일이잖아
요. 그러니 말지기보다 열 배가 작은 ‘스무 평 안팎의 작은 땅’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습지기, 삭갓지기

‘지기’를 요즘말로 하면 ‘뽕씨를 떨어뜨리기’나 ‘뽕씨를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지기’는 ‘한 말 분량의 썬나락을 뿌릴 만한 크기의 땅’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되지기’는 ‘한 되는 썬나락을 뿌릴 만한 크기의 땅’을 나타내는 말이 되지요.

‘습(섭)’은 ‘말’의 열 배가 되는 양을 담을 수 있는 가마니예요. 한자어로는 ‘석(石)’이라고 하고요. 예전 나락의 무게로 따지면 90킬로그램, 양으로 따지면 18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자루(가마니)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지기(섭지기)’는 ‘말지기(마지기)보다 열 배가 되는 크기의 땅’으로 대개 2,000평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농사를 짓는 경우에 쓰는 말로 ‘닷습지기, 열습지기’ 따위로 말했지요.

‘이전이 어느 짙은 산꼬랑텡이서 십여 다랭이에 모를 내년 농사꾼이 있었다. 어느 헨가 부지런히 모를 찌다가 정일 모를 냈다. 해가 스산이 넘어갈 적쯤 되서니 산꼬랑텡이 다랭이논에 모가 총총히 다 꺾혔다. 허리를 쪽 피구 지가 심은 모를 죽 내려다보닝께 농사꾼의 맴이 흡족했다. 그리서 모낸 다랭이를 하나들 시봤넌디, 어이쿠, 이게 웬일이라? 암만 시봐두 다랭이 하나가 부족한 겨. 시구 또 시구 해지구 어뒤질 적까장 시 봐두 다랭이 하나가 부족한 겨. 농사꾼은 예구 오쩌다가 다랭이 하나를 잃어버렸을꾸? 허맨서니 농구를 챙기구 바닥이 벗어났던 삭갓을 짚어 들었넌디, 어이구머니나! 고 삭갓 밑이 다랭이논 하나가 숨어 있더라. 잃어버린 다랭이논을 찾었다구 농사꾼은 기뻐서니 오래더락 그 얘기를 허구 댕겼다. 그리서 그 담버턴 동네 사람덜이 그 다랭이논을 **삭갓 지기**라 불렀다너먼.’

이 이야기는 청양에 사는 친구한테서 들은 것인데 재미있어 옮겨봤어요. ‘삭갓’은 ‘삿갓’의 충청 방언이고요. 그러니깐 ‘삭갓지기’는 ‘삿갓이나 모자에 덮여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의 땅’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쭈지기’니 ‘주먹지기’니 하는 말도 쓰는데, ‘뒹박지기’와 함께 ‘아주 작은 크기의 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겹고 고운 ‘돼지울간’

* ‘돈사(豚舍), 돼지우리’의 충청말

‘돼지울간을 고친다더니 고친 게 아니라 더 부셔놨구먼!’

‘애덜이 왔다가더니 집안이 원통 돼지울간이 되빠렸네.’

‘돼지울간(돼지울칸)’은 참 멋지고 고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표준말은 ‘돼지우리’인데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충청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돼지우리’와 ‘돼지울간’을 함께 써왔지요. 그런데 표준말이 보급되면서 ‘돼지울간’이 사라져가고, ‘돼지우리’가 점차 많이 쓰이는 듯싶더니 언제인가부터는 ‘돈사(豚舍)’라는 이상한 한자말이 ‘돼지우리’마저 몰아내 버렸어요.

‘돼지울간’은 보통 ‘돼지우리’와 같이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의 뜻으로 쓰여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뜻의 차이가 있

어요. ‘돼지우리’는 ‘돼지’에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이란 뜻을 가진 ‘우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우리’는 ‘울’에서 온 말이고요. 요즘은 이 ‘울’에 ‘타리’가 붙은 ‘울타리’가 흔히 쓰이고 있어요.

우리 충청말 ‘돼지울간’은 ‘돼지울(돼지우리)’에 ‘집’을 뜻하는 말인 ‘간’이 붙어서 된 말이에요. 보통 ‘울/우리’는 ‘울타리로 주위를 두르고 짐승을 기르는 곳’을 뜻하는 말이므로, ‘돼지울(돼지우리)’은 ‘울타리를 둘러 돼지를 기르는 곳’이란 뜻의 말이 되지요. 이에 비해 ‘돼지울간’이라 하면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얹은 돼지의 집’이란 뜻의 말이에요. 따라서 ‘돼지우리’와 ‘돼지울간’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서로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지요.

충청의 서북 지역인 예산과 홍성은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기르는 지역인데요. 요즘은 어찌된 까닭인지 ‘돼지우리’나 ‘돼지울간’처럼 좋은 우리말은 어디로 사라지고, 돈사(豚舍)나 축사(畜舍)니 하는 이상한 한자말이 기를 펴고 있네요. 필요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말이긴 하지만, 정겹고 고운 우리말이 사라지고 낯선 한자어나 외래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참 속상한 일입니다.

말과 마실

* ‘동네, 마을’의 충청말

요즘은 충청도의 시골 분들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마을’이라고 부르지만,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충청도에서 ‘마을’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인 1960년대나 70년대만 해도 ‘마을’이란 말은 도회지 사람들이나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이었지, 충청도 말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때에는 ‘동네’라고 쓰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사실 이 말은 ‘洞內(동내)’라는 한자에서 온 것이니 순우리말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마을’을 나타내는 충청도 말은 무엇이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을의 충청말은 ‘말:[마알]’입니다.

지금은 ‘한 지역에 여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을 나타내는 말이 ‘마을, 동네(洞內), 부락(部落)’ 정도지만, 예전에는 순우

리말이 여럿 있었어요. 우리 충청도와 전국에서 두루 쓰인 말로는 ‘실, 뚝, 달, 말’ 따위가 있지요. 이 가운데 ‘말’이 서울말인 ‘마을’의 충청말인 거예요.

“말앞이루 큰 행질이 난다더면.”

“건넛말인 뭐더라 갔던 거?”

“그 외진 골말서 뭘 히먹구 산다?”

금방 아시겠지요? ‘건넛말’은 ‘건넛마을’의 충청말이고요, ‘골말’은 ‘골 마을(골짜기 속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 거잖아요. ‘웃말’은 위쪽에 있는 마을이고, ‘아랫말’은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지요. ‘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뜻하는 말이고, ‘뚝’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지역’, ‘달’은 ‘어떤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에요.

따라서 충청도에 아주 많은 ‘양짓말, 음짓말’은 서울말로 하면 ‘양지마을, 음지마을’이 되는데요. 이 말에 ‘실, 뚝, 달’을 붙이면 다 똑같은 뜻이 돼요. 햇살이 잘 드는 마을을 뜻하는 ‘양짓말’은 ‘양지뚝, 양실, 양달, 새뚝, 새실, 새터’와 같고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마을을 뜻하는 ‘음짓말’은 ‘음지뚝, 음실, 음달’이 되지요.

예산군 삽교에 가면 ‘신리(新里)’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신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마을 이름인데, ‘신(新)’은 ‘새 신’이라는 한자말이지요. 이때 ‘새’는 ‘해가 떠올라 세상이 환해지는 것과 새

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신(新)'에 '마을 리(里)'를 붙인 '신리'의 예전 본래 말은 '새뜸, 새말, 새실, 새터' 가운데 하나가 돼요. 이런 마을 이름은 전국에 널려있는데,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대개 '신리, 신촌(新村)' 따위의 한자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 '신리'는 삼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참 많아요.

'마을'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사람들이 이웃에 놀러가는 일'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을의 옛말은 '마숲-(마슬)과 비슷한 소리'이었는데 서울에서는 '마을'이 되었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말:'과 '마실'로 나뉘었어요.

‘홍군헌아릅목’이 그리운 계절

*표준말에는 없는 ‘홍군허다’

“날이 취나닝께 **홍군헌 아릅목**이 생각나너면.”

“방이 **홍군허게** 군불 점 지퍼봐.”

며칠 전 비가 내리고, 날이 제법 쌀쌀해졌어요. 날이 푸근하면 12월 초가 되어야 김장을 하는데, 예년보다 기온이 떨어지니 김장 철도 한 열흘쯤 당겨졌네요. 주말이 되면 멀리 있던 아들 며느리 시골집에 모여 배추를 뽑고 절이고 다들 바빠요. 겨울로 가는 하루 해는 짧은데 날이라도 추워지면 김장하기 참 고역이지요. 고무장갑을 낀 손이 얼어붙고, 가슴팍에 차갑게 밀려드는 바람을 헤치며 날 저물기 전에 끝내려고 서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아들네 딸네 나눠줄 수백 포기 김장을 준비하는 어머니로부터, 주말 이들을 꼬박 손놀려 몇 십 포기 자기 몫을 챙기는 저물녘이면 홍군헌 방안이

더 없이 그리워요. 육간(肉間)에서 준비해온 수육에 곁절이 한 보 새기 없어먹는 정겨움도 흥군한 방안에서 피어나겠고요.

‘흥군허다’는 날씨가 추울 때, ‘방안이나 주변이 불기운으로 기분이 좋을 만큼 따뜻한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국어사전이나 방언사전에 나오질 않는군요. 말의 모양을 살펴보면 충청말에서는 발음하기 쉽도록 ‘ㄱ’ 앞에서 ‘훈’은 ‘흥’으로 소리내고, ‘ㅡ’는 ‘ㅜ’로 쉽게 발음하지요. 그러면 ‘흥군’은 ‘훈군’이 되니까 ‘흥군허다’의 표준말은 ‘훈군허다’가 되어야하는데, 이상하게 표준말에 ‘훈군허다’가 없네요. 아무래도 이 ‘흥군허다’는 아직까지 조사가 덜 되어 밝혀지지 않은 충청말로 봐야겠어요.

이 ‘흥군허다’와 짝을 이루는 표준말은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더 찾아보겠지만 그래도 표준말에 없다면 아마도 국어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대략 비슷한 표준말에는 ‘훈훈허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서도 ‘훈훈허다[후눈허다]’가 쓰이고 있고, ‘흥군허다’와는 약간 뜻이 다르지요.

다가오는 겨울날, 우리 충청도에 흥군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기대해요. 아마 그리될 것이에요. 모든 분들 넉넉하고 따뜻한 겨울 맞이,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세요.



충청도말 이야기

초판 1쇄 인쇄 2015년 12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12월 30일

지은이 이명재

발행인 김시운

발행처 예산문화원

기획 박세진

행정지원 김상희 박지혜 이다연

편집인쇄 (주)산원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신원빌딩 3층

Tel. 02-3664-2131~4 Fax. 02-3664-2130

ISBN 978-89-968223-5-6 03700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와
예산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서적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